

신앙과 학문

제23권 제1호 (통권 74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제23권 제1호 (통권 74호), 2018년 3월호.

발행일/2018년 3월 31일
발행처/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유재봉(성균관대학교)
편집인/손병덕(충신대학교)

편집, 제작/석중준
인쇄/진흥인쇄랜드
등록/문화 바02789
ISSN 1226-9425
주소/08807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3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02-3272-4967
팩스/0303-0272-4967
전자우편/gihakyun@daum.net
홈페이지/<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 일반 논문

영국 평화 개념 논의의 궤적 | 강성우 / 김 선 · 5

Tracing the “Peace discourses” in Britain:
A Short Historical Sketch | Sungwoo Kang / Sun Kim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한 신학적 고찰 | 김재민 · 31

A Theological Study on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Criminal Victims | Jae-min Kim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실천성에 관한 덕 윤리학적 접근 | 김종원 · 59

A Virtue Ethics Approach to Practicality of
Christian Worldview | Jong Won Kim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를 통해서 | 오혜정 · 81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Spirituality
in the Liv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rough Comparison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 Hye Jeong Oh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이종은 · 121

A Qualitative Case Study on
Prospective Christian Child Care Teachers' Sense of
Calling,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 Jong Eun Lee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 | 조현미 / 최은정 / 조은주 · 159

Working Experience of Pastor's Wives

| Hyun-Mi Joe / Eun-Joung Choi / Eun-Ju Joe

본회퍼의 '현실' 이해와 복합적 평등 | 최경환 · 197

Bonhoeffer's Understanding of 'Reality' and Complex Equality

| Kyoung-Hwan Choi

영국 평화 개념 논의의 궤적

Tracing the “Peace discourses” in Britain: A Short Historical Sketch

강성우 (Sungwoo Kang)*

김 선 (Sun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of the peace discourses in Britain from its origin to the WWI in 1900s. In Britain, diverse ethnic groups expanded their spheres of influence through wars, and the state identity of Britain was gradually formed as Christianity was introduced into the land.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peace discourses, as evinced by the fact that it was the Quakers and rational Christians who continually argued for pacificism in Britain. Moreover, as Britain pursued its imperialistic aspirations from 17th century onwards through its naval power, the age of *Pax Britannica* came. As Britain expanded its empire around the world, it put forth a rationale that war is a necessary evil to keep justice and order, and successive wars were justified upon this rationale. Thus, the peace discourses and movements in Britain developed during the endless outbreaks of wars, and wars became perceived as tools to promote peace: in this way, ironically war was justified for peace. As such, the peace discourses in Britain dominantly had two sides: the Christian discourses on pacificism and just war discussions. Also, the British peace discourses were Euro-centric, mainly developed under its relations vis-a-vis other European nations. Therefore, the British peace discourses had limitations to become a world-wide peace discourse in that they perceived the third world countries as people to be conquered or enlightened, rather than embraced them as equal partners to promote peace.

Key Words : Britain, peace discourse, *Pax Britannica*, Christianity, just war theory

*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Foreign Studies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sungwoo.kang1231@gmail.com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hert1451@snu.ac.kr

2018년 01월 14일 접수, 02월 23일 최종수정, 02월 25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0 361 A00017)

1. 서론

유럽에서 평화의 의미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용어는 파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평화)로 대변되는 힘의 원리에 의한 평화였고 전쟁에 의한 평화였다(Hammer, 2005: 235-266). 여기에서 라틴어 파스(pax)는 평온(tranquillitas)와 조화(concordia)와 함께 사용되는 용어로 질서가 있는 평온의 상태와 전쟁이 없는 상태(absence of war)를 뜻한다(Lowe, 1997: 9-10). 유럽에서 로마의 패권이 끝나고, 등장한 새로운 평화질서의 패권이 바로 파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 영국의 평화)이다(Parchami, 2009: 139-141; 박지향, 2007: 86-87). 흥미로운 것은 영국에 의한 파스(pax)는 유럽대륙이 아닌 다른 대륙에 폭넓게 걸쳐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은 초기에 브리튼 섬에 정착한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국가성립과정에서 기독교를 수용하였으며, 빅토리아시대가 시작되는 17세기부터는 강력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확장하면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영국은 “세계 지표의 1/4과 총인구의 1/5인 5억명을 가진” 전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기독교와 제국이라는 요소가 국민국가(nation-state)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유럽 대륙과 물리적인 거리를 가진 섬나라라는 안보전략상의 이점과 자유주의(Liberalism)가 상대적으로 일찍 정착되어 다양한 주장들이 허용되는 정치문화는 영국은 평화운동의 요람으로 인식되는 배경이 되었다(Ceadel, 1999: 144-145; Ceadel, 2014: 351-365).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국이 가진 유토피아적인 낙관론(optimism)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으로 무참히 좌절 된다. 영국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과 그에 대한 반성은 새로운 평화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영국의 평화논의에서 평화운동이 비단 침략적인 공격에 대한 혐오 뿐 아니라 현실주의자(realists)들의 진언과 같이 여겨졌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if you wish peace, prepare for war*)”를 경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Avrech, 1967: 5). 그래서 영국에서 역사 속에서 전쟁은 유용하기도 하고 피할 수도 없으며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로

받아들이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반성 또한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평화의 논의가 이루어 졌고, 체계화 되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반성 그 가운데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정의한 대로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없는 상태”이며 더 나아가 서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에 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동력이 되었다(Galtung, 1964: 1-4). 영국에서 진정한 평화에 개념에 접근하는 과정은 전쟁과 제국, 평화가 공존하는 상태였고, 정의나 전쟁을 통한 평화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다. 이에 영국의 평화의 개념 논의의 근간은 “전쟁이 평화가 될 수 있고 평화로운 전쟁”(War can be peace, and peaceful war)이라는 이름으로 무력의 수단이 정당화되는 역설 속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Hippler and Vec, 2015: 3).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영국의 역사 속에서 평화론에 관한 논문과 다양한 저작들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 평화 논의에 시작을 자세히 연구한 것은 Ben Lowe의 『상상의 평화: 초기 영국 평화사상의 역사』(*Imagining Peace: A History of Early English Pacifist Ideas*)(1997)에서 찾을 수 있다. Lowe는 영국의 백년전쟁(the Hundred Years War, 1345-1470) 중에 영국에서 평화론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hite, R. S.은 『평화론과 영문학』(*Pacifism and English Literature*)(2008)은 영국의 시와 소설등 문학작품들에 나타난 다양한 평화의 논의와 문예운동을 보면서 각 시대에 평화의 인식의 변화를 탐구한다.

또한 영국 평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Martin Ceadel은 『영국의 평화주의, 1914-1945』(*Pacifism in Britain, 1914-1945*)(1980) 『전쟁방지의 기원들: 1730년에서 1854년 기간의 영국의 평화 운동과 국제관계』(*The Origins of War Prevention: The British Pea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730-1854*)(1996)와 『반분리형 이상주의자들: 영국평화운동과 국제관계, 1854-1945』(*Semi-Detached Idealists: The British Pea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854-1945*)(2000) 등에 책에서 근대 영국의 평화 논의를 발전시킨다. 특별히 그는 1816년 평화협회(Peace Society)의 창립에 주목하고 처음으로 관련자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Laity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그의 저서 『영국의 평화운동, 1870-1914』(*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2001)에서 평화운동의 다양한 양상과 평화논의

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Paul Laity는 영국에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데 반대론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에 주목하면서, 평화론자들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기구나, 공동안보, 비개입, 자유무역 등의 제삼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Peter Brock의 저작인 『1914년까지의 유럽의 평화론』(*Pacifism in Europe to 1914*)(1972)에서는 유럽에서 평화논의의 발전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영국의 평화론을 비증있게 다루며, 퀘이커와(Quaker)와 비-퀘이커(Non-Quaker)로 나누어서 영국의 평화론을 접근하고 있다. 평화론의 발전과정은 또한 평화운동과의 연계를 찾는다. 또한 Cecelia Lynch는 『유화정책의 이면: 세계 정치에서 간전기(間戰期) 평화운동』(*Beyond Appeasement: Interpreting Interwar Peace Movements in World Politics*)(1999)에서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의 측면에서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중 간전기(間戰期)에 있는 평화운동에서 나타난 평화론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영미권에서는 영국의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역사의 영역 뿐 아니라 철학과 문학 등에서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한 연구결과가 축적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영국의 평화론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들(이내주, 2014; 최현미, 2003)은 존재하지만 영국의 평화론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만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영국의 평화론에 대해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영미권에서 출간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평화논의를 통시적(通時的)으로 그 기원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고찰하고, 그 흐름을 전체로서 조망하려고 한다.

II. 평화 논의의 기원- 기독교적인 배경

기원전 1세기 이후 영국의 브리튼 섬에 정착한 인종들은 켈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인, 앵글인, 주트인, 색슨인, 데인인, 노르웨이인, 노르만인 그리고 프랑스 인등 다양한 종족들이 있었다(Oppenheimer, 2006). 이러한 다양한 종족적 기원 중 평화의 개념의 흔적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북유럽의 고대 조상이자 침략자였던 켈트족(Celtic tribes)의 문화에서 공공의 평화라는 흔적만 있을 뿐 평화주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White, 2008: 85-87). 이와 같은 경향은 앵글로색슨(Anglo-saxon) 문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물론 앵글로 색슨 문화에는 구전 전통(oral tradition)이 강하기 때문에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평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나 현실적인 열망을 담아낸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White, 2008: 87-89). 노르만(바이킹, Viking)의 문화는 앵글로 문화와 빠르게 하나가 되고, 앵글로 노르만(Anglo-Norman) 문화가 형성되어 영국의 언어(Middle English)와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된다. 또한 전쟁에 대한 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용되는데, 귀족적인 가치관과 정교한 미학으로 기사도에 대한 숭배와 함께 자라났다. 곧, 이상적이고 기사도적인 윤리는 명예라는 순수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전쟁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수밖에 없었고, 16세기에 기사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게 된다(White, 2008: 89-94). 다시 말하면 영국을 구성하는 민족들의 문화전통에서는 평화개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영국의 평화개념의 논의는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국은 히브리-기독교 전통(Judeo-Christian tradition)에 따라서 전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악에 대한 승리로서 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전쟁은 무질서한 사회에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Lowe, 1997: 1-2). 물론 초기 기독교적 전통의 반군사주의(anti-militarism)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기독교에서 전쟁을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신이 성서에서 드러낸 이 땅에서의 평화를 성취하지 못하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원죄(original sin)를 가진 인간은 전쟁과 같은 폭력적 전쟁이 불가피 하지만 전쟁에서 기독교의 자비와 형제애가 드러난다는 시각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가장 지배적인 종교관은 섭리주의(Providentialism)로 전쟁을 하나님이 주신 징벌의 하나로 여겼다.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논의되는 평화의 개념은 거룩한 전쟁(holy war)과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라고 할 수 있다. 거룩한 전쟁의 대표적인 것은 십자군전쟁(Crusade, 1095-1291)으로 “신을 위해 이교도들과 이슬람교도(사라센)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는 논리였다(Lowe, 1997: 74; Tyerman, 2007: 79-110). 전장에서 살인이나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도덕적 불안을 잠재우고, 전쟁 실행에 대한 교황의 명령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교황 그레고리오 7세(Gregory VII)는 하나님의 적에 대항한

무력적인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수용하여 그리스도의 전쟁(*militia Christi*)이라는 의미를 덧씌워 전쟁에 참여하는 기독교인 전사에게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이후 11세기에서 17세기의 십자군이나 거룩한 전쟁은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논리적인 정당성의 기반 위에서 실행된다(Lowe, 1997: 28-29). 정의로운 전쟁론(*just war theory*)의 근간을 만든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의 하나로 전쟁을 수용했고, 이는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이 되는 창조, 타락, 구속,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Mattox, 2006: 121-122). 그리고 그는 천상의 평화(*heavenly peace*)와 지상의 평화(*earthly peace*)를 구분하였고, 지상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고 천상의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pax autem nostra propria*)라고 믿었다. 지상의 평화는 질서(*order*)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질서를 위한 전쟁을 악에 대한 선의 승리로 표현했다.

중세에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영적인 평화론(*spiritual peace*)¹⁾은 구체화 되었고, 14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정의로운 전쟁 논의에서 평화를 위한 전쟁을 옹호했고, 이는 주체의 긍정적인 동기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기독교적 토대(*foundation*)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전쟁을 정의로운 편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이다(신명기 1:30; 여호수아 10:13, 23:10).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각은 중세에 기독교인들의 전쟁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Kershaw, 2011: 151; Johnson, 1981: xxiv-xxvii).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 한 것은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정당성을 갖춘 정의로운 전쟁은 전쟁개시의 정당성(*jus ad bellum*)이라는 측면을 중시한 이론과 전쟁과정의 정당성(*jus in bello*)을 중시한 측면에서의 이론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해석으로 구체화 되었다. 특별히 거룩한 전쟁으로 여겼던 십자군의 경험은 전쟁을 하는 목적 뿐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행위를 재점검하는 바탕이 되었다(Lowe, 1997: 13-42). 이것을 체계화 시킨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로,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법적이고 도덕적인 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전쟁은 주권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전쟁개시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셋째, 교전은 전쟁의 결과로 선을 확산하고 악을 피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

1) 영적인 평화론은 *orderly peace*나 *Christ-like peace*, *practical(profitable) peace* 등과 함께 쓰인다.

회는 단순히 이교도에 대항한 전쟁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목적에,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정당한 목적을 가질 때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졌다(Ceadel, 1980: 19; Lowe, 1997: 32, 33). 이러한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개념은 영국 평화논의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자 논쟁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정의로운 전쟁의 전통은 전통적인 무력과 외교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피하는 방식과 격렬한 반무력주의적 감정으로 평화의 새로운 도구를 삼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Avrech, 1967: 7-8).

III. 평화 개념 논의의 시작- 백년전쟁과 르네상스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에 전개된 120여년에 걸쳐 지속된 백년전쟁(the Hundred Years' War, 1337-1453)은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을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Lowe, 1997: 73). 사실 백년전쟁은 두 국가가 영토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권력을 행하는 대조적 모형 간에 다툼인 내전의 성격을 가진 전쟁이었다(Butterfield, 2009: 20). 이 전쟁은 도덕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중심의 비판이 법적이고, 논리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catalyst)가 되었다(Lowe, 1997: 73). 특별히 영국학자들은 백년전쟁 중에 쓰여진 문학작품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쟁의 개념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물론 전쟁이 야기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Allmand, 1988: 151). 먼저 백년전쟁 중에 가장 대중들의 반발을 일으킨 부분은 전쟁시작과 함께 정부의 부채를 메우기 위해 시작되었던 새로운 형태의 세금과 가장 관련이 깊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교회와 성직자는 물론 시민들과 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다(Lowe, 1997: 80-87). 1380년대 영국 문학에서 평화는 공공연한 주제였을 정도로 변화가 감지되었고, 기사 작위와 관련된 주제나 성공적이지 못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타협 등도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White, 2008: 91, 93). 그리고 대포나 소형화기의 발명으로 기사도의 이상과 전쟁의 실상의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평화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기사 계급이 급속도로 몰락하는 반면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성이 심화되면서 전쟁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다(Lowe, 1997: 55).

르네상스 시대(Renaissance)에 영국의 평화논의는 단순하게 전쟁의 부재나 전쟁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전쟁에 대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평화를 상상하고 열망 하는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사상적인 바탕에는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자(humanist)인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전쟁을 단순히 정치적인 정책의 영역에서의 인간의 행동의 일부로 생각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는 정의로운 전쟁의 이론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국왕이 무력 사용을 정당화 했던 수사(rhetorics)까지도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에라스무스는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수사가 무의미 하다는 것은 자명하며, 이는 단지 조롱거리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전쟁은 반기독교적인 행위이며, 교회의 정의로운 전쟁 전통은 기독교의 법과 모순되는 시민법의 일부를 수용한 결과로 보았다(Lowe, 1997: 166-167). 특별히 『우신예찬(*Praise of Folly*)』(1509)에서 전쟁을 어리석은 인간의 행위로 규정하고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라고 공격한다(White, 2008: 54-55).

그리고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648)으로 알려져 있는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전쟁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상호간에 독립적으로 또한 공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30년 전쟁의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Treaty of Westphalia, 1648)의 시기에 힘의 균형의 유지(the maintenance of the balance of power)를 평화로 여겼다(Howard, 2001: 24).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와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1632-1694)와 같은 근대 초기 사상가들은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에 국제법적인 논리를 결합하여 근대 국가와 국가주권의 법적 수용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영국도 이와 같은 유럽의 사상을 수용했다(Howard, 2001: 24).

IV. 퀘이커(Quakers)와 기독교복음주의계열

영국의 평화 개념의 발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퀘이커(Quakers)의 등장과 합리적인 기독교인(rational Christians)들로 대표되는 복음주의자들(Evangelicals)에 의한 사회개혁운동과 노예무역의 폐지에서 찾을 수 있다(Ceadel, 2000: 22).

평화운동의 시작에는 친우회(親友會, Society of Friends)로도 알려진 퀘이커들이 모든 전쟁에 반대했던 여론이 있었다. 그들의 끈질긴 열망이 없었으면 평화협회와 평화회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Brock, 1972: 367; Ceadel, 1996: 196). 그럼에도 퀘이커의 평화 논의는 특정종교의 것으로 치부될 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퀘이커는 1642년에 반발한 시민전쟁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내전(Civil War)과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찰스 2세(King Charles II)의 왕정복고가 일어나는 시기에 출현했다(Weddle, 2001: 5). 퀘이커들은 평화주의 사상의 시작은 퀘이커교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George Fox, 1624-1691)가 영국 내전에서 “나는 모든 전쟁의 현장을 몰아내는 생명과 권능의 미덕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군대의 장교직(captaincy)을 거절했던 1651년에 시작되었다는 주장과 크롬웰이 물러나고 영국 찰스 2세가 왕정복고 후에 의회를 소집하여 의회활동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1661년에 혁명적인 소망의 결과로 평화론이 구체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Brock, 1972: 259, 267; Ceadel, 1996: 147-148). 퀘이커들의 모임이 창설된 이후에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퀘이커 평화 증언(Quaker peace testimony)”으로 알려진 “퀘이커라고 불리는 무해하고 결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언(A Declaration from the harmless and innocent people of God, called Quakers)”을 1650년대에 발표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퀘이커교도의 믿음과도 관련이 깊다(조동준, 2016: 271). 이를 구체화시킨 인물은 로버트 바크레이(Robert Barclay, 1648-1690)이다. 그는 구교와 신교(칼빈)의 신학에 정통한 인물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성을 위한 변증』(*Apology for the True Christian Divinity*)(1676)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적하거나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은 어느 경우라도 합당(unlawful)하지 않다”고 천명하면서 구체화되었다(Brock, 1972: 272). 이러한 사상적인 기반과 조직은 19세기 초 평화협회(Peace Society) 혹은 “영구한 세계적인 평화 진흥을 위한 협회(The British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Permanent and Universal Peace)”의 바탕이 되었다(Hinsley, 1963: 93). 비록 모든 영국인들이 친우회로서 절대적으로 그 신념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퀘이커이즘은 주로 평화주의의 용어로 정의되었다(Kennedy, 2001: 413-414). 협회의 초기 활동은 도덕적인 동인(moral agent)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가운데 영국에서 발전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는 이 전쟁에 참여를 반대하는 바탕이 되었고 그들의 근본정신은 ‘합리적인 기독교(rational Christianity)’였고, 이는 전쟁 참여 뿐 아니라 편견과 미신, 전제정치를 반대하는 사상이었다. 소위 합리적 기독교는 전쟁은 사회적, 정치적 제도에 영향을 주는 도덕적 불완전함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섭리적 형벌이자 인도(instruction)나 이러한 일정이상의 악이 국가에 축적되면 전쟁과 같은 위협을 가지고 온다는 신성한 정부의 개념과 관련이 되어있다.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아야 하는 ‘범죄한 국가(guilty nation)’의 개념은 그들의 사회의 폭넓은 비판이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사회와 정치적인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Cookson, 1982: 7). 이 시기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귀족적 실정과 민족주의의 편협함, 국제정치적 부도덕성을 비판했다(Sylvest, 2009: 35). 이러한 방식은 그들이 단순히 자유주의적 의견을 휩쓸었고, 그들을 개혁가로 높고 공격하기 어려운 종교적, 도덕적 경지에 위치하게 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로 대변되는 영국 복음주의자들의 노력에 의한 노예무역폐지가 진행되었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력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평화협정의 근간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 빅토리아시대 사회 개혁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도 다른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영제국은 세상에 “선을 위한 힘”(a force for good)으로 규정하였고 평화의 관리자(custodian of peace)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Parchami, 2009: 110).

V. 숙명론(fatalism)에서 평화와 전쟁은 선택(The Peace-or-War Debate)의 문제

근대초기 유럽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일부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여겼다(Ceadel, 2014: 352). 하지만 1730년대와 1790년대를 거치면서 영국에서 일어난 평화운동의 등장은 국제관계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왔고, 전쟁을 숙명(fatalism)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서 평화와 전쟁은 선택의 문제라는 일대 전환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삶에서 계

몽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 물질적 개선과 국제적인 구조의 변화는 평화의 전쟁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사상적 근간이 되었다. 대부분의 평화주의자들은 자신의 평화주의적 신념이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믿음에서 왔다고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소수의 유사평화론자(quasi-pacifists)들이었고 사회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평화운동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고 평화논의의 구조가 다변화 되면서 상호간에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Ceadel, 2000: 12-13; Ceadel, 1980: 18).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평화주의자를 뜻하는 Pacifist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방어주의를 뜻하는 defencism 또한 새로운 용어였다. 군국주의를 뜻하는 militarism도 1860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용어였다. 대신에 무저항자(non-resister)라는 용어가 상용되었다. 하지만 무저항(non-resistance)²⁾이라는 용어가 평화주의를 정확히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고, 무저항이라는 용어는 처음 에서 “신권(神權)에 의한 왕의 통치에 대해 저항하는 자들은 신(God)에 대항한 죄악”이라고 여기며 정부에 대한 시민의 복종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적인 신조였기 때문에 그 의미에 오해가 많았다(Ceadel, 1996: 29). 초기 평화주의자들은 무저항이라는 용어의 의미 그대로 사용했다. 평화협회는 “전적으로 비합법적인 전쟁의 원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에 절대적으로 저항하지 않는(non-resistance)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전적인 합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인 평화원리(ultra peace principle)”의 의미로 무저항주의가 사용되기도 했다(Ceadel, 1996: 29). 영국의 무저항주의는 미국에도 영향을 주어, 뉴잉글랜드 무저항 공동체(the New England Non-Resistance Society)의 일원으로 “뉴잉글랜드 무저항 공동체를 위한 원리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for the New England Non-Resistance Society)”을 발표했던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도 기독교적 ‘무저항’과 전쟁 및 무력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명백하게 표했다. 기독교적인 무저항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적에 대한 징벌보다 용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양심적인 평화론(conscientious pacifism)과도 연결된다(Atack, 2012: 166).

평화논의에서 새로운 용어의 출현은 평화와 전쟁의 논의를 구체화 시켰다. 전쟁은

2) 무저항(non-resistance)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사용되었고, 영국에서 상용되었던 무저항이라는 용어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주의(realism)적인 선택으로 여겨졌고, 평화는 이상주의(idealism)적인 선택으로 생각되면서 전쟁과 평화를 지지하는 다양한 유형의 모습이 나타났다. 19세기말을 거쳐 평화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전쟁주의자(현실주의자)들과 평화주의자(이상주의자)들로 나누고 전쟁주의자들은 militarists, crusaders, defencists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은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만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긴다. 반면 평화주의자를 뜻하는 pacifist라는 용어는 1901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이후에 pacifists와 pacificists로 구분되었고, pacifists는 절대적인 평화주의자로, pacificists는 평화 개혁주의자로 나뉘어 영국에서의 평화운동(Peace Movement)을 이끄는 바탕이 된다(Ceadel, 2000: 151).

Table 1 영국에서 평화-전쟁 논의에서 유형 분류

	공격/강제	방어/합법	전쟁/양심
현실주의자(전쟁) Realism	무력militarists	방어defencists	염세적 평화론 pessimistic/pacifists
이상주의자(평화) Idealism	십자군crusaders	평화론pacifists	협력적/긍정적 평화론 cooperative/positive pacifists

출처: Ceadel Martin. (1996: 56).

평화주의의 개념을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pacifist와 무력의 사용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pacifist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평화개혁주의자(reformist)와 평화절대주의자(absolutist)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평화절대주의를 pacifism 혹은 old pacifism로 분류하면서 무조건 적인 전쟁 반대주의로 분류하고 평화개혁주의를 pacifism 혹은 new pacifism으로 분류한다(Ceadel, 2014: 351-365; Weinroth, 1974: 551-574). 평화절대주의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들이기도 했으며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동인을 만드는 임계지수(critical mass)에 도달하면 전쟁은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평화개혁주의자는 전쟁이 종식되기 전까지 공격이나 폭력적인 목적 외에 자국 혹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은 정당하다고 믿었고, 대신 전쟁의 근원이 되는 다른 정치적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개혁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었다(Ceadel, 2014: 356).

특히 프랑스혁명(1789-1794)에 이은 나폴레옹 전쟁(The Napoleonic Wars, 1803-1815)은 유럽에서 평화논의에 불을 당겼고, 영국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군사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영국은 제국의 통로이자 전략적인 무역로(貿易路)였던 해양권을 확보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Lowe, 1998: 18).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다수의 국가가 빈회의(Congress of Vienna)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유럽의 평화가 찾아 온 듯 했다. 이는 영국인들에게 정부가 원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강화시켰고, 이는 영국이 보불전쟁(Franco-German conflict, 1870-1871)에 중립(neutrality)을 지키면서 국제관계에서 영국이 유화정책과 평화적인 변화의 입장에 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 간전기(間戰期)에 정책적인 바탕이 되기도 했다(Ceadel, 2000: 167). 주류 기독교인(퀘이커주의자가 아닌)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의를 낳기도 했다(Ceadel, 2014: 353).

또한 평화론자들과 퀘이커를 중심으로 1816년에 결성된 평화협회(Peace Society)는 영국 평화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기의 평화협회는 특정 종교적인 종파에 매이지 않고, 보편적(ecumenical)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위해 공리주의적(Utilitarianism)인 입장에서 반전을 주장한 내용들도 수용했다. 그 결과 1931년에는 1,500여명의 회원들(절반정도는 퀘이커 교도)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협회의 활동 초기에는 정치적이지 않았고, 신중했으며,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신학이 가르치는 평화의 메시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퀘이커교도였던 조셉 스티지(Joseph Sturge)는 ‘너무 고요하고 비간섭적인’ 평화운동에 대해 비판하면서 평화운동이 이익단체와 같이 정부 정책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기독교와 상업, 산업의 발달은 진보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개인들의 양심과 정치발언의 자유, 민영기업,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진흥했으며 평화운동에 도움이 되었다(Ceadel, 2014: 352). 기독교적인 평화론이 대중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1846년에 곡물법(Corn Laws)의 폐지와 함께 평화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리처드 콕턴(Richard Cobden)은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상업이 만능해결책(grand panacea)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쟁에 가담하는 정부에게 불개입(non-intervention)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Laity, 2001: 13-14). 이는 또한 세계 평화대회(Universal Peace Congress)를 개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차 세계대회에는 1843년에 런던에서 개최되었고, 324명의 대표단(영국 대표: 292명; 미국대표: 26명; 유럽대표: 6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5년 후인 1848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2차 세계대회에서는 840여명의 대표단(영국 대표: 670; 프랑스 대표: 100; 벨기에 대표: 12; 미국대표 20; 기타: 38)이 참석하고 1,500여명의 참석자가 있었던 대규모의 대회가 되었다(Cortright, 2008: 34).

하지만, 영국은 ‘제국(Empire)’이라는 바탕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팩스 브리타니카의 성립은 오랜 내부적 다툼에 있는 지역에 정의와 질서, 평화의 지배를 성립하기 위함이고 남아프리카에서 행해졌던 보어전쟁(Boer War)과 같이 광대한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여겼다. 그리고 제국의 주변부에서 행해지는 전쟁은 자위권과 이타주의적인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인식했다. 토마스 벅스턴 경은 “영국은 신의 총애를 받아 인류에 축복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쌍하고 무지한 1,000개의 식민지에 “교육과 농업, 상업, 산업과 부(wealth)” 뿐만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다(Parcharni, 2009: 110).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영국은 제국의 주변부에서 전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에 문제에서, 영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국의 정책은 무력의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고, 다른 강대국과의 대결 국면에서 무력의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았다(Parcharni, 2009: 142-1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영국제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식민지 지역으로 접근하는 러시아의 동진에 대한 문제에 봉착했고, 이는 크림전쟁(Crimean War, 1853-1856)으로 귀결되었다(Ceadel, 1996: 112). 크림전쟁은 강대국협력체제가 깨지면서 국가 간의 전쟁을 불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빈체제(Vienna System or Vienna Settlement)의 실질적인 붕괴를 의미하게 되었다. 빈체제 하에 있었던 1815년부터 1854년간 강대국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영국에게 희망봉과 실론, 헬리콜란드, 말타, 모리셔스,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섬, 토바고 등 이미 점유하고 있었던 경제, 안보적 거점으로서의 영토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Brown, 1991: 500). 이 시기에 국제적인 평화의 운동도 무르익고 있었고, 리처드 콕던(Richard Cobden, 1804-1865)이 주장했던 자유무역을 통한 평화 유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Ceadel, 1996: 93). 이 당시 영국의 외교정책의 근간은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확장하는 것 뿐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라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크림전쟁은 개혁당과 군비축소를 주장했던 콕턴(Cobden)과 같은 이들을 소외시켜버렸고, 평화운동이 와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당시 총리였던 팔머스톤(Palmerston)은 영국본토가 아닌 식민지에 위협을 가하는 침략자인 러시아에 대항하여 자유를 대표하는 도덕적 투쟁으로 크림전쟁을 설정했고,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에서는 자유의 수호를 위해 영국의 십자군이 폴란드와 헝가리, 이탈리아 까지 진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Ceadel, 1996: 93). 결과적으로 유럽은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되었고, 1843년부터 1853년까지 영국에서 국제평화대회를 개최하던 콕턴(Cobden)을 대표로 하는 국제평화대회(Congress of N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Movement)도 무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화 운동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콕턴의 유산은 남아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재를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과 군비감축 등의 원리를 가진 콕턴주의(Cobdenism)이라는 평화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VI. 세계 1, 2차 세계대전과 평화주의

1차 세계대전까지 영국에서의 평화론은 웨이커교도들처럼 엄격하게 교리로서 모든 전쟁을 부인하거나 국제법이나 세계평화를 열망하는 개개인들의 것이었고, 터무니없는 무기로 풍차로 달려드는 순진한 돈키호테와 같은 모습이기도 했다(Avrech, 1967: 5, 18). 그들은 소수였지만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평화론자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전과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 민주주의를 보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국가를 보호하며 미래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확고하게 하는 전쟁이라는 논리가 설득을 얻었다. 평화론자들 중에서도 전쟁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 영국을 도울 필요를 느낀다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Avrech, 1967: 18-19). 전쟁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유주의자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과 같은 이들도 있었다. 그는 징병반대협회(No-Conscription Fellowship)의 결성을 지지하며 전쟁에 의해 발효된 18세에서 41세에 있는 남성에게 대한 징병법(Military Service Act, 1916)에 반대했다. 그는 『전쟁의 윤리(The Ethics of War)』(1916)에서 영국의 대중들의 여론은 애국심과 증오에 의해 속고 있다고 전제하고 강대국들은 “영토

와 무역, 영예”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라고 설파하며 전쟁에 반대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는 쪽의 승리가 가지고 오는 이점에 집착하다보면 어느 편이 승리를 하건 간에 전쟁에서 악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에서는 둔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Monk, 1996: 456; Gittings, 2015: viii). 하지만 평화개혁주의자들 중 일부는 영국이 세계1차 대전에 참전하는 것을 군국주의를 타파하고 국제주의를 부흥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는 G. H. Wells의 “전쟁을 종식시킬 전쟁(the war that will end war)”이라는 유명한 경구(警句)가 압축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했다(Ceadel, 2000: 187).

이와 같은 논의 가운데 기존 평화사상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국제주의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화 사상을 주도했던 인물은 바로 노먼 에인젤(Norman Angell: 1872-1967)이다. 그는 1910년에 발간한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에서 20세기 초 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 옹호되었던 전쟁의 경제적 이득을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이라며 전면 반박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들 사이에서의 무력충돌은 패자(敗者)뿐 아니라 승자(勝者)에게도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입힌다는 사실을 실증적인 자료를 들어 주장했다(Weinroth, 1974: 551-574; Ceadel, 2000: 177-178). 이 책은 3년 사이에 2백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영국 대중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의 대중에게 사상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의 평화사상의 핵심은 “정복전쟁의 경제적 불합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내주, 2014: 13). 그의 평화 사상은 종전의 평화 사상 및 운동과 종종 대비되어 묘사된다. 그는 평화의 당위성 논의에서 개인의 양심 혹은 도덕성 및 종교성에 의지했던 패러다임을 국가 간의 경제적 이익 즉 실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화에 대한 실리주의적 접근은 전통주의적 평화운동가 및 사상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기도 했다. 예컨대, 버트란트 러셀은 『전쟁의 이유』(Why Men Fight)(1917)에서 전쟁은 전쟁을 통한 이익보다 충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Avrech, 1967: 18). 하지만 노먼 에인젤의 사상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발전되었던 콰터니즘(Cobdenism), 즉 “각 국의 산업발전을 지체시키고, 많은 경제적, 인적 손실을 초래시킴으로써 국력약화의 원인이 되는 정쟁을 지양함으로써 유럽 각 국가 간의 ‘점진적인 군비감축’을 시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호무장해제를 실천함으로써 세계평화를 구축하고자”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평화사상으로 연결시킨 발로(發露)라고 볼 수 있다(최현미, 2003: 363).

20세기 초엽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대규모적인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민주적인 개혁의 결과로 형성된 베르사유 협정(Treaty of Versailles, 1919)은 상징적으로 독일과 연합군사이에 전쟁을 끝낸 평화협정이었고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이 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은 영국민들로 하여금 국제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필요에 공감했고, 이는 1915년 결성된 국제연맹협회(LNS, League of Nations Society)을 탄생시킨다. 또한 파리평화회의(Paris Peace Conference)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영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국제 연맹과 같은 국제적인 단체를 통한 평화의 유지라는 명제의 철학적인 배경은 17-18세기에 윌리엄 펜(William Penn)과 이마누엘 칸트(Emmanuel Kant)와 같은 사상가들이 제안한 영구적인 평화(perpetual peace)의 개념에서 온 것이다. 1차 세계 대전 기에 독일에 대항했던 연합국들이 자유국가연맹기구(League of Free Nations Association)가 1918년에 형성되면서 국제연맹협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 두 조직은 1918년에 합해지면서 국제연맹협회(LNU, League of Nations Union)가 만들어 졌다. 영국인들과 세계는 세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연맹을 통한 평화를 유럽과 세계에 정착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평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또한 전전기의 비밀 외교(secret diplomacy)를 통해 전쟁 준비를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미국의 윌슨(Wilson) 대통령은 공개외교(open diplomacy)를 전쟁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국제연맹은 국가 간에 모든 조약과 합의를 기록하고 출판하는 공개외교에 관한 포럼은 제공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했다(Goldstein, 2002: 34-35). 하지만 이념적으로 국제연맹협회는 평화절대주의pacifist보다는 평화개혁주의 pacificist의 위치에 있었고, 국제협력이 전쟁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지만 국제법에 의거하여 무력적인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McCarthy, 2011: 2-3).

또한 참혹한 전쟁의 실상과 경험은 영국인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평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게 했다. 뿐 만 아니라 영국의 문학계는 반전(反戰)·연전(厭戰) 서적이 압도적이었고, 평화운동은 군비감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평화에 대한 열망은 국제연맹협회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된 평화투표(Peace Ballot)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투표 인구의 대략 40%가량 되는 천이백만 여명(11,640,00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투표의 결과는 87% 영국인들이 무조건적인 평화를 원하고 국제연맹에 머물러

야 한다는 쪽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Livingstone, 1935: 113; Lynch 1999: 113).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숫자는 늘어난데 반해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의 숫자는 여전히 소수였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절대적 평화주의자가 되지도 않았다(Ceadel, 1980: 56). 또한 투표의 결과는 영국 대중들이 평화주의를 수용한 증거라는 오해도 있지만, 영국정부가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투표의 결과에 반하는 정책을 세우면서 투표를 선동에 의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투표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렸다(Lynch, 1999: 115).

평화서약연합(PPU, Peace Pledge Union)이 딕 쉐퍼드(Dick Sheppard)에 의해 1934년에 설립되면서 평화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Ceadel, 1980: 242). 평화서약연합은 비폭력 저항이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여겼고 낙관했다. 비폭력에 대한 관심은 경제제재나 수동적 저항의 전략이 형성되는 것에 호소하는 방법과 같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Ceadel, 1980: 249-251). 이를 위해 다양한 사상가들의 평화 이론이 수용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주의를 수용한 미국의 사상가 리처드 그레그(Richard Gregg)의 이론이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그레그의 저서인 『비폭력의 힘』(*Power of Nonviolence*)(1935)은 평화론자들의 경전처럼 받아들여졌고, 평화론을 주장함에 있어 비폭력주의의 방법을 기초로 했다. 하지만 비폭력주의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지나가버렸고, 전쟁을 멈추는데 실질적이기 보다는 상상에 그쳤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불명확했다(Ceadel, 1980: 250, 255).

한편 또 다른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국민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기를 원했던 국제연맹은 오래가지 않았다. 1930년대에는 일본 제국과 나치 독일이 1933년에 탈퇴하였고, 이탈리아 왕국도 1937년에 탈퇴하면서 국제연맹체의 붕괴를 실감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전쟁(Spanish Civil War, 1936-1939)으로 유럽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1938년 9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뮌헨 협정(Munich Settlement)은 영국의 평화론자들은 사이에서 약소국의 희생을 통해 얻은 부끄러운 평화라는 인식이 있었고, 영국은 선과 악의 대결에 대한 대안이 아닌 하나의 악과 다른 악과의 사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Lynch, 1999: 112). 또한 커져가는 히틀러의 영향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appeasement)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혼란(ante-bellum anarchy) 속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은 독일 뿐 아니라 이탈리아(지중해, 중동)와 일본(만주와 동남아시아, 동인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영토와 무역의 거점을 확장하는 상황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 경제, 안보적 식민지와 무역거점을 가졌던 제국이었던 영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세계 1차세계대전 이후에 국내의 경제, 사회적인 상황과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를 원했고(peace craving), 군비감축을 추진하였지만, 영국 제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지구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Jackson, 2006: 4, 11).

또한 전쟁 상황에서 대부분의 평화론자들도 절대적인 평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수 없었고, 평화교섭(negotiated peace) 운동으로 입장을 선회했다(Ceadel 1980: 294-295). 평화서약연합(PPU)도 징집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주저했고, 1940년에 “우리가 싸우기를 거절하면 전쟁은 멈춘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War will cease when men refuse to fight.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라고 하는 도발적인 포스터를 게재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법령(Defence Regulation 39A)의 위배된다고 고소를 당하자 곧바로 철회하면서 전쟁 중인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Ceadel, 1980: 298-299).

평화서약연합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1차세계대전중에 선구자들보다 정당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정치적 요청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무기력함을 느꼈고, 나치(Nazi)의 유대인 말살 수용소가 알려진 이후에는 평화론에 대한 회의(懷疑)가 지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쟁 막바지에는 평화주의는 정치적 영향력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새로운 사회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느꼈다. 물론 평화주의자들은 성공적으로 구호활동과 같은 건설적인 활동에 참여했고, 활동가들은 사회적 존경을 얻기도 했지만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들의 입장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무기력 할 수밖에 없었다(Ceadel, 1980: 310).

VII. 결론

영국의 평화논의는 다양한 민족들이 브리튼 섬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용한 기독교적인 전통 가운데 탄생했고, 유

럽의 사상적 변화와 국제적인 전쟁과도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형성되었으며, ‘제국’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의 다른 강대국들과의 경쟁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 전쟁과 평화의 논의는 전쟁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정당화 하는 역설 속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논리에 기독교의 정의로운 전쟁론은 사상적인 바탕이 되었다. 물론 정의로운 전쟁의 논리는 비판받기도 했지만,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여 전쟁이 발발할 때 영국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여전히 유효 하는 사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제국이라는 맥락에서 전쟁과 평화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제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혹은 제국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는 정의를 위한 혹은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세워졌고, 제국을 정당화 하는 논리가 되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에서 평화를 해치는 전쟁으로 규정된 것은 대부분 다른 유럽 강대국들과의 전쟁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평화논의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전쟁과 평화를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유럽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유럽중심(Euro-centric)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

영국의 평화논의에서 제3세계는 정복의 대상이거나 계도 혹은 제국의 일부라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제한된 사고에 머물렀고, 전(全)인류보편의 평화논의에는 한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평화논의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남북한 통일과 평화논의에서 적극적 평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보편주의 통일론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 갈통의 평화의 개념을 다시 불러온다면,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없는 상태”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통일과 평화의 근거와 방향,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단순히 정치, 경제적 체제 통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화합을 지향하는 다면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남북통일과 사회 통합의 과정에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 존재하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와 같은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통일과 평화의 과제에 보편타당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한 차원 높은 통일과 평화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통일담론과 평화담론의 논의에서 남북의 통일이 동아시아나 한반도라는 지역에 국한 된 “민족사적 과제”가 아닌 “21세기 세계평화를 구축하는 문명사적 차원에서”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인류 보편가치에 기반 한 “세계사적

사건”의 일부로 사고하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구갑우, 2007: 162).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구갑우 (2007). **비판적 평화 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 [Koo, K. W. (2007). *Critics on Peace Studies and Korean Peninsula*. Seoul: Humanitas.]
- 박지향 (2007).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 [Pak, C. H. (2007). *A History of Britain: Drama of Conservatism and Reformism*. Seoul: Kkach'i.]
- 이내주 (2014). 영국의 평화운동과 노먼 에인절의 평화사상, 1900-1920. **군사**, 92, 1-29.
- [Lee, N. C. (2014) "The British Peace Movement and Norman Angell's Ideas on Peace, 1900-1920," *Kunsa*, 92, pp. 1-29.]
- 조동준 (2016) 전쟁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전우택 (편),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pp. 263-286). 서울: 홍성사.
- [Cho, T. C. (2016). *How can we create the world without war*. Cheon, W. T. ed. Christian Reflections on Peace. (pp. 263-286). Seoul: Hongseongsa.]
- 최현미 (2003). 리처드 콕턴 (Richard Cobden)과 19세기 국제평화운동과의 관계. **대구사학**, vol. 72, 349-389.
- [Ch'oe, H. M. (2003). Richard Cobden and its relations to 19th century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Taegu sahak*, 72, pp. 349-389.]
- Allmand, C. (1988). *The Hundred Years War: England and France at War c.1300 - c.14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drews, J. R. (1966). *The Rhetoric of Pacifism: A Rhetorical Study of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14-1856*.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Speech,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Angell, N. (1910). *The Great Illusion: A Study of the Relation of Military Power in Nations to Their Economic and Social Advantage*. New York and London: G. P. Putnam's Sons.
- Atack, I. (2012). *Nonviolence in Political Theo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Avrech, B. (1967). *Pacifism in England, 1914-1939*. Yale University Ph.D diss.,
- Brock, P. (1972). *Pacifism in Europe to 1914*.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own, R. (1991). *Church and State in Modern Britain: A Political and Religious history, 1700-185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eadel, M. (1980). *Pacifism in Britain, 1914-1945: The Defining of A Faith*. Oxford: Clarendon Press.
- Ceadel, M. (1996). *The Origins of War Prevention: The British Pea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730-1854*.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eadel, M. (1999). "A Legitimate Peace Movement: The Case of Britain, 1918~1945", in Peter Brock & Thomas P. Socknat (eds.), *Challenge to Mars: Essays on Pacifism from 1918 to 1945*.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Ceadel, M. (2000). *Semi-Detached Idealists: The British Peace Move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854-1945*.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eadel, M. (2009). *Living the Great Illusion: Sir Norman Angell, 1872-1967*.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eadel, M. (2014). The peace movement: overview of a British brand leader. *International Affairs*, 90(2), pp. 351-365.
- Cookson, J. E. (1982). *The Friends of Peace: Anti-War Liberalism in England 1793-18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tright, D. (2008). *Peace: A History of Movements and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tung, J. (1964).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 no. 1, pp. 1 - 4.
- Gittings, J. (2015). "Forward" in Toivo Koivukoski and David Edward Tabachnick (Eds.) *The Question of Peace in Modern Political Thought*.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Goldstein, E. (2002). *The First World War Peace Settlements, 1919-192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ammer, P. (2005). "The Crucible of War: English Foreign Policy, 1589-1603" in Susan Doran and Glenn Richardson eds. *Tudor England and its Neighbour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insley, F. H. (1963). *Power and the Pursuit of Peace: Theory and Practice in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States*. London, New York, New Rochelle, Melbourne Syd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ppler, T. and Vec, M. (2015). "Peace as a Polemic Concept: Writing the History of Peace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in Thomas Hippler and Milos Vec eds.

- Paradoxes of Peace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ward, M. (2001). *The Invention of Peace and the Reinvention of War*. Surry: Profile Books.
- Hudson, K. (2005). *CND-Now More Than Ever: The Story of a Peace Movement*. London: Vision.
- Kennedy, T. (2001). *British Quakerism, 1860-1920: The Transformation of a Religious Commu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rshaw, P. E. (2011). *Peaceful Kings: Peace, Power, and the Early Medieval Political Imaginati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ity, P. (2001). *The British Peace Movement, 1870-1914*.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vingstone, D. A. (1935). *The Peace Ballot*, London.
- Lowe, B. (1997). *Imagining Peace: A History of Early English Pacifist Ideas, 1340-1560*. University Park, Pa.: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 Lowe, J. (1998). *Britain and Foreign Affairs, 1815-1885: Europe and Oversea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ynch, C. (1999). *Beyond Appeasement: Interpreting Interwar Peace Movements in World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ttox, J. (2006). *Saint Augustine and the Theory of Just Wa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 McCarthy, H. (2011). *The British people and the League of Nations: Democracy, citizenship and internationalism, c. 1918-45*.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onk, R. (1996). *Bertrand Russell: The Spirit of Solitude, 1872-1921, vol. 1*. New York: The Free Press.
- Oppenheimer, S. (2006). *The Origins of the British: A Genetic Detective Story : the Surprising Roots of the English, Irish, Scottish and Welsh*
- Parchami, A.. (2009). *Hegemonic Peace and Empire: The Pax Romana, Britannica, and American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ylvest, Casper. (2009). *British Liberal Internationalism, 1880-1930: Making Progres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Taylor, A. J. P. (1957). *The trouble makers: dissent over foreign policy, 1792 -*

1939. London: Hamish Hamilton.
- Tyerman, C. (2007). *The Crusades*. New York and London: Sterling.
- Weinroth, H. (1974) "Norman Angell and the Great Illusion: An Episode in Pre-1914 Pacifism," *The Historical Journal*, 17(3), pp.551-574.
- Watson, J. (1996). *An Analysis of the Emerging Concept of Just Peace*. Ph.D. diss. Baylor University.
- White, R. S. (2008). *Pacifism and English Literature: Minstrels of Pea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논문초록

영국 평화 개념 논의의 궤적

강성우 (제1저자/중앙대학교)

김 선 (교신저자/서울대학교)

본고는 영국에서 평화논의를 통시적(通時的)으로 그 기원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고찰하고, 그 흐름을 전체로서 조망한 것이다. 영국은 초기에 브리튼 섬에 정착한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국가성립과정에서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는 영국 평화논의에서 중요한 바탕이 되었고 영국 역사에서 평화주의를 계속적으로 주장한 이들은 웨이커와 합리적인 기독교인들이었다. 또한 17세기부터는 강력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확장하면서 세계의 질서의 패권을 가진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로 성장했다. 영국은 제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혹은 제국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는 정의를 위한 혹은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제국을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영국에서 전쟁과 평화의 논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평화 운동과 평화 개념이 발전했고, 전쟁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정당화 하는 역설 속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평화 논의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전쟁과 평화를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유럽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유럽중심(Euro-centric)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평화논의에서 제3세계는 정복의 대상이거나 계도 혹은 제국의 일부라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제한된 사고에 머물렀고, 전(全)인류 보편의 평화논의에는 한계를 가졌다.

주제어 : 영국, 평화 개념, 팍스 브리타니카, 기독교, 정의로운 전쟁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한 신학적 고찰

A Theological Study on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Criminal Victims

김재민 (Jae-min Kim)*

Abstract

The key values that the laws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 human rights are to be met can be summarized as securing human dignity and criminal justice. Legal theologian claimed that human dignity should be respected because human being was created after the image of God, and that the source of all laws should be God. Additionally, they insisted that the decision criteria for what justice is should be obtained from the Bible which has the absolute principles that can be used at any time and any place, rather than relying on the incomplete human rationality. Therefore, they tried to find out the universal principles of legal order in the Bible. As a result of that, their ideas of human autonomy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became the root of modern liberal democracy. Contrarily, humanistic thinkers, who were on modern rationalism, considered human rationality perfect and trusted in the laws which were enacted through it. Unfortunately, the humanistic idealism offered the ideological basis to the emergence of totalitarian and communist states, and it resulted in the va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Conclusive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victims' rights paradigm' which has inherited the legacy of human rights and justice based on christianity, improving upon the shortcomings of the traditional nation-centric 'witness paradigm' that was built on modern humanism. The new framework should find out and reflect on it the core values and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at can be applied beyond the age and place. In this regard, the legal-theological study on the Bible which is related to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victims shall be further enhanced.

Key Words : criminal victims, human rights, christianity, legal theology, bible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2A01022720)

*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Kyungil University),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dogoodwill@hanmail.net

2017년 12월 28일 접수, 2018년 01월 18일 최종수정, 01월 22일 게재확정

1. 서론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형사절차 속에서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그들의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등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핵심가치들의 실현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점들이 많으며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문제를 국가권력을 강화하거나 비효율적 법집행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실효성 없는 명목상의 피해자 권리를 양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Elias, 1986: 231; 김재민, 2012: 251), 형사사법 시스템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리확보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범죄자의 유죄입증과 처벌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를 어떻게 잘 보장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에 대한 담론은 논자(論者)가 어떠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바, 필자는 이 논의를 기독교사상에 입각한 신학 이론의 힘을 빌려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선 신학이 법이나 인권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신학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본 다음, 필자가 인권보장의 핵심가치라고 제시한 인간존엄 및 형사정의 개념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향 이념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권보장의 핵심가치들을 현실 속에 실현할 수 있는 실행원리들도 기독교사상으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필자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신학적 접근을 하려는 이유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고도 총체적인 해법을 찾기 때문이며, 여러 종교 사상 중에서 기독교사상을 선택하여 인권보장의 핵심가치 문제를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유럽과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박은정, 2001: 88-101, 312-316), 그 사상이 유럽 및 미주 지역을 시발로 전개된 인권보호 정책의 철학적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Havermas, 2003: 108-115), 우리나라의 법제 또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최종고, 2001: 241-259).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대한 신학적 고찰은 인간존엄성 보장의 정당성 확보와 형사정의 확보의 판단기준 설정이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절대법의 원천인 성경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과 이 성경에 담긴 법원리들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 사상에서 발굴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적 원리들을 형사 사법 법제에 반영해 나간다면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촉진하여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II. 범죄피해자 인권 문제에 대한 신학적 접근

1. 법과 신학

범죄피해자 인권은 각 나라의 구체적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범죄피해자 인권 문제를 신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이 신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학과 신학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법신학(法神學, *Rechtstheologie*, *Legal Theology*)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법신학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학문분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 독일에서 부터라고 보고 있다(최종고, 1981: 222-224). 그러나 법을 신학적 관점에서 규범화하고 이를 해석하고 적용한 역사는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라고 보아야 한다.¹⁾

법을 신학과 연결시킨 가장 오래된 예는 성경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전수받아 시행한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신약시대 초기 기독교사를 자연법 사상에 접목시켰던 바울 또한 대표적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 중세시대에는 토마스

1) 여기서 ‘법’이라 함은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을 의미하는데 이를 ‘일반법’ 혹은 줄여서 단순히 ‘법’이라 칭하기로 하고, 교회가 제정한 교회법, 신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 기타 성경에서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규율들은 국가의 실정법과 구분하여 ‘성경적 법’이라 칭하기로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법과 신학간의 교감을 다룬 모든 논의들을 법신학 범주에 포함시켜 논하고자 한다.

2)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20절(“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에서

아퀴나스와 같은 교부들이 신학 및 교회법의 한 분야로 법과 신학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특히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 제정되었던 가톨릭 교회법인 캐논법(Canon Law)은 12세기와 1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법체계로써 교회법규 외에 형사법, 가족법, 계약법, 재산법 등을 담고 있었다. 이 법이 유럽전역에 확산되면서 세속정부의 법체계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김정우, 2010: 18). 16세기에 접어들어 종교개혁자들이 법을 신학적 교리에서 해방시키면서 세속질서를 규율하는 법에 대한 입법권이 교회가 아닌 세속정부에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그들은 개인 인격의 양심에 따른 자율성 보장의 논거를 신학에서 찾았고(김철 역, 2016: 101-104) 모든 절대적 진리의 원천을 성경에서 구하였으며 당시 신학에 침투했던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와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박문재 역, 2010: 128-129) 결과적으로 절대적 진리에 반하는 교황이나 세속 통치권에 저항하는 논거를 제공하게 되어 근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인권의식의 발아(發芽)를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와서는 국가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계시한 자연법에 바탕을 둔 법률에서 비롯된다는 법신학 사상이 영국 청교도 혁명 시기의 시민권 사상 정립이나 미국 정부수립 시기의 자유민주주의 법제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박문재 역, 2010:144-147).

서구 법제사를 돌아보면 법의 근본 토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법의 준거점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라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계는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에 법이란 그저 인간이 상황에 따라 정하거나름이라는 시각이다(홍병룡 역, 2002: 29). 전자는 법 제정의 원리를 성경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써 에릭 볼프(Erik Wolf)라는 독일의 법신학자의 견해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을 심판할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자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정의를 가르치는 분이며, 법의 제정자(Gesetzgeber)임과 동시에 법을 온전케 하는 분이라고 보았다(Wolf, 1948: 35-36; 마태복음 5:17-19; 로마서 3:31). 이는 하나님이 법 제정의 지침을 성경에 계시해 놓았다고 이해한 것으로써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교적 사회형식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전 세계 법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성경의 여러

그의 자연법 사상을 볼 수 있다.

가지 지시(Weisung) 속에 법의 확고한 기초가 있다고 본 것이다(최종고, 1981: 231-237). 그가 주장한 법 제정에 대한 성경적 지침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즉, 첫째, 인간의 의지(지혜)는 한계(Begrenzung)가 있기에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법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완전한 법을 제정할 수 있고, 둘째, 인간이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기본질서도 하나님이 제정하였다(Wolf, 1972: 97-98)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우주가 자연적 원인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무신론적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이는 인간이성을 절대시하는 18세기의 합리주의, 법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19세기의 법실증주의, 법이란 특정 사회의 필요에 의해 발전하는 것으로써 어떤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준거점도 없다고 보는 역사학파의 주장들과 연결된다. 하지만 인간이성의 합리성과 무한한 진보를 주장했던 계몽주의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인간존엄성 보장과 역행되는 공포정치를 출현시켰고, 인간이성의 신뢰를 기반으로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도 20세기 마르크스, 레닌,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등에 의해 반인권적인 공포의 역사를 쓰게 만들었다(홍병룡 역, 2002: 30-36). 이는 인간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라 하겠다. 이처럼 근대 합리주의에 기초한 ‘이신론(理神論)’적 자연법 사상가들은 인간이성이 완전하다고 보면서 그 이성작용을 통해 제정된 법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를 비롯한 법신학자들은 그러한 사상에 토대를 둔 인본주의적 이상주의가 전체주의 국가 및 공산주의 국가 등장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 모든 법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문재 역, 2010: 157-159). 만일 하나님의 권위에 법의 근거를 정하지 않고 법 만능주의에 빠져 법을 우상화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법이 오용, 남용, 악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성경의 입법 지침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현존하는 인류에게 항상 유효하다고 하다고 본 것이다(Wolf, 1948: 93-95).

이처럼 법의 토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신학 및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과 인간이성과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나뉘고 있지만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법실증주의가 주관적이고 편협한 가치를 반영하는 실정법을 제정할 위험이 있는 반면, 성경적 법은 오랜 시간을 통해 검증되어지고 발전되어 온 법으로써 보편성과 통시성(通時性)을 갖추었다는 점(이호선, 2014: 118)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질서의 보편적 원리 및 범죄피해자 인권 보장의 방향을 신학, 곧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2. 인권과 신학

인권(human rights)이란 ‘각 개인이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을 향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특정 국가의 실정법과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가기에 도덕적 권리(moral rights)라고도 한다(김도균, 2008: 104). 그러나 이 도덕적 권리가 각 개인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정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구제제도를 완비한 법적 권리(legal rights)로 전환되지 않으면 도덕적 권리 그 자체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³⁾ 이때 실효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의 내용을 실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생성되는 법적 권리도 인권의 내용에 포함시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도덕적 권리인 인권을 법적 권리로 전환하는 작업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인권의 구체적 내용이 각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권은 인간과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인간관 및 세계관과 직결되기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인권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인류역사의 경험을 통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하는 바, 이는 인권법 제정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서구의 인권법 제정 및 운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사상이 인권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많은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기원 후 4세기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들이 입법자로 활동할 때 노예의 보호, 여성의 지위 향상 규정을 로마법에 반영한 점, 8세기 동로마 제국 시대 에클로가(Ecloga) 법전의 서문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발췌한 내용을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정신을 제시하면서 입법권의

3)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대한 도덕적 권리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UN의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이하에서 ‘유엔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또는 ‘UN Declaration’이라 한다)’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국제규범일뿐만 아니라, 다자간 조약으로 우리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헌법재판소 1991.7.22., 89헌가106관결) 도덕적 권리를 국내 실정법상 실효성 있는 법적 권리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권리로서의 실효성을 지니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권위를 신적 권위에 연결시키고 그 내용으로 성경의 사법정의와 관련된 구절을 인용한 점, 9세기 영국의 알프레드 대왕이 앵글로 색슨법을 개정하면서 십계명을 인용함과 동시에 노동자 보호, 피의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벌금제도 창설 등을 규정한 점 등이 그것이다(김정우, 2010: 4).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도 기독교가 서구의 인권사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시기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에 대한 루터의 저항은 전통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으나 신학에 기초하여 인권사상을 일깨운 측면도 있는 것이다. 즉, 성직자도 세속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평등권 사상을 고양한 점, 혼인에 관한 교회법을 개혁하여 성직자도 자유로운 혼인을 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자유권과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킨 점,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는데 맞서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확립시킨 점 등이 그것이다(김정우, 2011: 235-237).

그 밖에 17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가 ‘법이 곧 왕(Lex Rex)’이라고 하면서 실정법은 ‘하나님의 법’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Francis A. Schaeffer, 1981: 99) 절대 왕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 점, 18세기 미국의 존 위더스푼(John Witherspoon)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신학에 기반 한 법치주의 사상을 계승한 가운데 성경을 근거로 인간의 평등권과 천부인권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에 참여하고 초기 미국 정부 구성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했던 점 등이 그것이다(홍병룡 역, 2002: 36-37; Schaeffer, 1981: 31-32). 이 때문에 하버마스(Habermas)는 오늘날 국제사회에 합의되고 있는 인권사상의 기원이 바로 기독교 인권사상이라고 하였으며(Habermas, 2003: 108-115), 이 인권사상을 기초로 서구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는 신학자들과 그 신학을 세속적으로 해석해 냈던 사상가들이 오늘날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사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이성립, 2012: 190). 17세기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의 저항권이나 삼권분립 사상도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이 왕’이라는 책에 담긴 기독교 사상을 세속화 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고(Schaeffer, 1981: 105), 1948년 세계인권선언 작성시 개신교 지도자들과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인권존중이라는 신세계 질서 형성을 목표로 이 선언문의 기초 작업에 관여했던 것도⁴⁾ 서구 법제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4) <http://www.pewforum.org/2003/01/27/sources-of-basic-human-rights-ideas-a-christian-perspective/>

말해 주는 것이다.

인간이성의 무한한 진보와 진화를 주장하는 계몽주의 사상의 노선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종교는 사적 영역에 속하기에 공적 영역이자 정치적 성격을 지닌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종교개혁가들과 근대 기독교 법사상가들이 인권사상의 원천을 성경에서 구하게 되면서 그 성경에 기초한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 존중 사상이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인권법 성립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인권운동을 펼침으로써 인권에 대한 정치적 성취를 이룩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이성림, 2012: 190-192). 따라서 인권담론을 위한 신학적 접근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범죄피해자 인권과 신학

근래에 국내외적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들이 개발되고 집행되면서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가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진한 점들이 많은 상황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이처럼 아직 미흡한 것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인권의식 결핍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범죄피해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감정과 상황에 대한 공감의 부족함 때문이다. 형사사법체계가 구조적으로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에서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인간존엄성 보장에, 후자는 형사정의 확립에 흠결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흠결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에 따로 구분지어 생각하기 어렵다. 범죄피해자의 고통에 깊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입법자, 법집행자, 법해석자들이 형사법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가 하면, 범죄피해자를 형사목적 달성을 위해 단순한 증인의 지위에 두도록 하는 형사법규나 형사사법체계가 경찰, 검사, 판사들의 공감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하며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권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

서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을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친화적인 체계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선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어떤 문제가 있고, 발전시켜야 할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며, 여기에 신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알빈 디어링(Albin Dearing)은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의 적실성을 기준으로 형사사법 패러다임을 증인(witness) 패러다임, 손해(damage) 패러다임, 손상(harm) 패러다임, 권리(rights) 패러다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 중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인 증인 패러다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증인 패러다임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가와 범죄자간의 공방의 틀로 이해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라는 인식의 기초에 서 있다. 범죄피해자는 단지 증거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 손해 패러다임과 손상 패러다임은 각각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손해에 배상과 다각적 손상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강조될 뿐 형사사법의 기본적 구조는 증인 패러다임에 준하고 있다 (Dearing, 2017: 9-17).

위의 증인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확산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민족국가의 등장과 관련성이 깊다. 이 국가주의의 등장 배경에는 개인의 권리보호보다 집단의 이익과 공공이익을 앞세우는 집단주의(collectivism) 이데올로기의 채택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상적인 국가건설의 사상적 기반은 인본주의적 계몽사상가인 루소(Rousseau)의 ‘일반의지론(一般意志論)’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변영하는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개인을 그 특정 프레임에 맞추도록 하면서 그 공동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공동체의 일반의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나 개인은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집단주의적 증인 패러다임 체계이다. 이 패러다임은 개인을 사회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어서 범죄 문제도 개인의 권리침해와 결부시키지 않고 가정(假定) 속에 존재하는, 초월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이익에 결부시키기에 범죄피해자 개인의 인권보장은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Dearing, 2017: 213-217).

이에 반하여 권리 패러다임은 범죄를 범죄피해자 개인의 권리 침해로 파악한다. 형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며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심지어 범죄자에 대하여 혐의입증을 통해 유죄를 이끌어 내는 것도 피해자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기

에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어엿한 주체가 된다. 국가는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데 이르기까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레임에서 국가의 중대한 기능 두 가지는 피해자 개인의 인간존엄성 존중과 타인의 인권 침해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책무수행이 된다. 범법자 처벌에 주안점을 두었던 국가의 기능이 범죄피해자 개인의 인권보장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다(Dearing, 2017: 23-31). 이로 보건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충실을 위해서는 증거 패러다임에서 권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⁵⁾

그렇다면 신학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첫째, 신학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소송주체로서의 성질을 긍정한다. 즉, 범죄피해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속하기에 범죄행위로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1차 피해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피해를 당한 인간은 2차 피해자에 속한다 것이 법신학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상에서 범죄피해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률상 대표자(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되기에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한다(North, 1990:16). 둘째, 신학은 범죄피해자의 인간존엄성 보장의 논거를 제시한다. 범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된 범죄피해자는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성경에는 외국인, 나그네, 고아, 여성, 빈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들이 많다. 범죄피해자도 이러한 약자의 부류에 속한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다른 이들과 같이 동등하게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Witte and Alexander, 2010: 220-226). 이러한 범죄피해자 인권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앞서 언급한 권리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가치와 상통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범죄피해자 인권의 핵심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학이 이 핵심가치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5) 다만, 증인 패러다임에서 권리 패러다임으로 급격하게 전환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리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단계적 발전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범죄피해자 인권의 핵심가치에 대한 신학적 논의

1. 범죄피해자 인권의 핵심가치

현재 많은 나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⁶⁾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7년 헌법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청구권과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2007년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제정, 그리고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등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그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신뢰관계 있는 자와의 동석권 보장 및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잘 지원한다는 것과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증인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하지만 후자는 권리 패러다임의 기초 위에서 그 성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다. 증인 패러다임 하에서도 인권보장을 외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를 증거의 객체로 보는 한 실질적 인권보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의미는 범죄피해자가 한 인간으로서 그 존엄과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다는 뜻임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이 공정하여 피해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마땅히 차지 할 자신의 몫을 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로 보건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형사정의 확보를 왜 핵심가치로 삼아야 하는지 그 명분을 신학이론과 연계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6) 본 연구에서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다만, 타인의 범죄행위로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자와 그 가족만을 뜻하기에 범죄행위 유발에 책임이 있는 자는 피해자 개념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인간의 존엄성 보장

법신학에서는 “인간이 왜 존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고(Witte & Alexander, 2010: 171), 하나님으로부터 지력과 의지와 능력, 그리고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한용희, 1978: 12-13). 아울러 인간은 창조의 순간에 영광과 영예의 원천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품위를 부여 받았기에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해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한다(이기락, 1992: 49-51).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시대와 지역을 뛰어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초자연적 형제적 유대의 가능성도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게 만든다(한용희, 1978: 13). 기독교가 담고 있는 이러한 인간존엄성 사상은 초대교회 이래로 진지한 기독교인들과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지지 되었으며, 18세기 이후 사무엘 러더포드, 존 위더스푼과 같은 크리스찬들에 의해 현대 인권사상으로 꽃을 피우게 되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적 인권사상가들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주장하였다(이상익, 2015: 271). 이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세계를 창조한 후 세계와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인간이성의 무한한 진보를 믿기에 인간과 사회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의 최대의 약점은 절대적 가치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에 있어서 자의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 사상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연결되면서 이상적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일반의지’에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거로 활용되었고, 사회적 진화론과 연결되면서 적자(適者)를 확산시키기 위해 약자(弱者)를 축출해야 한다는 논거로 활용되어 결국 독일 나찌의 국가사회주의나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배태시켰다(박문재 역, 2010: 155, 160, 176-180). 이 사상들이 인류의 인권역사에 얼마나 폐해를 끼쳤는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하게 인간이성의 진보를 신뢰하면서 출발했던 사상들이 가장 반인권적, 반인류적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로 보건대 인간존엄성 사상의 근원지를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서

찾을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한편,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와 품위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인격체로서의 위상도 거부되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실한 것이 된다.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회복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존엄성의 보장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형사정의의 확보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형사절차상의 정의 실현 문제이다. 형사정의 실현은 형사법제가 정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형사절차의 진행이 정의롭다는 뜻도 있다. 정의로운 가치를 반영한 법제정은 전자에 해당되고, 형사절차 진행이나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자원의 공평한 배분은 후자에 관련된다.

형사정의를 논할 때 무엇이 정의인지 그 정의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서양역사에서는 이 판단기준의 정립이 두 갈래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그 하나는 그리이스와 로마시대의 고전철학이며, 다른 하나는 기독교이다(전택부 역, 1976: 21-22). 전자의 경우 고대 그리이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이 대표적인바, 그는 정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인간이 스스로 확정한 '개별적 법률'과 자연법에 의해서 확정된 '일반적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개별적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법을 의미하는데 비해 일반적 법률은 어디서나 똑 같은 힘을 발휘하는 법으로 이해했다(박은정, 2001: 52-53).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은 인간이성의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써 후일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등장한 '이신론(deism, 理神論)', '자연종교', '합리주의' 사상과 연결된다. 이 합리주의 사상은 정의를 사회질서의 근본으로 보면서도 비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정의의 이념을 인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정당화 하는데 사용되었다(전택부 역, 1976: 22; Wolf, 1948: 11-21). 인간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와 같은 합리주의와 상대주의 사상은 법의 권위에 대한 초월적 근거를 모조리 부정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법을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해석함

으로써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법의 내용이 좌우되어 법치주의가 와해될 수 있기에 보편타당한 정의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박문재 역, 2010: 160; 홍병룡 역, 2002: 40-43). 형사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의에 대한 초월적 표준이 없으면 국가의 여러 제도에 대한 합법성의 표준이 사라지게 되고, 국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적 정의가 없으면 국가 멋대로 원하는 것을 법으로 선포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법신학자들의 사상이었다(전택부 역, 1976: 23). 실제로 법신학자들의 이러한 우려는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발흥으로 인한 세계대전의 발발(勃發)과 공산국가의 등장으로 인한 인권탄압의 역사로 증명되었다.

이와 달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결코 인간이성의 자율성만에 의존하거나 인간 역사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기초하는 것이며, 그 창조의 기본 질서가 정의와 연관되고, 창조주의 계시를 담은 성경이 절대적 정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Wolf, 1948: 29). 정의는 법치주의 확립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 법치(法治) 역시 정의에 대한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초월적 권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홍병룡 역, 2002: 58-59). 이로 보건대 인간이 만든 실정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월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매우 건강한 정의관(正義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형사정의를 판단기준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인종, 나이, 성별,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을 둔다면 피해자는 2차 피해로 고통 받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거부된다면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인간존엄성은 형사정의 확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형사정의 없이는 진정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인권법을 제정하고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정의를 확보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형사정의를 확보를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로 설정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형사정의를 판단기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원한 절대법에 의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신학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정당한 제도도 절대적 정의의 이념으로 지도할 때 그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택부 역, 1976: 22-25).

IV.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실현

성경 속에서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인 인간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 확보에 관한 정당성의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제정과 집행의 제반 활동을 관통하는 ‘입법원리’ 혹은 ‘집행원리’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총칭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실행원리’라고 부르고자 하는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인 ‘인간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 확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 수 있는 이 ‘실행원리’ 몇 가지를 찾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인간존엄성 보장 실행원리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범죄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될 수 있다. 범죄로 인한 타격은 피해자의 생존기반을 무너지게 하여 경제적 고통을 가하게 되고,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대인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평온한 생활을 다시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정신’이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공휼사상’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이 공휼의 마음은 모든 인간을 존엄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나라를 수 있는 감정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이러한 공휼사상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면 이방 나그네에 대한 압제와 학대의 금지(출애굽기 22:21-27), 농장에서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행위(레위기 19:9-10),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나누는 행위(신명기 14:29),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한 구제행위(신명기 15:7-15),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도주한 종의 보호(신명기 23:15-16), 가난한 자의 생필품을 전당 잡는 행위 금지(신명기 24:10-13) 등이다.

위의 사례 중 범죄피해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이방 나그네에 대한 학대 금지 항목이 되겠으나 나머지 항목들도 사회적으로 생존기반이 취약한 자들에 대한 배

려와 존중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원리는 UN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제4조와⁷⁾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인간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이 원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실효적 법적 권리화 할 필요가 있다.⁸⁾

(2) 사회적 편견 타파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parable of a good samaritan)’는 강도를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던 이방인인 사마리아 상인이 응급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숙소로 데려가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으로써 예수가 제시했던 비유이다. 이 비유로부터 우리는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편견 타파의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존엄한 인격체로 사심 없이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관계자들이 범죄피해자 업무를 다룰 때 피해자의 인종, 사회적 지위를 의식하거나 사회적 의식·문화·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피해자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Marshall, 2012: 120).

비유 속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했었던 예수는 그 강도 만난 피해자를 유대인으로 상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간에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불편한 관계였기에 그러한 사회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선행을 한 사마리아 상인을 통해 진정한 이웃사랑을 교훈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인권보호 영역에서도 선입견과 사회적 편견의 극복은 매우 중대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UN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제3조와 EU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침 서문 제9조가⁹⁾ 이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7) 유엔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제4조는 “피해자는 그 존엄에 대해 동정과 존경심을 갖고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Dussich & Mundy, 2008: 184).

8)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는 권리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규정이나 권리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단지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9) EU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침(원 명칭은 ‘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서문 제9조에서는 “범죄피해자는 인종, 피부색, 민족적 출신, 유전

(3) 연민과 공감에 기초한 행동

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는 연민과 공감의 태도로 피해자 지원을 실천하는 원리 또한 담겨 있다. 범죄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자기에 대한 유리·불리를 생각하며 ‘자기방어적 경계심(self-protective caution)’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마음(heart)과 감성(feeling)에 기초한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Marshall, 2012: 120).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호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위 비유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피해자 보호에까지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 진다는 유대교의 정결예법 때문일 수 있고(강병도, 2011: 110), 예정 되어 있는 예배 의식을 집전해야 할 사정 등이 있어 이 피해자에 연루될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보다는 자기보호적 차원의 경계심이 훨씬 강하였던 것이다.

피해자 인권보장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관계자들에게 이 원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EU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침 제25조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을 경찰뿐 아니라 검사와 판사 및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 들에게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FRA, 2014: 38),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0조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4) 공동체 통합지향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살았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용서하고 기쁘게 받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엄격하게 말하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직결되는 스토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바로 범죄피해자 ‘원상회복’의 원리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범죄피해자의 인간존엄성 회복과 관련된 것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재통합을 지향하는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이호중, 2009: 7-8; Marshall, 2012: 219). 범죄피해자가

적 특징, 언어,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재산, 출생, 장애, 나이, 성, 건강을 비롯 어떤 이유로도 차별 없이 정중하게 인정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1343306330&uri=CELEX:32012L0029.2017.12.16> 검색).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갈등해결로만 달성하기 어렵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결속력이 약화된다. 특히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받게 되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선입견을 통해 타율적으로 소외되거나 이웃을 불신하면서 스스로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확신할 수 있으려면 다시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재통합 될 수 있어야 한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언급되는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자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는 타락한 아들을 다시 공동체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용서와 관용을 확인시키고 다시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역공동체에 재통합될 수 있는 전기 마련의 의미를 지닌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이 되기 어려운 만큼 한 인격체로서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갖고 사회적 관계형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일원으로 재통합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5조의 3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화해권고 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의 형사조정제도 등이 본 원리와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회합(community conferencing) 또는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 등의 법제화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2. 형사정의 확보를 위한 실행원리

(1) 형사절차상 주체적 지위 부여

성경 신명기 19장 12절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도망하게 되면 성읍 장로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피해자의 가족(보수자)에게 넘겨 죽이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범죄사실 규명은 장로들이 하였지만 처벌의 집행을 범죄피해자 가족에게 넘긴 것이다. 신학적으로는 대인적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직접적 1차 피해자는 창조주인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는 하나님을 법률적으로 대리하여 지상에서 사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North, 1990: 17). 여기서 우리는 형사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해

자에게 ‘당사자적 지위’ 혹은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근대 절대국가 성립 이후 형벌권이 국가에 전속되면서 국가를 진정한 피해자로 간주하고 피해자를 형사절차에서 소외시킨 현상과 대비된다. 근래에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형사절차 참여권을 점차 확장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지만 범죄피해자를 증거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 브리넨과 헤겐(Brienen & Hoegen, 2000: 30-31)은 범죄행위가 사회 공공질서 침해행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적 행위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였는바, 이는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공익수호를 목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적어도 형법상 개인적 법익 침해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는 범죄피해자가 소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사인소추제도(私人訴追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소송주체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써 위 원리의 충실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이승호, 2012: 91-94; 손병현, 2014: 65-73).

(2) 해명기회 부여

성경에는 보복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억울한 정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원리는 성경의 도피성 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도피성 제도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보복을 피해 도피하면서 도피성에 거주하는 장로들에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세히 호소하도록 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써 여호수아 20장 4절에서 상세히 기술되고 있다.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당시 도피자의 의견을 청문했던 장로들의 역할이 오늘날 형사사법 관료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때 이러한 해명기회의 박탈은 곧 국가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로 연결된다고 보아 여기서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원리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어떤 가벼운 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억울하게도 중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되어

중한 벌을 받게 된다면 그는 가벼운 범죄의 범죄자인 동시에 중대한 국가범죄의 범죄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국가가 형사사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결코 일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뒤지지 않으므로 이런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사법기관은 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해명기회 부여의 원리는 위와 같이 이중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본래적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도 실효적 권리로서 채택되어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행하는 증인 자격의 진술로써 범죄피해자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사하는 의견진술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승호, 2012: 97-98). 따라서 이 원리에 충실한 실효적 피해자 권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3) 소송절차의 공정성 확보

형사정의 확보를 위하여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외국인)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소송절차의 공정성 확보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수사, 기소, 재판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범죄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사적 감정을 가지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출애굽기 23:6-9)’,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위기 19:15)’,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명기 16:19)’ 등과 같은 구절들이 바로 그것이다.

송사에 대한 공정성의 원리는 비단 재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에 형

사정의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라 할 것이다. UN의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제5조가 범죄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형사절차에의 공정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 (Dussich & Mundy, 2008: 184-185), EU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침 본문 제13조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각 피해자 개개인의 사정에 적합하면서도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대우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¹⁰⁾ 바로 이 원리의 반영이라고 볼 것이다.

(4) 손해배상

성경에는 형사정의의 실현을 위한 ‘손해배상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다. 즉, 상대방을 쳐 죽이고자 하였는데 죽지 아니하고 상처가 치료되어 회복된 경우에는 그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의 때까지 드는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였고(출애굽기 21:18-19),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을 때 그 남편이 청구한 벌금액을 내도록 하였으며(출애굽기 21:22), 소를 소유한 주인이 평소에 사나운 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주인도 사형에 처해 질 수 있었지만 생명에 대한 속죄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출애굽기 21:30), 소나 양을 도둑질 한 후 그것을 처분했을 경우 피해당한 숫자만큼 계산하여 배상하되 소의 경우 5배, 양의 경우 4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도둑질한 것이 아직 범죄자의 관리 하에 있을 경우 그 피해당한 것의 두 배로 배상하도록 한 것(출애굽기 22:1)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의 배상은 범인이 가지고 있는 고의의 불법성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화해의 출발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의가 행해진 이후에 사랑이 빛을 발하기는 쉬워도 정의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사랑으로 정의의 흠결을 메우기란 인간세계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은 형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진정한 피해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형사절차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둬으로써 위 원리를 실정법에 반영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배상명령 평균

10)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13433306330&uri=CELEX:32012L0029> (2017.12.16검색).

신청건수가 5959.2건, 그 중 인용된 건수는 1837.2건으로써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본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형사법원의 판사가 형사절차 내에서 행해지는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안일한 의식을 갖거나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Dearing, 2017: 346). 배상명령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활성화 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원리가 충실히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지선·김성언, 2015: 290-291).

V. 결론

지금까지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인 인간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의 확립의 중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원리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고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형사정의의 판단기준을 불완전한 인간이성을 통해 구하기보다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이 계시된 성경에서 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 그리고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리들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가와 범죄자간의 공방(攻防)의 틀로 이해하며, 범죄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여기는 전통적 형사사법 시스템의 증인 패러다임 하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취약해 질 위험이 있다. 형사사법의 운용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 우선주의는 근대 절대국가 성립시기에 국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등장하였다. 이 사상의 뿌리는 인간이성에 대한 절대 신뢰를 바탕으로 이상사회(理想社會)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 무신론적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본주의자들의 이상은 국가사회주의에 의한 전제정치와 공산주의 정부의 출현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서구 근대사회의 인권법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경이 법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종교개혁가들과 근대 기독교 법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범죄행위를 개인의 권리침해로 바라보지 아

니하고 공익침해 행위로 바라보는 국가중심적인 ‘증인 패러다임’의 요소들을 아직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들을 반성하면서 기독교사상에 담겨있는 인간존엄성과 형사정의 추구의 유산을 승계해 나갔으면 한다. 범죄행위를 범죄피해자 개인의 권리침해로 인식할 수 있는 ‘권리 패러다임’ 모델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 패러다임은 범죄자 인권보호와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줌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의 핵심가치인 인간존엄성과 형사정의를 최고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형사법 체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권보장의 핵심가치 및 실천원리들의 추가적인 발굴과 법제화가 필요한바 앞으로 성경이 담고 있는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법신학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병도 (2011). **툼슨Ⅱ 주석성경**. 서울: 기독지혜사.
- [Gang, B. D. (2011). *Thompson II Commentary Bible*. Seoul: Kidokgihyesa.]
- 김도균 (2008). **권리의 문법**. 서울: 박영사.
- [Kim, D. G. (2008). *A Grammar of Rights*. Seoul: Pakyoungsa.]
- 김재민 (2012). 피해자 권리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241-271.
- [Kim, J. M. (2012). *A Study on Securing the Crime Victims' Real Rights*.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24(3), 241-271.]
- 김정우 (2010). 기독교가 서구 법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관한 소고. - 고전 후기 시대의 로마법에서 중세 캐논법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4, 19-45.]
- [Kim, J. W.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Legal Tradi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centuries between the Roman law of the postclassical period and the canon Law of the middle ages. *Soonsil Law Review*, 24, 19-45.]
- 김정우 (2011). 정의와 인권에 대한 개신교적 관점에 대한 일고. -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루터의 비판에 나타난 헌법적 가치들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제17권 2호, 205-242.
- [Kim, J. W. (2011). A Study on the Protestant Perspective of Justice and Human Rights with the Special Reference to Constitutional Values in Luther's Criticism on the Roman Catholic Canon Law. *Korean Association of IACL*, 17(2), 205-242.]
- 김지선·김성연 (2015).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Kim, J. S., Kim, S. E. (2015). *Directions and Tasks of the Third Basic Plan for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김철 역 (2016). **법과 혁명Ⅱ. -그리스도교가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 -**. Berman, H. J. (2003)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서울: 한국학술정보.
- [Kim, C. (2016).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Trans. Berman, H. J. (2003)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박문재 역 (2010). *기독교 서구관. 프란시스 슈페퍼 전집 V*. Schaeffer, Francis. (1985).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5 2nd Edition.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Park, M. J. (2010).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5 2nd Edition. Goyang: Christian Digest. Trans. Schaeffer, Francis. (1985).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5 2nd Edition. Westchester: Crossway Books.]
- 박은정 (2001).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서울: 삼영사.
- [Park, U. J. (2001).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Seoul: Sam Yeong Sa. Trans. Hans Welzel, H. (1990).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 이기락 (199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서학적 고찰. *가톨릭신학과 사상*, 7, 34-53.
- [Lee, G. R. (1992). A Bibliological Study on Human Dignity.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7, 34-53.]
- 이상익. (2015).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한국철학논집*, 45, 266-300.
- [Lee, S. I. (2015).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Dignity.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45, 265-300.]
- 이성림 (2012). 탈-세속화 시대의 기독교 인권론. *신학과 세계*, (73), 180-219.
- [Lee, S. L. (2012). Christian Discourse on Human Rights in the Post-Secular Society. *Theology and The World*, 180-219.]
- 이승호 (2012).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83-104.
- [Lee, S. H. (2012).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Victim's Status in a Criminal Trial.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20(1), 83-104.]
- 이호선 (2014). 성경적 법을 통한 법학 지평의 확대. *신앙과 학문*, 20(1), 103-136.
- [Lee, H. S. (2014). Expanding The Prospects of Modern Jurisprudence Through The Biblical Law. *Shinang-gwa-hakmun*, 20(1), 103-106.]
- 이호중 (2009).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4권 제2호, 1-27.
- [Lee, H. J. (2009). Restorative Justice Discourses and Practice. *Ewha Law Journal*, 14(2), 1-27.]
- 손병현 (2014). 프랑스 형사법상 범죄피해자의 당사자적 지위.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2호, 63-84.

- [Sohn, B. H. (2014). Les caracteres d'une partie au proces penal de lavictime en France.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22(2), 63-84.]
- 전택부 역 (1976). **정의, 사회, 질서**. Brunner, E. (1945).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서울: 세계대학봉사회 한국이사회 출판국.
- [Chiun, T. B. (1956).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Seoul: Korean Council of World University Service. Trans. Brunner, E. (1945). *Justice and the Social Order*. Harper.]
- 최종고 (1981). **법과 종교와 인간**. 서울: 삼영사.
- [Choi, C. G. (1981). *Recht, Religion und Mensch*. Seoul: Sam Yeong Sa.]
- 최종고. (2001). **한국법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Choi, C. G. (2001). *The Legal Thought Histor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한용희 (1978). 인권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18, 1-40.
- [Hahn, Y. H. (1978). A Study on Human Rights - Catholic Position -. *Journa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8, 1-40.]
- 헌법재판소 1991.7.22., 89 헌가 106 판결.
- [Constitutional Court Desion, 89Heonga106 Decided 1991.7.22.]
- 홍병룡 역 (2002). **사람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정의**. Colson, C. (2000). *Justice that Restores*. 서울: IVP.
- [Hong, B. R. (2002). *Justice that Restores*. Seoul: IVP. Trans. Colson, C. (2000). *Justice that Restores*. (2000).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 Brienen, M.E.I. & Hoegen, E.H. (2000). *Victims of crime in 22 European criminal justice systems*. Nijmegen, The Netherlands: Wolf Legal Productions.
- Dearing, A. (2017).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Springer.
- Dussich, P.J. John & Mundy, G. Kieran. (2008). *Raising the Global Standards for Victims*.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 Elias, R. (1986). *The Politics of Victim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FRA. (2014). *Victims of crime in the EU ; the extent and nature of support for victims*.
- Havermas, Jürgen. (2003). *The Future of Human Nature*. Oxford: Polity.
- Marshall, C.D. (2012) *Compassionate Justice*. Cascade Books.
- North, Gary. (1990). *Victim's Rights*. 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
- Schaeffer, Francis. (1981). *A Christian Manifesto*. Crossway.
- Witte, J. & Alexander, F.S. (2010). *Christianity and Human Rights*. Cambridge.
- Wolf, E. (1948). *Rechtgedanke und Biblische Weisung*. Furche-Verlag Tübingen.

Wolf, E. (1972) *Rechtstheologische Studien*.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ein.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13433306330&uri=CELEX:32012L0029>.(2017.12.16 검색).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13433306330&uri=CELEX:32012L0029> (2017.12.16.검색).

<http://www.pewforum.org/2003/01/27/sources-of-basic-human-rights-ideas-a-christian-perspective/> (2017.12.22.검색).

논문초록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한 신학적 고찰

김재민 (경일대학교)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법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고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형사정의의 판단기준을 불완전한 인간이성을 통해 구하기보다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이 계시된 성경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근대 합리주의에 기초한 인본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이성이 완전하다고 보면서 그 이성 작용을 통해 제정한 법을 신뢰하였지만 법신학자들은 모든 법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법질서의 보편적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자 하였는 바, 성경에 기반 한 그들의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 존중 사상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이는 인본주의적 이상주의가 전체주의 국가 및 공산주의 국가 등장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과 대조된다.

이에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에 기반 한 국가중심적인 ‘증인 패러다임’의 흠결들을 반성하면서 기독교사에 담겨있는 인권과 정의의 유산을 승계한 ‘범죄피해자 권리 중심형 패러다임’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사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권보장의 핵심가치 및 실천원리들의 발굴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인권에 대한 법신학적 연구가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범죄피해자, 인권, 기독교, 법신학, 성경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실천성에 관한 덕 윤리학적 접근

A Virtue Ethics Approach to Practicality of Christian Worldview

김종원 (Jong Won Kim)*

Abstract

The aim of the paper is to give an answer to the question ‘why are the Christian worldview studies nearly powerless to change our everyday life?’ In order to do it, first, I assume that the ‘voluntarist’ approach to motivation theories in action is more preferable to the ‘intellectualist’ approach. Then, based on this approach, I show that virtue ethics combined with the Christian worldview studies can be an approach that strengthens the power of practice. According to virtue ethics, virtues are character traits which make virtuous actions execute with preferable feelings. Virtuous persons do virtuous actions willingly. If we include the result of studies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within a comprehensive list of virtues, we might increase practicality of the Christian worldview by using the method of virtue ethics. one of the methods which we focus on is so-called ‘exemplarism’, which holds that the best way to form virtuous character traits is to emulate the actions of virtuous persons by the feeling of admiration. When we repeatedly emulate the virtuous actions from virtuous persons from a standpoint of the Christian worldview, we can not only have noetic structure which the Christian worldview studies offer, but also live our life in accordance with it willingly.

Key Words : Christian worldview, voluntarism, virtue ethics, exemplarism, Zagzebski

* 서강대학교 강사(Sogang University),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kimjw74@gmail.com
2018년 03월 05일 접수, 03월 25일 최종수정, 03월 27일 게재확정

1. 들어가며

자연, 사회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위치에 관한 종합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세계관(Weltanschauung)이라는 용어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18세기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에서부터 철학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Lamers-Versteeg, 1990: 19).¹⁾ 이 용어가 중요한 철학적인 개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에 의해서 라고 할 수 있다. 딜타이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달리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과학에서 각각의 이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의 해석을 제시할 때, 그 각각의 해석의 근저에 놓여있는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그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형이상학 입장을 이해하고 그 이론들을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분석·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해석학적인 지적 도구로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Naugle, 2002: 82-98).

이러한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로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아마도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 - 1920)를 중심으로 한 화란 신칼빈주의자들일 것이다.²⁾ 특히 카이퍼는 그의 책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에서 ‘Encyclopaedie’(Encyclopedia)라는 단어의 뜻을 기존의 우리가 사용하는 백과사전이라는 뜻과는 달리 고대 그리스의 어원적 의미에 기초하여 ‘여러 학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로서 파악하려는 철학적(학문적) 지식들에 대한 연구’로 재정의하고

1)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는 나이글(David Naugle)을 따라 철학문헌에서 ‘Weltanschauung’ 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칸트에 의해서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라머스 페르스테이그(Lamers-Versteeg)에 따르면 그 단어는 그 이전에도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었다(Lamers-Versteeg, 1990: 19; Sire, 2004: 23).

2) 라머스 페르스테이그에 따르면 세계관이라는 화란어 단어인 wereldbeschouwing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689년에 호이겐스(Christiaan Huygens; 1629-1695)의 책 *Kosmotheoros*(우주이론)를 화란어로 옮기면서 처음 등장했다(Lamers-Versteeg, 1990: 18). 따라서 처음 화란어에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우주)를 어떻게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그 후 다른 이교도 사상이나 근대 사상들을 설명하면서 지금의 세계관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은 아마 1880년도 후반 이후로 추정된다(Kuyper, 1888: 19; Herman Bavink, 1904: 35). 동 시대에 스코트랜드 목사인 제임스 오르(James Orr; 1844-1913)에 의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영어권에 도입되었고 카이퍼도 제임스 오르의 연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나, 공식적 문헌에 등장한 것은 오르(1893년)보다 카이퍼(1888년)가 먼저인 것처럼 보인다(Sire, 2004: 2).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유기적 성격의 삶과 세상에 대한 고찰을 나타내는 말로 기독교 세계관(Christelijke levens - en wereldbeschouwing)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Kuyper, 1893: 23-43).³⁾ 기독교 관점에서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유기적 전체로 바라보고 평가하려면 당연히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관통하는 개념 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중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하는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기본 구조로 창조-타락-구속(회복)의 구조를 제시하고 그 틀을 바탕으로 세상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바라보고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 세계관 연구가 발전해 오게 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⁴⁾ 20세기 후반의 기독교 학자들의 입장 역시 신칼빈주의자들의 세계관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는 “세계관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기초적인 구성 형식에 대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관되던지 비일관되던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적으로 참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참일 수도 있고, 전적으로 거짓일 수도 있는) 가정들의 집합(Sire, 1988: 17)”으로, 알버트 월터스(Albert M. Wolters)는 세계관이란 “개인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초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로 정의 내리며(Wolters, 1985: 2), 브라이언 윌쉬와 리차드 미들턴 또한 세계관이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각의 틀로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결정하며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각의 틀이라고 설명했다(Walsh & Middleton, 1983: 32).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일관되게 바라보는 인식의 틀로 초기의 기독교 세계관 연구의 방향은 이 인식의 틀을 끈고히 하고 이 틀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적 영역의 지식들을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오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해온 기독교 학자들은 조금씩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이론들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사회가 모더니즘시대에서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 바뀌

3) 신칼빈주의자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칼빈주의 세계관’ 혹은 ‘개혁주의 세계관’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하게 사용한다(Kuyper, 1893: 59, 127).

4) 물론, 은혜와 언약의 틀이나 왕(왕권)과 왕국의 틀로 성경의 구조를 설명하는 다른 기독교 세계관 관점도 존재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Horton, 2009)와 (Kline, 2006)을, 후자를 위해서는(Fee & Stuart, 1981: 144)와 (Wright, 1992: 302-307)을 참고하라.

면서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객관적 진리개념의 변화나, 기독교 세계관 연구 결과에 대한 실천적 어려움, 그리고 명제적 지식보다는 내러티브가 담고 있는 내용의 풍부함에 대한 간과와 같은 문제들로 인한 것이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들을 수정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월터스는 자신의 책 *Creation regained* 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자신의 세계관 연구가 체계화와 구조화에 치우친 나머지 온전한 성경적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면인 성경의 내러티브적인 성격과 선교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여 첨가하였고(Wolters, 2005: 120), 월쉬와 미들톤도 그들의 새 책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세계에 대한 진리개념의 변화-객관적 진리개념에서 사회 구성적 진리개념으로의-속에서도 어떻게 여전히 성경의 이야기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으며(Middleton & Walsh, 1995: 4-5), 사이어 역시 세계관에서 내러티브의 강조에 대한 월터스의 주장과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시대의 진리개념의 변화에 관한 월쉬와 미들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세계관에 있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ire, 2015: 12, 14, 93-94).⁵⁾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를 통해 연재된 소위 기독교 세계관 논쟁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그 원인을 기존의 세계관 운동이 너무 사변적·개념적이어서 혹은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삶으로 실천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문맥에 맞는 기독교 세계관을 재정립해야한다’든지, ‘명제적 접근보다는 내러티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든지, ‘포스트모던 시대에 다른 세계관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와 같은 여러 대안들을 제시했다(박충, 2002; 양희송, 2002a; 양희송, 2002b; 정정훈, 2002; 이원석, 2002; 박충·양희송·정정훈·이원석 2002; 김기현, 2002). 여러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방향 설정이 기독교 세계관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는 의문시된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논의 자체가 실천을 위해 전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과거보다 좀 더 풍성하고 유연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은

5) “세계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기본구성에 대한 가정들의 집합으로 혹은 이야기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는데 기초를 제공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설정이자 일종의 헌신이다(Sire, 20015: 141).”

기존의 체계화되고 고정화된 기독교 세계관 연구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실천가능성도 높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왜 실제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기독교 세계관을 어떤 식으로 정립시키는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아무리 한 개인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체계를 형성하고 세상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따라 행위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리고 타인에게서도 종종 목격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이유(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신념체계(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신념체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신념체계를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우리의 행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II. 행위 동기부여 이론

본 논문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왜 삶으로 실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가를 묻는 물음에 대해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방식, 즉 행위를 위한 동기부여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행위이론, 그 중에서도 동기부여 이론이란 행위자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행위에 대한 의지의 결정과 의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부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행위 실행을 결정짓는 의욕(volition; 구체적 행위선택을 위한 의지의 결정)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대답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만약 누군가 행위의 실행을 결정하는 의욕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동기부여 이론에 있어서 주지주의자들(intellectualists)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왜 규범적인 행위를 실행하는지에 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러한 지식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지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왜 때때로 이성적인 판단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적합한 설명을 제공해 주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행위 실행을 결정짓는 의욕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지 자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동기부여 이론에 있어서 주의주의자(voluntarist)라고 부른다. 주의주의자들에 따르면 의욕을 일으키는 동기부여는 지성이 아닌, 의지나 욕구 혹은 감정과 같은 것들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주의주의자들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우리를 행위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므로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어떠한 이성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가 실행하려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설사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냐는 판단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판단의 척도는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자연적 감성(natural affection)라고 주장함으로써 의지의 결정에서 감성과 판단을 결합시킨다. 같은 주의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전자는 동기부여에 도덕적 판단이 직접적·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기부여 외재론자(motivational externalist)라고 부르며, 후자는 이성적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동기부여에 (감정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기부여 내재론자(motivational internalist)라고 부른다(Coleman, 1992: 331-348).⁶⁾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는 모두 우리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우리의 상식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우선 주지주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인지’ 혹은 ‘어떤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인지’에 대한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위하도록 동기부여 되었다는 주장은 우리의 일상적인 신념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도덕과는 무관해 보이는 하찮은 행위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자전거 타기를 할 때에라도) 실제로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일종의 암묵적 허가(판단)와 함께 실행되므로 이러한 주장은 일종의 경험적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주지주의자들은 이성적인 도덕적 판단이 우리의 의욕을 유발시키는 동기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적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의 다른 경험은 우리가 때때로 이성적 판

6) 따라서 대부분의 주지주의자들은 동기부여 내재론자들이다.

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가 약해(akrasia) 이성적 판단에 반하여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행위의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행위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욕구와 같은 감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의주의자들은 이러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행위 실행을 위한 의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성인 아닌 감정이나 욕구, 의지와 같은 감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⁷⁾

성경적 관점에서 어떠한 주장이 동기부여에 관한 올바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주의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가 죄된 행위를 하는 이유란 우리가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인지 알지 못해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타락은 전적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락과 죄의 근원을 우리의 자유 의지로부터 찾는 (즉, 우리에게 전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결정에 있어 의욕을 결정하는 요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의주의적 대답, 그 중에서도 동기부여 외재론의 대답이 보다 성경적 입장에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이러한 간략한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논의는 ‘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우리의 실천적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가’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질문에 대해 하나의 해답을 제공한다. 즉, 하나의 인식의 틀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관점에서의 올바른 실천적 삶을 살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으며,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각의 학문의 영역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어떻게 살아야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앞서

7) 좁은 의미에서 주의주의자(voluntarist)는 우리가 행위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이성이나 감정의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의지(will) 자체에 의해서 행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주의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voluntas’라는 단어의 의미가 ‘욕구’와 ‘의지’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감정이나 욕구에 의해서 의욕이 결정된다고 보는 주장 역시 큰 틀에서 주의주의에 속한다(Chappell, 1994: 205).

8) 물론 어거스틴, 안셀름,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Credo ut intelligam*(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를 주장하거나 요한복음 8장32절(“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기독교학자들도 있다(Brush, 2012: 20). 하지만 여기서 앞, 진리 등은 단순한 신념 체계로서의 앞, 진리라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인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의주의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래 기독교 세계관 연구의 유래는 실천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의 여러 학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로서 파악하려는 학문연구의 방법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왜 기독교 세계관 연구 혹은 운동이 우리의 실천적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방향설정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 공부의 실천적 삶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 연구는 기독교 관점에서의 올바른 실천적 삶을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우리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올바른 행위로 이끌기 위해 사고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지적인 판단이 행위 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나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실천적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각 학문 연구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윤리학적 문제라고 생각하며, 덕 윤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성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Ⅲ. 규범윤리학과 덕 윤리학

근대 이후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윤리 이론은 크게 의무론적 윤리학과 목적론적 윤리학으로 나누어진다. 의무론적 윤리학은 우리의 행위가 왜 정당한지를 따지는 ‘정당화’의 과제를 윤리학의 우선과제로 삼고 그 정당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적 법칙과 그것을 따르는 의무를 강조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의무론적 윤리학자들에 따르면 특정한 행위나 법칙은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옳다. 본질적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도덕법칙을 인정하고 다른 도덕법칙은 그것으로부터 추론된 법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무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의무론적 윤리학의 특징으로, 칸트의 정언명법이나, 성경의 황금

를, 신명론(divine command theory)과 같은 이론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에 목적론적 윤리학은 그 단어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에 초점을 만든다. 즉, 인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란 인간 본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의 이상적 번영이라고 보고 이 목적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행위가 나아가야 할 바라고 규정한다. 그 결과, 행위의 옳고 그름이란 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이 목적에 들어맞는가, 들어맞지 않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윤리적 판단의 유일한 근거란 ‘행위의 결과’라고 목적론적 윤리학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의무론적 윤리학과 목적론적 윤리학이 지향하는 바란 결국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행위해야 할 좋은 행위가 무엇일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행위 원리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큰 틀에서 보자면 둘 다 규범 윤리학(normative ethics)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윤리학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규범 윤리학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윤리학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규범 윤리학으로부터 벗어나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덕 윤리학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다. 왜 최근 현대 윤리학자들은 기존의 규범 윤리학을 벗어나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덕 윤리(virtue ethics)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기존 규범 윤리학에 대한 두 가지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윤리학의 실천에 관한 것으로, 행위 중심의 규범적 윤리학은 주로 ‘어떤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가’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윤리적 실천의 문제 - ‘왜 우리는 윤리학을 통해서 옳고 그른 행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왜 그대로 행위하지 못하는가’ - 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는 맥킨타이어(A. MacIntyre)가 지적한 것처럼 근대 이후의 윤리학이 “이론과 실천 양쪽에서 도덕이 무엇인지에 관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해를 상실했기(MacIntyre, 1984: 2)”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기존의 규범 윤리학이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따르면 도덕의 궁극적인 목표란 무엇인가? 도덕의 목표가 어떠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가를 발견하고 그 행위를 하는데 있는가, 아니면 도덕이란 사람을 변화시켜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따르면 덕스러운 성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으로 기꺼이 행위하는 사람과 그 행위하는 것이 자신의 성향이나 감정에는

거슬러 탐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서 행위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가? 아마도 우리의 도덕적 직관은 전자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덕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직관을 따라 행위가 아닌 성품에 관한 내용을 핵심주제로 삼는 덕 윤리학이야말로 도덕철학이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Anscombe, 1958: 8-9).

이처럼 덕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 체계를 갖추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 행위를 실천으로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윤리학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인가를 발견하고 그 행위를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보다 더 일치하는 윤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IV. 덕 윤리학의 특징

사실, 덕 윤리학자들이 설명하는 덕 윤리학의 설명방식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간단히 말하자면, 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성향으로 덕스러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덕스러운 행위를 하게 되고 덕스러운 행위를 하게 되면 덕스러운 성품이 견고해서 더 잘 덕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덕스러운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덕스러운 성품이 더욱 더 견고해져서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덕 윤리학에서 말하는 성품과 행위에 대한 설명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덕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덕스러운 성품에 강조점을 두고 삶을 덕스러운 성품을 향한 발전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덕 윤리학에서 덕스럽다고 할 때 덕의 의미는 무엇인가? 덕의 개념을 가장 기초로 삼는 덕 윤리학에서는 덕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환원할 수 없는 기초개념으로 간주하고 다른 개념을 통해 덕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려 하지 않는다. 만약 덕스러운 행위란 이러 이러한 행위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덕스러운 행위는 더 이상 덕스러운 성품으로 흘러나오는 행위가 아닌 하나의 규범으로서의 행위가 되어 덕 윤리학을 규범 윤리학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덕 윤리학자들은 덕스러운 행

위란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할 법한 행위이고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만 주장함으로써 덕스러운 행위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순환적인 정의만을 제시한다.⁹⁾ 따라서 정의(definition)의 방식을 통해 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덕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특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덕이란 행복(*eudaimonia*)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성품 특성(character trait)으로 특정한 행위로 이끄는 마음가짐 혹은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Aristotle, 2013: 42, 55, 59). 따라서 덕이란 이성도 아니고 감정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덕이란 행위와 연관된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반응에 잘 대처하게 만드는 심적 상태라 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덕들 중에는 이성적 판단과 연관된 덕이 있을 수 있고 행위와 연관된 덕이 있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지적인 덕(지혜, 이해력, 직관, 지적겸손 등), 후자는 도덕적인 덕(정직, 선의, 후함, 절제, 용기 등)으로 구분한다(Aristotle, 2013: 59). 누군가 이러한 덕을 자신의 성품으로 삼아 그에 따라 행위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덕스러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Aristotle, 2013: 71-72). 따라서 덕스러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란 행위하기 위해서 매번 이성적 판단을 내리

9) 순수한 형태의 덕 윤리학은 이처럼 덕에 대한 순환적 정의만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덕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순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Pojman & Fieser, 2006: 158). 따라서 대부분의 덕 윤리학자들은 순수한 형태의 덕 윤리학을 주장하기 보다는 규범 윤리학 단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덕 윤리학을 사용한다. 즉, 무엇이 윤리에 기초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덕 윤리학자들은 덕 개념에 기초해서 덕스러운 사람이 덕스러운 성품을 통해 행동하는 덕스러운 행위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원리에 들어맞는 행위를 올바른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행위란 무엇인지를 덕의 개념으로부터 정의 내리는 방식으로 파생적인 의미에서의 규범을 인정한다(James Rachels, 2003: 187-190). 자그웁스키(Linda T Zagzebski)는 개념적으로 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않고 비개념적으로 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순수한 형태의 덕 윤리학을 지키면서 인식론적 순환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덕스러운 사람이 덕스럽게 행위하는 것을 볼 경우, '덕스러운 사람이란 누구든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직접적 지칭(direct reference)에 의해서 덕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Zagzebski, 2017: 15-16).

10) 엄격하게 말해서 덕을 미덕(virtue)과 악덕(vice)으로 나눈다면 미덕인 경우에는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반응에 잘 대처하게 만드는 심적 상태이고 악덕인 경우에는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반응에 잘 못 대처하게 만드는 심적 상태라 할 수 있다(Aristotle, 2013: 72).

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덕스러운 사람이란 덕스러운 마음가짐이 체화되어(즉, 덕스러운 내적 동기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특정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성품이 발현되어 행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덕스러운 성품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위할 것이며 그 행위는 그 사람의 덕스러운 성품에 부합하는 행위므로 당연히 덕스러운 행위가 될 것이다.

둘째, 덕스러운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덕스러운 성품의 형성에는 실천적 지혜가 요구된다. 그 자체로는 지적인 덕에 속하는 실천적 지혜(*phronesis*)는 특정한 행위를 실행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올바르게 숙고하여 행복에 어울리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이성적인 마음가짐을 말한다. 이 실천적 지혜로부터의 숙고를 통한 행위 결정과 성품 형성으로 인해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을 칭찬하게 된다. 만약 덕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만 주어져서 그 형성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덕은 전혀 칭찬할만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덕 윤리학자들이 덕은 본성적으로 주어졌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Aristotle, 2013: 2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덕(*natural virtue*)과 진정한 덕(*true virtue*)은 서로 구별된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덕을 바탕으로 실천적 지혜를 거쳐서 형성된 덕이야말로 덕 윤리학에서 추구하는 진정으로 덕스러운 성품이며 이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덕스러운 행위는 습관을 통해 덕스러운 성품으로 변한다. 습관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행하거나 느끼거나 욕구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경향성을 말하는데 한 개인의 성품이란 그러한 습관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덕스러운 행위가 덕스러운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덕스러운 성품이 완성되려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습관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들의 형성단계에는 실천적 지혜의 판단이라는 의식적인 선택 작용(의지의 작용)이 포함된다. 즉, 덕스러운 성품이 완성되기 전에는 덕스러운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서 매 결정의 순간에 실천적 지혜로부터 특정한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덕스러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숙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덕스러운 행위를 반복해서 실행하다보면 이 반복되는 행위가 덕스러운 성품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 나중에는 이성적 판단이나 숙고가 없이 그 성품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덕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덕 윤리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란 진정으로 덕스러운 성품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덕스러운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덕스러운 행위는 좋은 감정을 동반한다(Aristotle, 2013: 90). 덕은 그 성품을 소유한 자이든,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목도하는 자이든 선호의 감정을 제공한다. 덕스러운 성품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덕스러운 행동의 실행은 실천적 지혜를 통해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했을지라도 그 행동에 대한 즐거운 감정이 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덕스러운 성품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 덕스러운 행동을 실행할 때는 즐거움의 감정을 동반한다. 또한 덕스러운 행위는 그 행위를 관찰한 사람에게도 덕스러운 사람(행위)에 대한 감탄과 칭찬의 감정을 제공한다. 이 선호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덕스러운 행동을 더욱 더 쉽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고 덕 윤리학자들은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행위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감정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덕이란 덕스러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사회와 지역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서 사회적인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 행위자의 성품과 행위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Macintyre, 1984: 126, 186). 물론 정의(Justice)와 같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덕들도 존재하지만 덕이란 기본적으로 공동체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¹¹⁾ 그리스에서는 용기, 절제 그리고 중용이 덕으로 간주된 반면, 겸손은 전혀 덕이 아니었고, 중세 이후 기독교 전통에서는 겸손과 사랑이 덕이었으나 중용은 전혀 덕이 아니었다. 이처럼 덕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덕스러운 성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그리스 시대의 덕과 아테네 시대의 덕이 왜 달랐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덕스러운 성품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실천적 지혜가 어떠한 행동이 덕스러운 행동인가를 숙고함에 있어 행위자가 속한 시대와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 ‘정의’라는 단어가 시대 초월적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각 시대마다 정의의 개념은 변화했다 (Macintyre, 1984: 244-255).

V. 덕 윤리학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

이제 이러한 덕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삼는 덕 윤리학은 이 글의 답하고자 하는 원래 질문, 즉,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학문 연구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규범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행위(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제도)인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올바르다고 판단한 그 행위를 실제로 행하게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행위를 실제로 실행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적인 동기들, 감정들, 욕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을 중시하고 덕스러운 성품을 갖는 것이 감정의 성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덕 윤리학의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접목시킨다면 지적인 활동을 단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일치하는 감정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학문적 진보와 일치된 방향으로 덕스러운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 성품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위 할 수 있게 되므로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덕 윤리학의 어떠한 성격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실천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선 무엇보다도 덕 윤리학과 기독교 세계관 연구(운동) 간의 접목 가능성은 덕의 공동체-상대적 성격에 기인한다. 만약 덕이라는 개념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객관적인 개념이라면 기독교 세계관 연구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덕스러운 성품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위를 실행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덕이란 기본적으로 공동체 상대적이므로 우리는 학문적 연구와 진보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적 상황의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덕의 개념을 새롭게 특징지을 수 있다. 실제로 중세 이후 기독교가 서구사회의 역사와 문화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덕으로 간주되지 않던 ‘용서’와 ‘사랑’이 새로운 덕으로 여겨지게 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된 것도 결국은 기독교적 사교의 유입과 그 사회적인 영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Macintyre, 1984: 174). 더욱이 용서와 사랑이란 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시대, 사회에 따라 달라졌다는 사실 또한 구체적 덕들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한

제정의를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 연구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연구는 덕 윤리학적 접근을 통한 기독교 진리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덕 윤리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 연구를 통해 덕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말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덕 윤리학에서 말하는 덕이란 규범 윤리학에서 말하는 옳은 행동을 위한 규범(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닌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할 법한 행위가 덕스러운 행위이고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간접적(파생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기독교 세계관 연구를 통해 기독교적인 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덕에 대한 명제적 정의보다는 성경이 그렇듯이 이야기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보다 더 성경에서 말하는 덕스러운 성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성품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건 아래서 예수가 특정한 행위를 실행했는데 그러한 행위의 이면에 놓여있는 예수의 성품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행위를 실행함으로 그러한 성품을 얻게 만드는 방식이야말로 덕 윤리학적 관점 아래서 기독교 세계관 연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일 것이다.

앞서 우리는 성품이란 습관들의 총합이며, 습관이란 행위와 감정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인 경향성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덕 윤리학의 관점을 따르자면 성경적 관점의 덕을 기초로 해서 성품이 완전히 형성된 사람은 더 이상 이성적 판단 없이 특정한 도덕적 상황에서 습관에 의해서 선호의 감정과 함께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기독교 세계관 연구란 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에게 실천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연구는 더 이상 무용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서도 그 사람은 자연스러운 성품의 발현으로 덕스러운 행동을 자동적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덕스러운 행위가 습관화되어 덕스러운 성품이 되기 전까지는 실천적 지혜를 통한 합리적 결단이 필요하다. 기독교 세계관 연구가 빛을 발하는 때란 바로 실천적 지혜가 이러한 판단을 실행하려고 할 때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아무리 덕스러운 성품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이 어

떠난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으니 기독교 세계관 연구는 덕스러운 사람과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는 사람 모두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VI.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과 덕스러운 성품의 형성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적인 덕들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성경적인 덕에 따른 행위들을 습관화하여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실천성을 높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덕스러운 성품을 기르는 데는 대상에 따라, 즉 아동인가 성인인가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아직 이성적 자율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덕스러운 성품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반복된 훈련과 모방이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 특정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게 될 경우 이성적 판단 없이도 그 행위 유형에 호응하는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의 발달은 특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으로 덕스러운 행위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덕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훈련을 통해 반복시킨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덕스러운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 역시 아이들로 하여금 덕스러운 성품을 소유하게 만든다. 부모의 삶(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어떻게 시련이나 강한 유혹을 극복하고 덕스러운 행위를 하는지)은 본받고 싶은 이야기가 되어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모방하게 만든다. 아이들의 모방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로 부터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위인들의 이야기나 성경 인물의 이야기들은 부모의 삶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그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모방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모방의 행위가 반복되어진다면 아이들은 그 행위에 대한 습관을 형성하고 중국에 가서는 덕스러운 성품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성경적 덕을 자신의 성품으로 갖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들의 행위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덕스러운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성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adults)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이 습관의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본인들이 실행했던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에 대한 반성적 경험은 이러한 행위들을 실행하게 만든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만든다. 이러한 반성적 경험은 일반화 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실행했을 경우에 생기는 만족의 감정과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후회의 감정을 거쳐 도덕적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은 자신이 아직 실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감정적인) 규제적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성인들의 성품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때 이성적·반성적 판단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직관(moral intuition)과 세계관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은 세계관과 무관하게 작동된다. 인종차별적 행동이나 여러 윤리적·경제적 비리를 저지르는 문제들은 대부분의 상식적인 세계관에서 모두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인 행동에 대한 도덕적 직관은 기독교 세계관의 주장과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 실천력이 없다’는 현재의 주장은 세계관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왜 실천하지 않는가’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관이 이성적·반성적 판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과 같이 일반적으로 판단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 것이다. 예를 들어 ‘무뇌증으로 태어난 아이로부터의 장기 제공은 가능한가’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의 인간 이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 판단에 따라 다른 선호의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도덕적 직관과 세계관은 우리의 습관 형성을 위한 행위들에 대한 이성적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성인들의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모방이 덕스러운 인격 형성에 도움을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받아들인 세계관의 신념 구조 체계의 형성이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자그웁스키(Linda Zagzebski)는 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덕을 형성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모형론(exemplarism)을 제시한다(Zagzebski, 2017: 117-128). 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범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 모형이

되는 사람(exemplar)이 이타적인 행위를 실행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존경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그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려는 심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행위를 실행했을 때 기쁨의 감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어 습관화 된다면 우리는 그 행위에 어울리는 덕스러운 성품을 우리 안에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그웁스키는 모형이 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거리가 먼 이야기 속의 초인과 같은 사람들(공자, 예수, 현인, 바보 이반)보다는 실제적으로(역사적으로) 우리 주위에 가까이 존재하는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어야 우리의 성품을 형성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Zagzebski, 2017: 68). 나의 성품이란 보통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나 이야기책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대응, 대처, 상호이해)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 있으면서 나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존경의 감정을 느끼게 하며 모방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성품을 소유하게 만든다.

Ⅶ.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연구와 운동이 왜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실천의 문제는 신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행위에 관한 동기부여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윤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덕스러운 행위를 실행하게 만드는데 있는 것임으로 규범 윤리학이 아닌 덕 윤리학이야말로 실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윤리학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덕이론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덕 윤리학에서 덕이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덕스러운 성품을 소유하여 덕스러운 행위를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이성적 선택의 반복과 그 반복으로 인한 습관화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덕들은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시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연구를 통해 드러난 기독교적 세부적인 덕목

들도 충분히 덕 윤리학에서 말하는 덕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덕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이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로 나누어 가능한 답변을 제시했다. 그 답변으로 제시된 모형론은 명제적으로 덕을 정의하는 대신 비개념적(인물의 이야기)으로 덕을 이해하는 이론으로, 덕스러운 행동에 대한 감탄의 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모방의 방식을 통해 덕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결국 이렇게 보자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실천적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관 연구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학문적 진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세계관에서 제시하는 덕에 따라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개개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그 삶에 대한 존경의 감정을 통해, 그들과의 우정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고 그러한 성품을 갖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기현 (2002). 명제신학 vs 이야기 신학. **복음과 상황**, 125, 80-84.
[Kim, K H. (2002). Propositional theology vs Narrative theology. *Gospel and Context*, 125, 80-84.]
- 박충 (2002). 기독교 세계관을 확 뜯어고쳐라. **복음과 상황**, 122, 97-107.
[Park, C. (2002). Change Christian Worldview! *Gospel and Context*, 122, 97-107.]
- 박충 · 양희송 · 정정훈 · 이원석 (2002). 기독교 세계관, 과연 실천만 남았는가? **복음과 상황**, 126, 16-31.
[Park, C. et al. (2002). Christian Worldview: Practical Possibility? *Gospel and Context*, 126, 16-31.]
- 양희송 (2002a). 기독교 세계관: 담론, 운동, 혹은 논란 (I). **복음과 상황**, 123, 57-63.
[Yang, H. S. (2002a). Christian Worldview: Discourse, Movement and Controversies(I). *Gospel and Context*, 123, 57-63.]
- 양희송 (2002b). 기독교 세계관: 담론, 운동, 혹은 논란 (II). **복음과 상황**, 124, 42-52.
[Yang, H. S. (2002b). Christian Worldview: Discourse, Movement and Controversies(II). *Gospel and Context*, 124, 42-52.]
- 이원석 (2002). 기독교 세계관 멀리서 넓게 보기. **복음과 상황**, 124, 53-63.
[Lee W. S. (2002). Christian Worldview: Wide View from a Distance. *Gospel and Context*, 124, 53-63.]
- 정정훈 (2002). 환상 속에 '기세'가 있다. **복음과 상황**, 123, 64-77.
[Jung J. H. (2002). Christian Worldview in Illusion. *Gospel and Context*, 123, 64-77.]
- Albert M. Wolters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 Albert M. Wolters (200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 Anscombe, G. E. M.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124), 1-19.
- Aristotle (2013). *Nicomachean Ethics*. (trans. Chun. B. H.) Seoul: Book Soop
- Bavink, Herman (1904). *Christelijke Wereldbeschouwing*. Kampen: Kok.
- Brush, Craig B (2012). *Montaigne and Bayle: Variations on the Theme of Skepticism*. the Netherlands: Springer.
- Chappell, Vere (1994). Locke on the Intellectual Basis of Sin.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32(2), 197-207.

- Coleman, Dorothy (1992). Hume's Internalism. *Hume Studies* XVIII (2), 331-348.
- Fee, Gordon D. & Stuart, Douglas (1981).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Grand Rapids: Zondervan.
- Horton, Michael S (2009). *God of Promise: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s.
- Kline, Meredith G (2006).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 Eugene: Wipf & Stock.
- Kuyper, Abraham (1893). *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Kampen: Kok.
- Kuyper, Abraham (1888). *Het Calvinisme en de Kunst*. Amsterdam: J. A. Wormser.
- Lamers-Versteeg, I (1990). Over Wereldbeschouwing. Een Kleine Geschiedenis van Een Zuiver Nederduits Begrip. *De Uil Van Minerva* 7, 17-32.
- Macintyre A (1984). *After Virtue*. Notre Dame: Notre Dame Press.
- Naugle, David K (2002). *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 Grand Rapids: Eerdmans.
- Orr, James (1893). *The Christian View of God and the World: As Centring in the Incarnation*. Edinburgh : A. Elliot.
- Pojman, Louis P & Fieser, James (2006). *Ethics: Discovering Right and Wrong*, (6th ed.). Belmont: Wadsworth.
- Rachels, James (2006). *The Elements of Moral Philosophy*. (4th ed.). New York: McGraw-Hill.
- Sire, James (1976).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Downers Grove: IVP.
- Sire, James (2004). *Naming the Elephant: Worldview as a Concept*. Downers Grove: IVP.
- Sire, James (2015). *Naming the Elephant: Worldview as a Concept*. (2nd ed.). Downers Grove: IVP.
- Walsh, Brian J. & Middleton J. Richard (1983).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VP.
- Walsh, Brian J. & Middleton J. Richard (1995).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Downers Grove: IVP.
- Wright, N. T (1992).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 Zagzebski, Linda T (2017). *Exemplarist Mor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초록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실천성에 관한 덕 윤리학적 접근

김종원 (서강대학교)

본 논문은 현재 기독교 세계관 공부와 다양한 기독교 학문 연구가 왜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가의 문제를 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현재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독교 세계관 연구에 대한 덕 윤리학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덕스러운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덕스러운 행위를 실행할 때 아무런 내적인 저항 없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로 실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연구의 결과를 덕의 목록 안에 포함시키고 그러한 덕들을 자신의 성품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덕들을 자신의 성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모형)의 행동을 관찰하고 존경의 감정을 통해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형론에 기초하여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덕스러운 행위를 모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신념체계가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성품화되고 행위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주의주의, 덕 윤리학, 모형론, 자그젝스키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를 통해서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Spirituality in the Liv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rough Comparison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오혜정 (Hye Jeong O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deep understanding on the significance of spirituality in the overall experience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Korea. Total of ten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five of whom are Christians and the rest are non-Christians were recruited as study participants. Data were collected by one-on-one interviews and analyzed by Giorgi's phenomenological study method to look into participants' experiences in depth. The statements of Christian study participants were structuralized with 4 intrinsic themes of 'burnout from tough daily lives', 'difficulty and loneliness of life as a migrant', 'receiving both support and scars from church and Christians' and 'having confidence and hope with new perspectives' while those of non-Christian study participants were derived as 4 themes of 'burnout from tough daily lives', 'difficulty and loneliness of life as a migrant', 'receiving both consolation and wounds from surrounding people' and 'growing through hardship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on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Key Words :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spirituality, phenomenological study,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migrant ministry

이 논문은 기독교학문연구회와 세계관연구소에서 주관한 2017년 <신앙과 학문> 논문제안서 공모전 수상 논문입니다.

* 총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 전공 박사과정(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hyejeong.oh@gmail.com

2018년 02월 09일 접수, 03월 15일 최종수정, 03월 20일 게재확정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20,591건(전체 혼인 중 7.3%)으로 이 중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14,822건에 달하며,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2016)은 국내 다문화가족의 수를 278,036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는 한국 생활 내지 결혼 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의 86.7%는 언어 문제,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정해숙·김해숙·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 2016), 관련 선행연구도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및 가족생활, 자녀양육, 사회문화적 적응,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함을 보여준다(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김한성·이유신, 2013; 민무숙·김이선·주유신·이정연, 2013; 이은주·전미경, 2014; 김진·이종운·김영숙, 2015; 박영주·윤동화·김원진, 2015; 신혜정·노충래·허성희·김정화, 2015; 박현선·정수정, 2017).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국내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이주민 사역의 시작은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공장 취업 등으로 수천 명의 외국인이 입국하면서,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내 교회들의 이주민 사역이 시작되고 1990년대 초에 들어 ‘희년선교회’와 ‘외국인근로자선교(현재 ‘나섬공동체’의 전신),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현재 ‘안산이주민센터’의 전신)’ 등의 이주민선교 관련 단체들이 설립되었다(장영신·정상우, 2015; 문창선, 2016).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이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주민 사역도 빠르게 늘어 외국어 예배 또는 이주민 예배를 통한 사역, 한글교실이나 이주민센터 등 교회 부설 기관을 통한 사역,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체 또는 정부 위탁 사역 등 그 유형도 다양해졌다(박천웅, 2010; 박홍순, 2013).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어떠한 의미와 기여를 갖고 있을까? 선행 연구들은 기독교 신앙생활 경험이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 내면의 상처 치유와 회복 등의 내면적인 부분(McIntosh, Silver & Wortman, 1993; Francis & Kaldor, 2002)에서부터 가족관계와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 지역사회 내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 구축과 같은

가족 및 사회적 영역(Bradley, 1995; Nooney & Woodrum, 2002; Stone, Cross, Purvis & Young, 2003) 등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정효진(2003), 전병철(2013) 및 Morris, Vokes & Chang(2007), Yoon, Lee, Goo & Yoo(2010), Baeq, Lee, Hong & Ro(2011), Oh(2013) 등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민자들의 정착과 적응에 있어 한인교회를 통한 신앙생활 경험이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결혼이주여성 내지 다문화가족 사역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사역의 당위성을 목회신학적 관점, 선교적 관점 등에서 확인하고 앞으로 교회의 다문화가족 사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강영실, 2010; 이광희, 2010; 임성빈, 2013; 한혜빈, 2014; 이수환, 2015; 최신일·황병준, 2015).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역의 내용과 효과가 어떠한지, 결혼이주여성에게 신앙생활 경험이 어떠한 의의와 기여를 갖는지, 반대로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앙생활 경험이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가족생활, 자녀 양육, 사회문화적 적응, 사회생활 등의 삶 전반에 대하여 갖는 의의와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경험 및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 해석 등으로부터 깊이 있고 풍성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을 들여다봄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의의와 가치, 한계 등을 고민함에 있어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함으로써 현재 사역에서 대상화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주체’로서의 지위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이 삶에 대해 갖는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삶과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

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의 과정에서부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국제결혼의 다수(72%)를 차지하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에 있어, 한국인 남성은 주로 경제력이나 외모, 나이, 장애 등의 콤플렉스로 인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반면 외국인 여성의 상당수는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가족 부양, 합법적 입국 등을 위하여 선택하는 등 결혼을 둘러싼 배경과 이해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김이선 외, 2006). 또한 결혼중개업체를 통하는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혼인이 이루어지고 비용 발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부관계 내 위계(hierarchy)가 만들어지며 결혼이주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매우 취약해지기도 쉽다(박미정, 2011).

결혼 과정의 문제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국제결혼 가정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부부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생각과 의견의 차이 또는 문화적 차이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갈등을 경험하기 쉬우며, 그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 자녀양육과 교육, 차별과 편견 등의 어려움들도 크다(김이선 외, 2006; 김한성·이유신, 2013; 박영주 외, 2015; 박현선·정수정, 2017). 실제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2016)에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86.7%)은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어려움은 Table 1과 같이 언어 문제(36.7%), 외로움(36.5%), 경제적 어려움(31.9%),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25.2%), 문화 차이(23.7%) 편견과 차별(14.8%), 가족 갈등(12.7%)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2008)에서도 다문화가족은 일반적인 한국인 가정보다 부부폭력(47.7% > 40.3%), 특히 중대한 신체적 폭력(16.9% > 4.7%) 등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어려움과 갈등이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Table 1 Difficulti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unit: %, plural response possible)

Difficulty	Loneliness	Family conflict	Raising child	Public organization usage	Economic hardship	Language problem	Cultural difference	Prejudice & discrimination	Others	None
Response	36.5	12.7	25.2	8.6	31.9	36.7	23.7	14.8	0.5	13.3

Jung et al.(2016).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6-03)*. p.132

이러한 어려움과 고충은 취약한 사회적 지지, 다시 말해 국제결혼으로 인해 원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를 상실한 후 낯선 한국 땅에서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 외 별다른 지지체계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 더욱 배가되기 쉽다(이형하, 2010; 민무숙 외, 2013; 김진 외, 2015). 실태조사에서도 응답 이주여성의 약 30% 이상이 가족 이외에 고민이나 어려움 등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정해숙 외, 2016). 관련 연구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김순규·이주재, 2010; 김미원, 2014; 신혜정 외, 2015), 양육태도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등 자녀양육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며(김혜금·조혜영, 2013; 정명희, 2013), 결혼이나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삶에 대한 만족 내지 삶의 질에 기여함을 보여줌으로써(이혜경·전혜인, 2013; 신혜정 외, 2015), 사회적 지지의 취약성이 가져올 어려움과 문제의 중대성을 시사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속성에 초점을 두어 반-억압 실천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도 있다. 반-억압 실천(anti-oppressive practice)은 사회구조의 불평등과 억압에 관심을 갖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실천이다(양만재, 2016). 반-억압 실천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하는 어려움, 즉 위계와 권력관계에 가까운 국제결혼, 혼인기간이나 한국 국적의 취득 등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변인이자 이방인으로 살아감, 역할과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데 무력해짐, 한국 사회와 문화에 철저히 적응하고 동화될 것을 요구받음, 가정폭력 및 사회로부터의 편견과 차별 등은 Young(1990)이 억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착취(exploit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무력성(powerlessness),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정신적·물리적 폭력(violence)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2 Understanding liv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based on Young(1990)'s categorization of oppression

Oppression(Young, 1990)	Application to live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Exploitation	International marriage bearing hierarchy and resulting exploitation
Marginalization	Living a life as marginal person or stranger
Powerlessness	Being powerless in asserting one's roles and rights
Cultural imperialism	Required to be assimilated to Korean society and culture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society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상당히 힘겹고 취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어려움과 문제에 관하여는 개인과 가족, 사회적 차원 모두가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취약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의 신앙 생활 경험이 삶에 대해 갖는 의미를 보다 깊이 있고 풍성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

교회용어사전(2013)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건한 자세로 모든 행동이나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며 신앙생활을 위한 거룩한 습관으로 성경을 읽을 것(렘 15:16), 기도할 것(요 14:13-14), 교회 모임에 참석할 것(히 10:25), 봉사할 것(롬 12:9-13), 헌금할 것(말 3:10), 복음을 전할 것(딤후 4:2) 등을 설명한다. Stone 등(2003)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의의를 크게 인식의 틀 제공과 사회적 지지의 두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기독교인에게 자신과 타인의 삶과 상황, 특히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고유하고 독특한 ‘인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기독교인에게 사랑과 돌봄, 위로, 격려, 소속감 등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Stone et al., 2003: 331).

실제로 Francis와 Kaldor의 연구(2002), Nooney와 Woodrum의 연구(2002) 등은 하나님을 믿음과 교회 출석, 기도 등이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행복 등에 기여함을 보여줌으로써 삶과 상황, 고난 등에 대한 인식의 틀로서의 신앙생활의 긍정적 기여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McIntosh 등의 연구(1993)는 기독교인이 교회 및 성도들과의 관계 및 교제를 통해 소속감, 스트레스 극복, 심리적 안녕감 회복 등에 도움을 얻는 것을 보여주었고, Bradley(1995)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의 경우 더 큰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더 많은 상호교류 및 활동을 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발견하여 사회적 지지로서의 신앙생활의 의의를 보여주었다. 한편, Stone 등(2003)은 신앙과 교회 공동체, 그 외 지역사회를 통한 지지를 총 26개 지지로 분류하여 이들이 위기에 처한 개인에 대해 갖는 의의와 기여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신앙과 중보기도, 기도, 배우자, 기타 교회 지원이 상위 5개 지지로 나타나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신앙, 기도)와 다른 성도들의 기도, 교회 기관을 통한 원조와 지원, 즉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지지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주민의 신앙생활 경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 내 한국인 이민자들의 정착과 적응에 있어 한인교회와 신앙생활이 갖는 영향 내지 의의를 살펴본 연구들(전병철, 2013; Yoon et al., 2010; Baeq et al., 2011; Oh, 2013)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이민자들의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들(정효진, 2003; Morris et al., 2007)은 신앙생활이 다양한 역경과 고난을 훈련이자 또 다른 기회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문화사회적 적응을 이루어가고 외로움과 향수병 등을 극복해가는 등 그 정착과 적응에 있어 큰 힘과 도움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 경험이 긍정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 하여, 결혼이주여성 또는 이주민을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과 위기 등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신앙생활 경험이 갖는 의의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힘겹고 고되게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살아남에 있어, 기독교 신앙생활 경험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소개받은 총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이다. 가족생활,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 사회생활 등 결혼이주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담아내기 위하여 한국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되, 신앙생활 경험의 의의와 본질을 비기독교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과 비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을 각각 5명씩 선정하였다. 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매주 일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로 선정하였고 세례여부, 교단이나 예배 언어 등은 제한하지 않았으며, 비기독교인의 경우 종교가 없는 사

람들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10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 36.5세로, 주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며 이 중 6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대부분 혼인 중이지만 3명은 이혼하였으며, 자녀에 관하여는 자녀가 없는 경우부터 5명인 경우까지 그 수가 다양하고 자녀의 연령 또한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까지 이른다. 월 평균 가계 수입은 기독교인의 경우 평균 128만원, 비기독교인의 경우 평균 200만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보다 취약한 편이었다.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장로교)에서 매주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영어 예배, 1명은 베트남어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4명은 세례교인이고 1명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전체 중 2명은 결혼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3명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3, Table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 및 윤리적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 각각에 대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과정 특히 일대일 면접 과정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면접내용이 녹음 및 필사되어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됨, 연구 후에는 자료가 완전히 폐기됨, 연구결과에 있어 개인정보 및 익명이 보장됨, 연구 도중에 언제든지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음 등을 알리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Table 3 Basic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study participants

	Age (yr)	Came from	Korean nationality	Married in	Children information	Employed (Family income)	Gov'tal support	Spiritual life
A	43	China (Ethnic Korean living in China)	Yes	1985 (Divorced in 2014)	Daughter(22) Son(17) with disability Daughter(12)	Yes (₩ 600,000)	Yes (₩ 500,000)	Started to go to Korean service of Korean church in 2005 and received baptism in 2008. Has participated in the ministry such as small group meeting, discipleship training, etc.

<continued>

Age (yr)	Came from	Korean nationality	Married in	Children information	Employed (Family income)	Gov'tal support	Spiritual life	
B	30	Vietnam	Yes	2006 (Divorced in 2011)	Son(11) with disability	Yes (₩ 1,000,000)	Yes (₩ 250,000)	Started to go to Korean service of Korean church in 2013 and received baptism in 2014. Now, goes to Vietnamese service of Korean church and joins the ministry actively.
C	32	Philippines	No	2012 (Divorced in 2012)	Son(5)	Yes (₩ 1,300,000)	Yes (₩ 120,000)	Started to go to church in the Philippines in 1995. In Korea, started to go to the service for people from the Philippines of Korean church in 2012 and received baptism in 2013. After the senior pastor was changed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from the Philippines was closed in 2016, goes to Korean service of the same church.
D	31	Philippines	No	2012	Son(4) Daughter(1)	No (₩ 2,000,000)	No	Started to go to English service of Korean church in 2013 but didn't receive baptism yet. Participates in a Bible study group with other women from the Philippines, as well.
E	34	Philippines	No	2008	No child	Yes (₩ 1,500,000)	No	Started to go to church in the Philippines in 2005 and received baptism in 2006. After marriage, goes to English service of Korean church and participates in a Bible study group with other women from the Philippines, as well.

Table 4 Basic characteristics of non-Christian study participants

	Age (yr)	Came from	Korean nationality	Married in	Children information	Employed (Family income)	Gov'tal support	Religion
V	38	China	Yes	2005	Daughter(12) Son(10)	No (₩ 3,000,000)	No	No
W	45	China (Ethnic Korean living in China)	Yes	2000	Daughter(18) Son(13)	Yes (₩ 1,500,000)	No	No
X	35	Vietnam	No	2011	Daughter(5)	Yes (₩ 2,000,000)	No	No
Y	31	Vietnam	Yes	2013	Son(4)	Yes (₩ 3,500,000)	No	No
Z	46	Philippines	Yes	2000 (Husband is hospitalized since 2009)	Daughter (16, 14, 13, 11) Son(9)	No (₩ 0)	Yes (₩ 1,900,000)	No

2. 자료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대일 면접은 2017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별로 1-2회, 매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면접 이후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일부 연구 참여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며 보완하였다. 비구조화된 개방면접 방법으로 진행하되, 연구 목적을 고려한 면접지침을 준비하여 적절히 활용하였다. 면접지침은 결혼 후 한국에서 이주여성으로 살아가는 삶 전반과 적응, 어려움과 극복, 사회적 관계와 지지 경험, 신앙생활 경험과 의미(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우) 등에 대한 개방적 질문들로 구성하였으며, 학계 전문가의 검수를 받았다. 면접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음성 녹음한 후 필사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Giorgi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며 다양한 현상과 경험을 체험하는 일상의 세계에 주목하여, ‘일상적인 경험’의 의의와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Giorgi, 1985: 8). 본 연구 역시 결혼이주여성 이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과 체험, 특히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수용과 극복에

주목하면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로 말미암은 고유하고 독특한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Giorgi의 제안대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의 기술 내용, 즉 필사본을 반복해 읽으며 전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고, 다음으로 기술 내용을 연구 주제에 초점을 두어 의미단위로 구분해 나갔으며, 세 번째 단계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이론적, 학문적 언어로 전환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의미단위들을 종합하고 구조화하며 본 연구가 주제로 삼은 신앙생활의 경험의 본질을 도출하였다(신경림 외, 2004; 이남인, 2005).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고자,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선 이해와 편견 등이 작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인식과 자기반성을 반복하는 동시에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과 실제 파악에 집중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 분석 결과를 검토 받음으로써 주제 도출을 비롯한 연구 내용이 올바른지 점검하는 동시에,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하여 기독교사회복지 분야를 연구하는 다른 박사과정생의 검토 및 지도교수의 자문을 통해 분석의 내용과 구조 등을 다듬으며 연구결과를 보완하였다.

IV. 연구 결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189개의 의미단위로부터 32개 하위 구성요소, 13개 구성요소가 도출되어,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낮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지지와 어려움을 모두 경험’, ‘신앙을 통해 삶을 다르게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가짐’의 4개 주제로 구조화되었다(Table 5 참조). 반면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174개의 의미단위로 도출되어 27개 하위 구성요소, 11개 구성요소로 도출되어,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낮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와 상처를 모두 받음’, ‘힘겨운 시간을 통해 성장함’의 4개의 주제로 요약되었다(Table 6 참조).

이를 통해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삶이 고되고 힘든 가운데,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이겨냄에 있어 기독교 신앙생활의 경험이 고유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한편 교회생활 및 성도들과의 관계는 지지적인 동시에 한계도 내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Table 5 Themes of the experiences of Christian study participants

Elements	Themes
Driven to international marriage by poverty	Burnout from daily lives
Tired and depressed because of tough everyday lives	
Hurts and wounds by family	
Suffering from language barrier and cultural differences	Difficulty and loneliness of life as migrant
Hardships for foreign mothers to raise children	
Loneliness as strangers in Korea	
Degradation to inferiority and poverty	
Unchanging societ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oward migrants, which makes Korea remain unfamiliar	
Experiencing help and support from church and Christians	Receiving both supports and scars from church and Christians
Experiencing limitations and hurts from church as well	
Only God gives true comfort and hope	Having confidence and hope with new perspectives
Change of mind on life and its problems	
Accepting life as training and mission	

Table 6 Themes of the experiences of non-Christian study participants

Elements	Themes
Driven to international marriage by poverty	Burnout from daily lives
Hurts and wounds by family	
Regretting marriage	
Suffering from language barrier and cultural differences	Difficulty and loneliness of life as migrant
Hardships for foreign mothers to raise children	
Loneliness as stranger in Korea	
Socialized with surrounding people but still lonely	Receiving both consolation and wounds from surrounding people
Supported by community organizations	
Hurts by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n migrants	Growing through hardships
Feeling proud and worthwhile when studying, working or helping others	
Growing through hardships	

1.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

(1)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가난한 원가족 부양의 책임, 현재 가족의 생계 부양의 책임, 가사와 육아 등의 여러 책임과 부담으로 지치고 소진되어 갔으며, 이러한 가운데 남편과 시댁을 비롯한 가족의 무시와 차별, 폭력은 큰 상처가 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하였다.

① 국제결혼으로 내 몰은 가난

연구 참여자들 상당수는 가난을 벗어나거나 가족을 부양하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며, 중개업체 또는 지인을 통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개월 만에 결혼에 이르렀다. 배우자와 국제결혼, 결혼이주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고민하지 못한 채 결혼한 셈이다.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엄마, 아빠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좀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B)

조금 머리가 이상해 보였어요. 정상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때 결혼회사 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누가 좋다고 하면 좋아해야지 그렇게 자꾸 이 사람 싫다, 저 사람 싫다 하면서 고르다가 나중에 좋다고 하는 남자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한국 가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 때 제가 열여덟, 열아홉 살이었어요. 어려서 그냥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려서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서 3일 만에 결혼식 올렸어요. (참여자 B)

② 바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치고 우울함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육아, 가사 등의 주어진 역할로 매우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며 소진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처럼 바쁘고 분주한 데에는 가사와 육아에 동참하지 않는 남편, 가사 일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시댁, 생계 부양의 책임, 주변에 도움을 부탁할 사람의 부재 등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지위와 여건에서 비롯한 측면이 상당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제가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배란다 청소하기,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청소와 정리하기, 이틀에 한 번 진공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기,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선 다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해 했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했어요. 그렇지만 매일 그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지쳐갔어요. 매일 이 집안일을 하는 게 정말 내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신, 결혼하게 하신 목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참여자 E)

남편은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죠. 그런데 일을 시작해서도 똑같았어요. 전 가족을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아까의 그 집안일들을 목록대로 해야 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쳤죠. 저 자신은 없었어요. ‘나는 어디 있는 거지?’ 그렇게 저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정말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제게는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참여자 E)

③ 가족으로부터의 아픔과 상처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및 가정생활에서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였다. 부부갈등, 고부갈등을 비롯한 시대과의 갈등을 경험하였고, 가족으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 하고 소외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아픔과 상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시쯤 되면 제가 심장이 빨리 뛰어요. 조금 있으면 5시, 6시니까요. 남편이 곧 들어오니까요. 남편 없이 혼자 있을 때가 안전한 시간인 셈이었죠. 그렇게 항상 무섭고 불안한 상태였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항상 소리치고 욕하고. 그리고 협박도 했어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한국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눈물이 많이 나서 잠시 멈춤). 많이 겁나고 무서워요. 한국 사람에 대한 공포? Phobia 있어요. 마음 여기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람 만날 때면,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참여자 C)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 강아지에게 모든 애정을 다 쏟았어요. 저한테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이나 시댁 가족들은 제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그 강아지가 마치 딸인 양 그렇게 예뻐했어요. 딸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강아지가 죽었죠(눈물). 그 때 정말 슬펐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참여자 E)

(2)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낯설음과 불편함, 외로움 그리고 때로 차별과 편견 등을 경험한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부터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편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보호받는 데 있어서도 취약한 모습이다.

①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언어의 장벽이다. 남편을 비롯하여 가족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해하기 어렵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해결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문화풍습, 특히 가부장적 문화 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상당하였다.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시부모님이나 시누이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 하고 또 제가 한국어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저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지 못 했든 아니면 동의하지 않든, 항상 그냥 ‘네, 네, 네’라고 말해요. (참여자 E)

결혼 후 한국에서 지내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모든 것에서 필리핀과 달랐죠. 쉽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현실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가 컸어요. 필리핀에선 괜찮았는데 여기선 안 되는 것들도 많고, 필리핀에선 하지 않는데 여기선 당연하게 하는 것들도 많아요. 필리핀에선 할머니 댁에서 가족이 모이거나 하면, 할머니가 요리하시고 그러셨어요. 서로 나누어서 하고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주말에 어머니, 아버님이 오시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제가 다 해야 해요. 제가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해야 해요. 처음에 제가 몰라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게으른 사람 취급했어요. 잠꾸러기라고 하고 게으르다고 했어요. 장난치듯이, 놀리듯이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참여자 D)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일과 육아로 분주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부재하였다. 한국어 교육 제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함이 중요함을 확인하게 된다.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한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등에 갈 시간이 없어요. 일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보니까.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 하는 상태로 있으니 이게 힘들죠. 한국에서 사는 데 있어서. (참여자 C)

② 외국인 엄마로 자녀를 키우는 고충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 어린이집이나 학교와의 소통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어린 때에만 국한되지 않아 자녀 연령이 높은 연구 참여자 역시 자녀가 커가면서 겪는 과업들, 예를 들어 진로, 진학, 취업, 결혼 등 모두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에 ‘엄마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이 컸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말들 제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지 못 하지만, 그렇지만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아이 어린이집 걱정 되요. 혹시 제가 한국말을 말하지 못 하고 듣지 못 하니 까,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나쁘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참여자 C)

큰 애가 커가니까 결혼 그런 게 또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이제 스물. 그때는 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딱 가니까 결혼할 때는 또 어떡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다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제가 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고민이 많은 거 같아요. (참여자 A)

③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우울

연구 참여자들은 낯선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오면서 고국의 가족과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 등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갖추지 못 하면서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더욱 심각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두 번 도와주지 계속 도와주는 건 귀찮아하잖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참여자 B)

예전에 교회에서 필리핀 예배 도와주는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꾸 한국 사람들 사귀어야 한국 말도 늘고 한국 생활 적응도 잘 한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사귀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누구와 친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참여자 C)

④ 부족한 사람, 취약한 사람으로 전락함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의 장벽과 낯선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 한국 사회의 차별 또는 편견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을 시작으로 학업이나 취업, 사회생활 등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스스로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많이 우울해했다.

가끔 제가 아무 것도 아닌 기분을 느껴요. 하찮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만 같아요. 한국에선 말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필리핀에선 제일 좋은 요리학교를 나왔는데, 결혼 전엔 제일 좋은 레스토랑에 다녔었는데 말이에요. 그 동안의 제 시간들, 제가 공부하고 일한 시간들이 모두 사라졌죠. 의미 없어졌죠. 정말 제가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죠. 결혼 전엔 제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공부든 일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선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이들 일만 해도 그래요. 내년이면 어린이집을 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고, 알아봐야 해요. 그런데 전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집 근처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여기선 뭘 하려 해도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여자 D)

⑤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여전히 낮은 한국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한국 사회 내 이방인이자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한번은 다른 필리핀 사람 만나서 같이 필리핀 말로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야, 한국말로 해야지” 그랬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함부로 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탔을 때도, 그렇게 우리끼리 필리핀 말로 얘기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했어요. 만약 다른 한국 사람이 그랬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참여자 C)

어린이집에서도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말이 늦는 거 같다,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애를 잘 못 보는 것 같다 등등. 그런 말 들었을 때, 상처가 되었어요. 아이가 늦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그렇게 취급했어요. (참여자 C)

(3)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지지와 어려움을 모두 경험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를 통해 재정 문제, 낮은 한국생활의 어려움 등에 대해 도움과 지원을 받는 한편, 성도들과의 교제나 소모임을 통해 기도와 지지를 받는 등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를 모두 제공받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 참여자는 언어의 제약으로 인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 또는 성도들의 편견이나 동정 등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어 보다 성숙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모색이 필요해 보였다.

① 교회 및 성도들을 통해 많은 도움과 지지를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나 자녀 학비 등의 경제적 지원 또는 자녀의 출생신고, 양육권 소송 등 법적·행정적 사안에 대한 지원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구역과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성도들과 기도과 위로, 지지를 주고받고 있다. 특히 성도들과의 깊이 있는 교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낯선 한국 땅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 둘째가 아프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말로만 괜찮다고 해요. 그냥 말로만 그러지 정말로 걱정하고 신경 쓰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 사람들은 기도해 주고,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정말 가족이구나, 그렇게 느껴요. (참여자 A)

목사님이 집사님 한 명을 저를 도와주도록 정해 주셨어요. 집사님이 병원에 갈 때 차 태워 주시고 같이 다녀 주시고, 병원에서 이야기 하는 거 통역도 해 주시고, 많이 도와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 낳았을 때, 목사님이 아이 주민등록 하는 것도 도와 주셨어요. 사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하는 거 어려웠어요. 제가 한국말 못 하고 이혼한 상태고 하니깐, 아이가 한국인인 걸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때 목사님이 같이 가 주셨어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참여자 C)

교회 친구들이 너무 소중한데요. 교회 친구들과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해요. 함께 가족 이야기도 하고, 힘들거나 상처 받은 이야기도 해요. 교회 친구들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힘을 얻고 그러죠. 교회 친구들 말고는 없어요. (참여자 D)

② 교회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상처도 경험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우선 한국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연구 참여자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교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고충이 컸다.

한국어 예배는 사실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성경이나 찬송가를 읽을 수도 없고, 설교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예배 순서를 제가 쫓아갈 수도 없어요. 힘들고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 해요. 어떤 사람은 ‘한국어 예배드리면 한국말 배울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예배를 한국말 공부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드리는 건데 아무 것도 듣지 못 하는 거죠. (참여자 C)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교회에서 이주민을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동정 역시 또 다른 차

별로 느껴지기에 반갑지만은 않았다.

밖에서 만나면 친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면 오히려 남 취급해요. 그래서 ‘뭐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분이 사람을 가리는 것 같았어요. 잘 살고 멋진 사람한테는 잘 하고, 저는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많이 상처 받았었어요. (참여자 A)

지금 목사님은 필리핀 사람들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세요. 예전 목사님은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 구분하는 것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움 주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을 정말로 똑같이 대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참여자 C)

(4) 신앙을 통해 삶을 다르게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가짐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의 삶은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편이었고, 이혼하여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연구 참여자가 세 명, 그 중 장애아를 키우는 연구 참여자가 두 명이나 되었다. 힘들고 고된 삶 때문에 때로 우울, 스트레스, 외로움 등을 맞볼 때도 많았다. 그러나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얻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현재의 어려움을 훈련 내지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등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①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주님 뿐

연구 참여자들은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살아 가고 있다. 결혼생활 또는 낯선 한국에서의 삶으로 힘들거나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고, ‘천국’의 소망을 떠올리며 이겨낸다.

아, 저는 힘들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둘째가 장애가 있으니까, 더 힘들 때가 많거든요. 힘들고 우울하고 외롭고 그럴 때가 많은데, 또 몸이 안 좋아서 더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쉴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많이 위로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꼭 살지 않잖아요. 누구나 죽을 건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갈 거라는 생각, ‘천국에 갈 거야’ 이 생각이 많이 힘이 돼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참여자 A)

② 삶과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과 시각의 변화

고되고 힘든 삶은 여전하지만, 삶과 역경을 바라보는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과 마음은 다르다. 예전처럼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바라보지 않고, 미래에 대하여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으며,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의 장애 또한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그때는 몰랐는데, 교회 안 다닐 때는 진짜. 신랑도 왜 이런 애(장애아) 낳았냐고 그러고(눈물). 나도 엄청 속상했고 왜 진짜 이런 애를 낳았을까 나도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 하나님이 애를 통해서 나를 교인으로 부르시고. (참여자 A)

교회에 다니지만 사는 건 그냥 똑같아요. 지금도 돈 없고 일하는 거 힘들고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예전엔 걱정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정말 컸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만, 옛날처럼 마음 힘들지 않아요. (참여자 B)

하나님께서 왜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외로울 때도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믿어요. 저와 저희 남편을 만나게 하고 결혼하게 하셨다고 믿고, 또 우리 아이들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고 믿어요. (참여자 D).

③ 힘겨운 삶을 사명이자 훈련으로 받아들임

연구 참여자들은 힘겹고 고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며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 내지 훈련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사명'이나 '선교'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곳에서 해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것,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만큼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제게 전쟁터 같아요. 힘들지만 계속 싸우고 이겨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말이예요.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간절하게 찾게 되고,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게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게 되고, 주님께 붙들려 있게 되는 거 같아요. 아마 신앙이 없었으면 이혼했을 것 같은데, 신앙이 있으니까 이겨내야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여기서 잘 살아내고 이겨내야죠. (참여자 E)

2.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

(1)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도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또는 가난한 가족의 부양을 위해 소위 ‘코리아 드림’을 품고 한국으로 왔지만, 여전히 힘겨운 삶은 계속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에게 서운하고 상처 받을 때가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고충 등으로 힘들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들로 결혼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① 국제결혼으로 내 몰은 가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가난으로부터 탈출 또는 원가족 부양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결정했으며, 중개업체나 지인을 통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목표가 그거 하나였어요. 한국에 무조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때문 아니라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물론 돈 때문만은 아니지만요. 사실 여기 시집오기 전에 중국에서 엄마아빠를 경제적으로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일해서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싶은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참여자 W)

② 가족으로부터의 아픔과 상처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서운함과 외로움, 차별이나 편견을 비롯하여 부부갈등과 고부갈등 등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도 경험하였다.

싸운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저는 말을 못 해요. 한국말 못 하니까 저는 말 못 해요. 남편이 한국말 잘 하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열세 살 많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남편만 소리쳐요. 사실 선생님, 싸우면 남편 무서워요. 남편이 소리 많이 지르고 물건도 던져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여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참여자 X)

가족이 모이면 더 외롭고 더 힘들어요. 저희 가족 모두 모였을 때 아주머니가 뭐 물어봐요. 그런데 저 잘 못 알아듣고 제가 한국말을 잘 못 해요. 가족들 결국은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저

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 해요. 그래서 가면 혼자 있어요. 조카들도 저 무시해요. 그래서 가족 모이는 거 싫어요. (참여자 X)

남편 외도 의심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남편이 정말 외도한 거 맞으면 그러면 나는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 외도가 정말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정말 외도한 게 아니면 내가 미친 사람인 거죠. 비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거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정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의심할 만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확실한 거 뭘 잡은 건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참여자 W)

③ 결혼을 후회함

남편, 시댁 가족 등과의 갈등 및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바쁘고 힘든 일상으로 인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다.

저는 부부싸움 하면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사실 싸울 때면 너무 무서워요.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혼 생각할 때 많아요. 그래서 여러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사나, 왜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인가. 생각 많이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 삶이. 제가 슬픈 날이 많아요. 슬픈 때가 많아요. (참여자 X)

신혼인데 주말 부부이고, 또 임신 중인데 그래서 남편 필요한데 같이 있지 않아서 참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항상 혼자 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 나만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족감이 없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그런 생각 하게 되었죠. (참여자 Y)

(2)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 역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이주여성으로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로움,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민으로서의 어려움과 외로움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무능한 사람 나아가 미안한 엄마, 부끄러운 엄마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①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 문제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다. 특히 언어 문제로 인해 부부 및 가족 내 의사소통이 힘들고, 이는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부부싸움 등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남편과의 부부 관계에서도, 제가 한국말을 조금 하지만 완전히 한국인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단어나 어려운 어휘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냥 생활에서는 문제없는데, 뭔가 좀 깊이 있는 이야기할 때, 문제나 어려운 부분 이야기할 때 힘들어요. 법적인 것, 전문적인 것 그런 것 이야기할 때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대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참여자 Y)

이제 10년 살다 보니까 한국말은 이제 나아졌지만, 지금도 문화 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집안일 안 해요. 아이 키우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답답했죠. 그런데 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아서 한국 요리도 할 줄 몰라요. 아직도 한국 음식 잘 못 해요. 김치 못 담궐요. (참여자 V)

② 외국인 엄마로 자녀를 키우는 고충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글 동화를 읽어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비롯하여 숙제를 봐 주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다른 엄마들과 만나고 사귀는 어려움도 컸고, 아이가 커 가면서 외국인 엄마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는 문제도 생겼다.

제가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도 친구가 없어요. 놀이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과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끼리만 놀아요. 저희 아기와 제가 가면 같이 안 놀아줘요.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참여자 X)

똑똑한 엄마? 아이들한테 똑똑한 엄마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 만약 중국이었으면 제가 이것 저것 가르쳐 주고 해 주고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말 잘 못 하고 잘 모르는 게 많아서 항상 답답해요. 엄마가 잘 하는 거 많구나, 잘 하는구나 그런 것 느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가끔은 “엄마, 이것도 몰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답답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똑똑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앞으로 한국말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참여자 V)

애가 다문화가족인 것, 엄마가 중국에서 온 것을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드러나는 것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제가 못 갔어요. 학교에서 엄마들 봉사하는 거 갈 때도, 엄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도 제가 그래서 말 못 했어요. 우리 딸이 싫어해서 못 했어요. (참여자 W)

③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우울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 역시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매우 취약하기에, 외로움과 우울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부모, 친구 다 떠나서 오는 거잖아요. 마음의 허전함, 외로움 그런 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간절히 사랑해서 한 결혼 아니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 아니고, 이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 이런 거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서 한 게 아니니까 사실 아는 게 없는 거고.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 하나 믿고 온 거지만 막상 오니 무서웠어요. 그런데 무서운데 내 주변에 누구도 없는 거잖아요. 더 힘들죠. (참여자 W)

(3)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와 상처를 모두 받음

비기독교 연구 참여자들은 친구, 이웃 또는 같은 출신국 사람들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위로와 지지를 얻는 동시에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지원센터 등의 지원기관을 통하여도 도움을 얻고 있다. 다만 깊이 있는 관계, 내면을 나누는 교제는 부족하여 여전히 외로움을 겪고, 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차별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지만 여전히 외로움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엄마들이나 이웃을 통해 자녀교육 관련 도움을 얻기도 하고,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풀며 서로 위로를 나눈다. 그렇지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거나 내면적 지지를 나누기는 쉽지 않아서 여전히 외로울 때가 많다.

동네에 아들 친구 엄마 만나요. 학교에서 뭐 하는 거 있거나 할 때,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을 때,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면 잘 도와줘요. 그래서 엄마들 그렇게 만나고 해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외로워요. 친구 있고 뭐 만나는 엄마 있고 선생님 있고 하지만 사실 외로워요. (참여자 V)

여기서 같이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 언니들과 친구들과 같이 아이들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 답답한 거나 힘든 거 같이 얘기하고 스트레스 풀고, 시간 있을 때는 같이 베트남 음식도 해 먹고 그래요. 이렇게 모이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사람, 고민 나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있기는 좀 어렵죠? (참여자 Y)

② 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과 지지를 얻음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도움과 지지를 얻는 기관은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기관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관 및 기관 종사자를 통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살아갈 힘과 지지를 얻고 있다.

어려울 땐 제가 복지관 물어봐요. 그렇게만 있어요. 만약에 뭐 애들 공부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복지관 선생님한테 상의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그 때 아니어도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전화하거나 문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복지관 선생님 있어서 제가 혼자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힘이 되어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힘 얻으면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참여자 Z)

③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도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종종 결혼이주여성 내지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비단 타인에게서만이 아니어서 시댁 가족, 심지어 남편에게서도 편견과 차별, 무시 등을 경험하곤 하였다.

시댁 식구들이 잘해 줘요. 그런데 잘해 주는데,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에서 나는 결국 외국인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참여자 Y)

우리 남편이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편하게 사니까, 다들 편하게 사는 줄 알아요? 쉬운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결혼해서 온 외국 여자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편하게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진짜로 제 마음이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참여자 V)

(4) 힘겨운 시간을 통해 성장함

연구 참여자들은 힘겹고 고된 삶을 통해 보다 나은 자신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다. 공부나 일, 봉사 등을 통해 우울이나 외로움 등을 극복하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되고 강인해지는 등 성장하고 있다.

① 공부나 일 또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뿌듯하고 보람됨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공부나 일, 봉사 등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보람, 뿌듯함 등을 느끼며 그간의 우울함이나 외로움 등을 이겨낸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실천이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그들의 역량과 자원, 강점을 간과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공부 하면서 제가 정말 만족감 느꼈어요. 어렸을 때 공부 못 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 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우울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때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공부가 정말 저를 살렸어요, (참여자 W)

고향에서 친했던 동생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 자주 불러내서 “언니, 병원 어떻게 가?”, “언니, 이걸 어떻게 해?”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 나가서 도와주고 그래요. 제가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게 되요. 이렇게 만나서 도와주고 하니깐 기분이 좋아요. 같이 또 대화하고 웃고 같이 음식도 먹고 하니깐 그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좋아져요. (참여자 Z)

② 힘겨운 시간을 통해 스스로 성장함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이주 후 한국생활에 적응 및 정착해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보다 긍정적이 되고, 강인해지며 성장하고 있다.

한국 생활에 있어서, 제가 적응하고 잘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고 배우자 이렇게 생각해요. 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는 부분, 능력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많이 긍정적이 되었어요. (참여자 Y)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온 거, 겪어온 거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뭐 남편과 갈등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덕분에 제가 공부도 하고, 자신감도 많이 나아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잘 살아온 거 같아요. 뭐 괜찮은 거 같아요. (참여자 W)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의 의의와 본질을 비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 5명과 비기독교인 결혼이주여성 5명, 총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일

대일 면접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각각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경험의 본질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낮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지지와 어려움을 모두 경험’, ‘신앙을 통해 삶을 다르게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가짐’의 4개 주제로 구조화되었으며,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낮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와 상처를 모두 받음’, ‘힘겨운 시간을 통해 성장함’의 4개 주제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관한 논의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기독교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 부부 갈등, 고부 갈등, 가정폭력 및 이혼, 언어 문제와 문화적 차이, 일과 육아의 병행, 차별과 편견, 부족한 사회적 지지, 외로움과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이선 외, 2006; 김한성·이유신, 2013; 민무숙 외, 2013; 이은주·전미경, 2014; 김진 외, 2015; 박영주 외, 2015; 신혜정 외, 2015; 박현선·정수정, 2017)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삶이 여전히 고달픈 것을 보면서 비제도적, 비공식적 지원의 필요함, 그리고 그러한 지원의 하나로써 교회의 역할의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Stone 등(2003)도 교회야말로 지역사회 내 가까이 있어 힘들고 어려운 때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location), 도움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교역자와 봉사자들이 있으며(availability), 장소와 절차의 제약 없이 상황과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지지를 제공(mobility and flexibility of procedure)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개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지지 체계이자 자원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신앙생활 경험을 통해 기독교 신앙만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삶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있으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삶을 훈련 내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부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 역시 고된 삶과 어려움을 성장하는 계기, 전체 인생에서의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며 긍정적으

로 바라보고 극복하고 있긴 하였지만, 지금의 삶 이후를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모습이었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의 삶과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이겨내는 믿음, 그 과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믿음, 교회 출석, 기도 등의 개인적 신앙생활의 긍정적 의의를 확인한 선행연구들(Francis & Kaldor, 2002; Nooney & Woodrum, 2002; Stone et al., 2003)과도 일치하는 바다.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의 본질이자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련 사역 내지 실천에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역과 실천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 언어 등 문화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취약한 사회적 지지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외국어 또는 이주민 예배, 성경공부모임 등 개개인의 신앙이 자라고 강건해지도록 돕는 지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의 신앙생활 경험의 또 다른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한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 또는 혼자 해결하지 힘든 법적, 행정적 사안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많은 위로와 지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행복, 삶의 만족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McIntosh et al, 1993; Bradley, 1995), 특히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이 큰 힘과 도움이 된다는(정호진, 2003; 전병철, 2013; Morris et al., 2007; Yoon et al., 2010; Baeq et al., 2011; Oh, 2013)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특히 구역모임 또는 소그룹 성경공부 등을 통하여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마치 가족과 같은 든든한 지지와 소속감을 경험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비공식적 지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이는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이 이웃이나 같은 출신국 사람들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지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깊이 있는 관계,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진실한 위로와 위안을 나누는 관계가 거의 없어 여전히 외롭고 힘든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대비되는 바다.

한편 일부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들은 오히려 교회 및 성도들로부터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제약으로 인해 예배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성

도들로부터 편견이나 차별을 느낄 때도 있다. 교회의 지원이 감사하지만 때로 교회가 자신을 ‘도와야 할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동정적 시선에 또 다른 차별을 느끼기도 한다. Taylor와 Chatters(1988)는 교회 및 성도들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성도 중 이혼한 사람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확인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지지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고 취약한 사람에게 더욱 취약함을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교회 및 성도들로부터 편견 또는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 내 상담과 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이 충분해 보이지 않아, 보다 효과적이고 성숙한 실천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교회,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지역의 교회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다. 오늘날 정부는 전국 21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포함)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힘겨운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보면서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과 영역, 문제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시간적 제약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많은 지원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평일 오전 및 오후 시간(9:00 - 18:00)에 운영되고 있어, 직장에 다니는 결혼이주여성 또는 어린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태조사에서 연령 및 국내 거주 기간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유배우자(45.1%)에 비해 이혼이나 별거(26.1%), 사별(20.7%) 등으로 혼자인 경우 이용률이 낮으며, 농어촌지역(61.4%)에 비하여 도시 지역(36.7%)의 이용률이 낮은 것도 지원센터의 제한된 서비스 시간, 내용 및 대상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정해숙 외, 2016). 이에 교회는 지역사회복지의 주요한 민간 주체의 하나으로써, 직장에 다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평일 저녁 또는 주말 시간대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아기가 있는 여성을 위해 교육 중 보육서비스 제공(예를 들어 동시간대에 한국어교육과 아기학교 운영), 초기 적응 단계 이후의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예를 들어 전문적인 한국어교육, 사춘기 자녀를 위한 자녀 교육),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배우자와 시부모 등을 포함하는 다각화된 가족 교육과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를 통한 지원 범위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생 주기 내지 가족 주기에 따른 맞춤형 실천이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연구 참여자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문화적 차이가 느껴지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초기 적응 이후에 대한 전문적인 실천의 부족을 아쉬워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결혼 초기 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결혼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사람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이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이주여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오혜정, 2017). 따라서 인생 주기 내지 가족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실천이 시급하며, 이는 동일한 구성원(성도)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체계인 교회에게 적합한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개인 및 가족 단위의 심방에서부터 교육, 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루지 못 하는 영역의 욕구와 필요를 해결해 나가되,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고 교회 내외의 자원 연계를 통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 내 중장년 여성 성도들과의 일대일 결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2016)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와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지, 특히 가족과 친구 등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단절되고, 언어의 제약으로 공식적 지원 기관을 찾기는커녕 외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교회의 가장 큰 자원 중 하나인 성도들을 통한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제공은 큰 의의를 갖는다.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내 중장년 여성 성도들(예를 들어 권사, 집사 등)과의 일대일 결연을 통하여 한국의 ‘친정 엄마’를 선물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또 하나의 가족 내지 엄마의 존재는 매우 큰 힘과 지지가 될 것이다.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국어 연습, 한국 음식 등의 문화사회적 적응 등에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간의 교제로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에도 큰 격려가 될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중장년 여성 성도에게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기쁨과 보람을 맛보고, 자기 자신 또는 삶의 의미를 재발

견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훈련이 될 수 있다.

한편 이주민의 수가 계속해 증가하며 점차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교회의 사회복지 역할 내지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교계 내외의 욕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내지 이주민 대상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를 비롯한 기독교 전문사역자들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및 다문화 교육,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육과정 내 기독교사회복지 및 다문화 사역에 관한 교육 등이 도입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크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또는 이주민이 많은 경우, 전문 사역자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단 차원에서 각 교회 또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과 매뉴얼 등을 연구·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다문화 감수성, 나아가 공감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도 시급하다.

주의할 것은 ‘교회의 도움이 때로 결혼이주여성을 불쌍하게만 바라보는 또 다른 차별로 느껴져 좋지않은 않았다’는 한 연구 참여자의 진술처럼, 이러한 모든 실천과 연구개발 등의 노력에 있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 내지 ‘동반자’로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면담, 욕구조사 등을 통해 삶의 실체가 어떠한지, 주요 어려움과 필요, 강점과 역량, 자원 및 지역사회 현황 등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천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봄에 있어, 피해자 내지 도와줘야 할 대상 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을 두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또한 실천의 목적과 본질은 기독교에 있되 그 섬김의 대상과 영역에 있어서는 교회 안과 성도로 제한하지 않아 지역사회 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연구되지 못 한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대하여 살펴본 탐색적 연구로 볼 수 있다. 이에 국내 거주 기간과 문화사회적 적응의 정도, 혼인 상태, 자녀 연령, 경제사회적 수준 등에 따라 그 경험이 매우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신앙 여부에 초점을 두어 연구자를 선정함으로써 인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 한 한계를 갖는다. 특히 신앙생활 경험의 경우 주일 예배 참석 뿐 아니라

모국어 예배 여부, 개인 경건생활(큐티, 기도, 성경읽기 등), 교회 내외 봉사, 성경공부 모임이나 다른 신앙 공동체 활동 등에 따라 그 경험의 의의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신앙생활 경험의 의의를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적 측면의 경험과 교회생활 측면의 경험을 구분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한다면, 결혼이주여성, 나아가 이주민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논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 [Gospel Serve. (2013). *Glossary of Christianity*. Seoul: The Word of Life Press.]
- 강영실 (2010).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역할에 대한 소고. **교회사회사업**, 14, 135-161.
- [Kang, Y. S. (2010).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nd task and role of church for them. *Journal of Church Social Work*, 14, 135-161.]
- 김미원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와 가족의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Kim, M. W.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Marital Adaptation by Acculturative Stres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Rituals -*.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김순규 · 이주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Kim, S. G. & Lee, J. J. (2010). The Effect of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among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5(1), 5-20.]
- 김승권 · 김유경 · 조애저 · 김성희 · 이건우 · 광배희 · 박소현 · 신연희 · 정춘숙 · 채규만 · 현혜순 · 김은경 · 전영실 · 강은영 (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02). 서울: 여성가족부.
- [Kim, S. K., Kim, Y. K., Cho, A. J., Kim, S. H., Lee, G. W., Kwak, B. H., Park, S. H., Shin, Y. H., Jeong, C. S., Chae, K. M., Hyun, H. S., Kim, E. K., Jeon, Y. S. & Kang, E. Y. (2008). *The Domestic Violence Survey in 2007*(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Paper 2008-02).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7).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Kim, Y. S., Kim, M. J. & Han, G. S. (2006). *Policy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 Cultural Conflicts and Communication in Marriage Migrant Women*(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operative Research Series 06-02-07).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김진 · 이종운 · 김영숙 (2015).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41(2), 79-103.
- [Kim, J. Lee, J.U, & Kim, Y. S. (2015).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empowerment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41(2), 79-103.]
- 김한성 · 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 [Kim, H. S. & Lee, Y. S. (2013).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immigrant women: focusing on social context and social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2), 177-209.]
- 김혜금 · 조혜영 (2013).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및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1-14.
- [Kim, H. G. & Cho, H. Y.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6), 1-14.]
- 문창선 (2016). 국내 이주민 선교 시대에 즈음하여. **제15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2016.11.24-25).
- [Moon, C. S. (2016). The age of the migrant missions in Korea. *The 15th Forum for Korean Mission Leaders*(2016.11.24-25).]
- 민무숙 · 김이선 · 주유선 · 이정연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85), 5-43.
- [Min, M. S., Kim, Y. S., Joo, Y. S. & Lee, J. Y. (2013). A study on social relationship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The Women's Studies*, (85), 5-43.]
- 박미정 (2011). **결혼이주여성 이혼 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Park, M. J. (2011). *A Study on the Divorce Experi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박영주 · 윤동화 · 김원진 (2015).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해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163-188.
- [Park, Y. J., Yun, D. H. & Kim, W. J. (2015).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 experie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women in family breakdow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9(3), 163-188.]
- 박은희·조인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29-54.
- [Park, E. H. & Cho, I. J. (2012).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8(2), 29-54.]
- 박천웅 (2010). 다문화 이주민을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 **제2회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10.13-16).
- [Parl, C. E. (2010). Missional tasks of Korean churches for multi-cultural migrants. *The 2nd Christian Social Work Expo*(2010.10.13-16).
- 박현선·정수정 (2017).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영역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6, 197-224.
- [Park, H. S. & Jeong, S. J. (2017). The longitudinal interrelationships of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6, 197-224.]
- 박홍순 (2013). 호남지역 다문화선교의 현황과 과제. *선교와 신학*, 32, 179-212.
- [Park, H. S. (2013). A study on multicultural mission in the Honam region. *Mission and Theology*, 32, 179-212.]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Shin, K. R., Cho, M. O., Yang, J. H.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Press]
- 신혜정·노충래·허성희·김정화 (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7(3), 5-29.
- [Shin, H. J., Nho, C. R., Heo, S. H. & Kim, J. H. (2015).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for marriage-based 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3), 5-29.]
- 양만재 (2016). 반-억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의 도입과 활용의 필요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실천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3, 96-145.
- [Yang, M. J. (2016). A study on anti-oppressive practice: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of usefulness and need in Korean social work.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53, 96-145.]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Guide to Multicultural Family*

- Support 2017*.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오혜정 (2017). 한부모 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녀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7, 39-67.
- [Oh, H. J.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f Lives of Immigrant Single Mothers - Focused on the Parenting Experiences -.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7, 39-67.]
- 이광희 (2010). 한국교회의 '다문화 가족 사역'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신학**, 12, 218-237.
- [Lee, K. H. (2010). A study on the intercultural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The Pierson Memorial Journal of Theology*, 12, 218-237.]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 연구**. 파주: 한길사.
- [Lee, N. I. (2005).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Paju: Hangilsa]
- 이수환 (2015).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선교적 목회의 역할. **복음과 선교**, 30(2), 49-82.
- [Lee, S. H. (2015). The role of missionary ministry for multicultural immigrants. *Evangelical Missiology*, 30(2), 49-82.]
- 이은주 · 전미경 (201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사회정책**, 21(4), 9-44.
- [Lee, E. J. & Jun, M. K. (2014). A meta-analysis of the related variables with marital satisfaction for marriage migrant women. *Korea Social Policy Review*, 21(4), 9-44.]
- 이형하 (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219-245.
- [Lee, H. H.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3), 219-245.]
- 이혜경 · 전혜인 (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 [Lee, H. K. & Jeon, H. I. (2013).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4), 413-432.]
- 임성빈 (2013). 다문화사회와 교회의 역할 모색 - 인권과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제공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 27, 305-333.
- [Yim, S. B. (2013). Multicultural society and roles of Korean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preparation for human rights and social cultural integration.

-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27, 305-333.]
- 장영신·정상우 (2015).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신교 교회의 역할 연구-랄프 윈터(Ralph D. Winter)의 개신교 교회의 모델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2), 183-214.
- [Jang, Y. S. & Chong, S. W. (2015). Support for immigrant workers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 focused on the types of church by Ralph D. Winter -.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1(2), 183-214.]
- 전병철 (2013). 미국 이민사회에 적응해가는 1세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과정과 교회의 역할. *개혁논총*, 27, 219-259.
- [Jun, B. C. (2013). Acculturation process of the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California and the role of local churches as learning community. *Korea Reformed Journal*, 27, 219-259.]
- 정명희 (2013).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부모효능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258-277.
- [Jung, M. H. (2013).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practices of immigrant women focusing on parent 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8), 258-277.]
- 정혜숙·김혜숙·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3). 서울: 여성가족부.
- [Jung, H. S., Kim, H. S., Lee, T. M., Ma, K. H., Choi, Y. J., Park, G. P., Dong, J. Y. Hwang, J. M. & Lee, E. A. (2016).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16-03).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정효진 (2003). **호주 한인교회와 이민자들의 사회 문화적 적응: 시드니 S 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Jeong, H. J. (2003). *Korean-Ethnic Church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of Immigrants in Australia : a case study of 'S' church in Sydney*. Masters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최신일·황병준 (2015).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실태 및 선교 방향성 연구. *신학과 실천*, (43), 595-622.
- [Choi, S. I. & Hwang, B. J. (2015). A study on mission for immigrants in the Korean church - current conditions and direction for the Korean church's immigrant

- mission -. *Theology and praxis*, (43), 595-622.]
- 통계청 (2017). **인구동태통계연보 2016**. 대전: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17). *Annual Report on the Vital Statistics 2016*. Daejeon: Statistics Korea.]
- 한혜빈 (2014). 선교적 차원에서 바라본 한국의 다문화 가정. **신학과 선교**, 44, 299-337.
[Han, H. B. (2014). Multiculture family of Korea on the missional perspective. *Theology and Mission*. 44. 299-337.]
- Baeq, D. S., Lee, M. H., Hong, S. P. & Ro, J. (2011). Mission from migrant church to ethnic minorities: a brief assessment of the Korean American church in mission.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9(1), 25-37.
- Bradley, D. E. (1995). Religious involvement and social resources: evidence from the data set "Americans' changing liv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4, 259 - 267.
- Francis, L. J. & Kaldor, P.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an Australian population samp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1), 179-184.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quensne University Press.
- McIntosh, D. N., Silver, R. C., & Wortman, C. B. (1993). Religion's role in adjustment to a negative life event: coping with the loss of a chi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812 - 821.
- Morris, C., Vokes, R. & Chang, S. (2007). Social exclusion and church in the experiences of Korean migrant families in Christchurch. *A Journal of Social Anthropology and Cultural Studies*, 4(2), 11-31.
- Nooney, J. & Woodrum, E. (2002). Religious coping and church-base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mental health outcomes: testing a conceptual mode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2), 359-368.
- Oh, S. H. (2013). Spatial assimilation and ethnic church linkages: suburban Koreans in Bergen County, New Jersey. *Studies of Koreans Abroad*, 29, 45-79.
- Stone, H. W., Cross, D. R., Purvis, K. B. and Young, M. J. (2003). A study of the benefit of social and religious support on church members during times of crisis. *Pastoral Psychology*, 51(4), 327-340.
- Taylor, R. J. & Chatters, L. M. (1988). Church members as a source of informal

- social support.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0(2), 193-203.
- Yoon, E. J., Lee, D. Y. Goo, Y. R. & Yoo, S. K. (2010).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Korean immigrant women's liv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4), 523-553.
-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논문초록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를 통해서

오혜정 (충신대학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 즉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정착, 사회생활 등의 삶 전반에서 신앙생활 경험이 갖는 의의와 본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기독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5명과 종교가 없는 결혼이주여성 5명, 총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일대일 면접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의와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삶과 신앙생활 경험은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지지와 어려움을 모두 경험’, ‘신앙을 통해 삶을 다르게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가짐’의 4개 주제로 도출되었고, 비기독교인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은 ‘힘들고 고된 일상으로 인한 소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외로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위로와 상처를 모두 받음’, ‘힘겨운 시간을 통해 성장함’의 4개 주제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신앙생활,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사회복지, 이주민 사역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on Prospective Christian Child Care Teachers' Sense of Calling,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이종은 (Jong Eun Lee)*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to investigate the prospective Christian child care teachers' sense of calling,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job stress, and the impact of calling on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For this research, a qualitative study of prospective Christian teachers was conducted about their sense of calling,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For this, an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were administered among child welfare majors at a 4-year Christian university. The interview and survey results showed that all students, but one had a sense of calling. According to the results, most students had a sense of calling, which they said affected their selection of career and made up their mind to become a child care teacher. Students also answered that their sense of calling effected their self-efficacy, and the stronger their sense of calling was, the higher their self-efficacy was. Moreover, prospective Christian child care teachers tended to show higher self-efficacy and lower job stress. However, one student answer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saying that she had a higher level of job stress because of the sense of calling. This seems attributable to the lower income and position of child care teachers given the current issues over the occup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research provided materials for career guidance,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students at Christian universities.

Key Words : sense of calling, selection of career, self-efficacy, job stress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Baekseok University),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joeun@bu.ac.kr
2018년 01월 22일 접수, 03월 23일 최종수정, 03월 25일 게재확정

1. 서론

인생의 수많은 선택 중에 자신의 장래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일이다. 진로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넘어 개인의 삶을 영위해가는 하나의 방식이며, 한 개인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혼돈과 올바른 직업관의 부재로 방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입시에 관련된 주입식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학 진학 후에도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구상하고 목표를 세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인생 문제를 포괄하여 인생 전반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과 태도, 가치관을 계획적으로 신장시키도록 돕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다(서정선, 2002; 오수진, 2011).

최근 소명을 종교와 세속적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지만, 본래 소명의 개념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소명은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은 강한 소명지향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Os Guinness, 2000; 오수진, 2011: 17). 역사적으로 '직업'을 소명이라는 개념으로 본 것은 16세기 청교도 개혁자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분이 마틴 루터였다. 마틴 루터의 소명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Schultze, 2005).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부르심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다.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이라 했다. 둘째는 특정한 임무와 지위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다양하고 특별한 부르심의 개념이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라 했다. 이에 대해 쉘츠(Schultze, 2005)는 소명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에 의해 공유되는 속성을 일컬으며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받은 소명을 말한다. 둘째는 개인적인 속성을 설명하며 각 개인의 사역처에서 각각의 위치, 일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명의식은 진로 선택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직업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직업세계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인생의 진로 선택 및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청년기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환경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 선택 및 취업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 진로나 적성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전기 성인기에는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발달적 과업이다(Super, 1980). 최근에 와서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학생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및 직업선택으로 나타났는데(조혜영, 2010: 22) 이것은 높아지는 실업률과 불안정한 직장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청년기와 결혼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직업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과거에 비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Arnett, 2004).

진로의 개념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직업보다 넓은 개념으로 어떤 시기에 특정 역할의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을 합친 개념을 말한다(Super, 1980). 즉 진로는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이해 방식과도 관계가 있으며, 자신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에 가장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진로 준비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통로로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신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한다(오수진, 2011: 35). 소명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개인의 진로 선택 및 진로 결정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소명에 대한 국내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 대한 고민은 취업 스트레스까지 이어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경필·심미영, 2014: 32). 따라서 이 시기 청년들에게 있어 본인의 진로에 대해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인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진로를 선택하기까지 진로 준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진로태도성숙 수준은 대학생들의 영적 안녕과도 관계가 있으므로(황혜리·류수정, 2009: 371-373) 진로태도성숙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진로상담의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은애·이혜주,

2016: 67-68).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하여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독교를 넘어선 학문세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는 개념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직업만족과 더불어 여러 진로관련 요소들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소명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보고되었다(박주현·유성경, 2012; 신윤정, 2013).

본 논고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예비보육교사의 소명의식과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에서 진로상담, 취업지도 및 교육에 활용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의 수행을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기독교적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지방 C도시에 위치한 기독교대학인 A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4학년 기독교인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16명 전원이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들이었고, 예비보육교사들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A대학교의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기독교인 학생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효능감은 어떠한지, 취업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소명의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작성한 설문지 검토 후, 질적 연구방법론의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설문지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1.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소명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본인은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소명이 전공 선택이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졸업 후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은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소명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6. 본인은 취업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요?
7.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1 Example Questions for Interview (표1 면담 질문 사례)

Respondents	Sub-Categories	Example Questions
Christian Senior College Students Majoring Child Welfare	Sense of Cal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is your definition of calling? • Do you have a sense of calling? If yes, what is your calling?
	Selection of Care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 you think your calling influenced the selection of career? • Did you decide your selection of career after graduation?
	Self-effic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is your level of self-efficacy? • Do you think your calling influenced self-efficacy?
	Job St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 you have a job stress? • Do you think your calling reduces the job stress?

연구방법은 기독교신앙을 가진 기독교대학 4학년 아동복지전공 재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위의 질문을 가지고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4주간 설문지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3. 심층면접 방법

본 연구자는 2017년 9월 4일에서 9월 29일 사이에 심층면접 대상자 16명과 면접시간을 정하고, 연구실에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면담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였다. 본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및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과 연구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는 과정을 거쳤으며 본 연구자와 다른 견해가 있는지 논의하였으며, 심도 있는 재검토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소명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에게 소명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명의 정의를 분석한 결과, 핵심 주제는 ‘부르심에 응답’과 ‘칭지기의 사명감’이 도출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소명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1) 부르심에 응답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며 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소명의식은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며,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성취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자리에 나를 쓰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믿으며 나아가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소명의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의식은 그 부르심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인식이자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명이란 나에게 주어진 과업이 어떤 것인지 알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고 내 삶이 사용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명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2) 청지기의 사명감

“저는 소명의식을 사명감과 동의어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요. 소명은 사명과도 같아서 삶의 목적, 삶의 지침의 개념으로 저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만일 그 소명이 본인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하여도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감과 연계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 사명감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이란 직업이라는 단어와 연관되며 자신의 직업에 따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청지기로써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소명의 관점에서 직업을 calling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업에 그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이지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소명이란 부르신 목적에 맞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하여 청지기로써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예요”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소명의 정의를 다시 정리해보면 ‘부르심에 응답’과 ‘청지기의 사명감’으로 볼 수 있으며, ‘부르심에 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래 루터의

소명의 개념은 본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치(station)라고 하였다(Gustf, 1975). 하나님은 사람들이 직책에 헌신하는 것이 사랑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직책의 일이 이웃의 복지에 쓰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돌보시는 일에 관여하시기 때문이다. 소명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 오스 기니스(Os Guinness, 2000)는 그의 저서 『소명』(The Call)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와 행위,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되는 진리”라고 한다. 여기서 소명이란 맡겨진 배역 이상의 임무를 의미하며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명이란 기독교적 비전과 비전에 찬 그리스도인의 일차적인 근원이라 할 수 있다(Os Guinness, 2000).

폴 스티븐스(R. Paul Stevens, 2001)는 소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소명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한다(벧전 2:10). 둘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소명이다. 셋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소명이다. 즉,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소명이다. 이는 은사, 재능, 직업, 일 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한다. 분명한 것은 소명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이다. 신앙성숙도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수와 자율성 등의 직업가치보다, 사회봉사와 더불어 사는 삶의 직업가치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도 있다(유병길, 2008).

2. 소명의식의 추구에 대하여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소명을 분석한 결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조사응답자 중 단 한 명만이 본인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한 명을 제외한 조사응답자들은 모두 본인의 소명을 잘 깨닫고 있었고, 자신의 소명의식에 대해 명확하게 응답하였다.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은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찾다보니 나는 아동들을 대하는 일에 재능을 찾았고, 더불어 아동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소명으로 두게 되었어요.”

“소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는 것이에요. 나의 재능은 아동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부터 아동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아동복지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일생의 직업을 보육교사로 생각하고 있기에 아동복지와 소명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란 어려워요. 또한 저의 소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을 봉사하고 희생할 마음의 각오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2)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제 소명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아동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기에 세상에 많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동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아동들이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고 진리가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를 입은 아이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보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유아와 장애 아동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정서적으로 결핍된 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어 유아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저의 소명은 이 땅의 어린이들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영유아가 각자의 발달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받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유아 교사가 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인도자의 역할이 소

명이라고 생각해요.”

딕과 더피(Dik & Duffy, 2009)는 소명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며, 다차원적이고 문화적으로 유의미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다. 소명이란 자기(self)를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초월적 부름을 경험하는 것이며, 삶에서의 특정한 역할을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지향하는 태도로 접근하고, 주요한 동기원으로 타인 지향적 가치와 목표를 갖는 것이다. ‘목적이나 의미’는 삶에서의 특정 역할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그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과 관련된 활동을 더 넓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연결시키려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소명을 직업(job) 및 진로(career)와 구분하면서 자신의 일을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 또는 경력 발달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깊은 충만감을 얻고 더 큰 선(the greater good)에 기여하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관련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도구적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재정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 더 높은 직업 만족도를 보이며, 근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양난미·이은경, 2012; 오수진, 2011; Serow, 1994).

신언혁(2004)은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직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로마서 12장 6-8절에서는 영적 은사에 따라 교회에서 다양하게 봉사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역할은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그리고 구제 등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교사 직분의 영역은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다.

3. 소명과 진로결정성에 대하여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소명이 전공 선택과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졸업 후 진로는 보육교사라고 응답하였다. 조사응답자 중 한 명만이 소명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였고, 따라서 진로가 무엇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는 스테

거와 그의 동료들(Steger et al, 2010)이 보고한 소명이 있는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성이 높다고 밝힌 연구와 일치한다.

“소명이 전공 선택과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자아정체감 형성기를 거치면서 그 전까지는 부모님의 이끄심대로 나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자발적인 동기와 선택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여러 권의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면서 ‘너의 꿈을 찾아라’ 라는 말에 도전받게 되었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고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미술심리치료사의 첫 번째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아유치부 주일학교교사 도우미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어요. 항상 어린이들과 함께 하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과 영혼을 향해 주님께 서 주시는 마음과 사랑을 통해 어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고, 이런 것들이 저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사모님을 보면서 어린이집 원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학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아동에 대한 마음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기독교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동복지학을 전공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전공 선택을 하는데 소명의식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에서 각종 봉사를 할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어요. 이것은 이웃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함을 느낀 계기가 되었고 그 후 아동복지 분야에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고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하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 세상에 아이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교사다운 좋은 교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내가 교사다운 좋은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소명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공을 선택했어요.”

“소명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동,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아동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장애인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하기만 할 뿐, 저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돕는 보육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서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전공 공부를 깊게 하면서 소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명이 없어서는 하기가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요. 그래서 소명이 진로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냥 가지고 있던 꿈이었는데 21살 때 교회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반 아이들을 맡게 됨으로 교사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갖게 되었어요. 일반 유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에서 소외받는 아이들, 장애유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도록 주님께서 저의 시야를 넓혀 주셨어요. 이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전공을 선택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보육실습을 나갔고 실습했던 어린이집은 지역 특성상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가정, 편부, 편모 가정이 밀집된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 특성이 있다 보니 유아들이 일반유아들과 개인적인 특성, 상황 등이 달랐고 몇몇 유아들의 가정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 가정환경이었어요. 이런 유아들을 보면서 실습하는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이런 유아들을 돕고자 하는 소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로를 보육교사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 후 아동복지사로도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좋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아동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대학입학 시에는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주어진 학업에 열심히 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앞둔 지금은 먼저 보육교사로서 일한 후에 더 공부하여 영유아교육 분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소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전공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싶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소명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명 있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소명에 따라 졸업 후 진로가 결정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보육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진로를 결정하였다. 한 명의 응답자는 통합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 중 주목되는 응답은 장애유아나 장애아동에 관심이 많아서 보육교사를 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해서 장애유아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상담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도 몇 명 있었다. 위의 답변들을 분석해보면 소명의식이 전공 선택이나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에 대한 연구는 특히 최근 서구의 진로상담 분야에서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고은애·이혜주, 2016). 딕과 그의 동료들(Dik et al., 2009)은 내담자들은 직업소명에 관련된 경험을 얻기 원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진로 문

제로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은 소명이나 직업소명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서술한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의 실존주의 심리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Viktor, 1963). 실제 성인들 대상 연구에서 소명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속감이 더 크며(Davidson and Caddell, 1994) 일과 삶에서 만족감이 더 크며 높은 수준의 직업 헌신도를 가진다. 직업을 소명으로 보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더 오랫동안 가르치기를 희망했고,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했다(Serow, 1994).

소명 및 진로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피와 세들라섹(Duffy and Sedlacek, 2010)은 3091명의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소명과 진로 결정성, 안정감, 자기유능감 사이의 정적상관을 확인했으며, 디크와 스테거(Dik and Steger, 2008)는 소명이 있는 대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도 소명이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소명과 진로의 관계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박주현과 유성경(2012), 오수진(2011)은 소명과 진로태도성숙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양난미와 이은경(2012, 62-64)은 소명과 진로정체감, 소명과 삶의 만족도와의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윤정(2013, 215-218)도 소명이 진로적응성,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소명이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돕고 심리적 만족감, 일에서의 유능감과 더불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은애와 이해주(2016, 70-73)에 의하면 성격요인인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소명과 진로태도성숙수준도 높으며, 소명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수준도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종교와 진로 및 직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적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진로성숙의 차이를 살펴 본 연구들이 간혹 있지만(강호경, 2003; 김기수, 2010; 박은혜, 2006; 양정석, 1999; 오수진, 2011)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었다. 국내의 소명 관련 연구들은 사회복지사, 공무원,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 특정 직업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편화시키기 어렵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비보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소명의식이 진로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크리스천 예비보육교사들은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명이 진로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명과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소명의식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명의식이 없으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소명이 없고, 자신의 소명의식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한 명의 응답자는 자기효능감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했고, 특히 새로운 일을 할 때 더욱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자기효능감의 핵심 주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출되었다.

(1)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움과 계획 아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의 자기효능감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은 80% 정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기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난 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며 자기 최면을 걸어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효능감은 80% 정도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20%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실패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자기효능감은 중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신 없는 일을 할 때는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자기효능감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효능감을 높여 긍정적인 자아를 촉진시키고 나의 수준에 맞게 목표지향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그다지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4학년 2학기가 되자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스스로를 믿는 신뢰가 있으며,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보는 끈기와 인내의 능력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2)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나보다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것이 아니라, 점차 높여 나가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며 기대와 신념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의 효능감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못 해’라는 생각보다 ‘나는 잘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감이 적은 편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대학교 때 많이 증진되었어요. 대학에 와서 기독교 동아리모임에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여러 가지 조별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성공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저의 효능감은 증진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효능감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제대로 해 내지 못했을 때 오는 실패감과 좌절감을 크게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를 일단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효능감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낮아졌던 것 같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새로운 일이 맡겨졌을 때 자신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껏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격려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5.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와 ‘자기효능감이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쳤다’인 두 가지 답변으로 나누어졌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으며, 기독교신앙이 자기효능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응답자들 중 일부는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진다고 응답하였다. 한 명의 응답자는 소명의식이 없고 자신의 소명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그 응답자는 자기효능감이 부족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1) 소명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침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명의식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던지 저의 최종적인 목표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제 경우에는 소명의식이 아직 없었던 중학교 시절에는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었고 동기가 없어서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 소명을 하나님께 받고 난 후로는 뚜렷한 목표가 생겨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명은 저에게 용기를 주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하던지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방향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소명을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제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이와 더불어 자기효능감도 발달시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무엇인가 내가 이를 수 있고, 이루고 싶다는 믿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소명이 뚜렷하면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그래서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은 서로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소명의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소명의식을 지닐수록 자기효능감 또한 항상

된다고 생각해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야에서는 비교적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할 수 있어요. 소명이 나의 능력 밖의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으로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과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명으로 선택한 직업에 자긍심을 느끼며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 중 가장 큰 달란트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다음 세대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의 자기효능감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2) 자기효능감이 소명에 영향을 미침

“저는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소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현재 자기효능감이 다소 부족하여 소명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욱 노력하여 자기효능감이 더욱 높아진다면, 소명에 대해 더 명확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소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소명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소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자기효능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소명도 확실해지고 자기효능감도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직업 결정과 관계되는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 중 진로준비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고경필·심미영, 2014: 33).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반두라(Bandura, 1997)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더욱 잘 대처한다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사회 적응 능력이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제 능력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일을 더욱 성공적이고 더 의미있게 수행할 수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능력이상으로 수행함을 잘 예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이기학과 이학주(2000: 132-133)는 진로결정 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의 40% 정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고,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진로태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이성희, 2006; 고경필·심미영, 2014)

오늘날 우리의 보육현실은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보육교사의 인성문제가 점차 중요시되었다. 소명을 가진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인성이 좋을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사직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육교사로서 그들의 기독교적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기독교신앙을 가진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소명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교수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이성희, 2016; 이정수·오연주, 2006). 교수효능감이란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Bandura, 1997). 이는 학생의 성취와 관련된 교사의 특성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을 의미한다(Ashton and Webb, 1986). 따라서 교사가 지니는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는 좋은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방은영, 2017: 106-107; 조성연, 2005).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침이다. 교사의 삶으로서, 소명으로서의 정체성은 교사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Palmer, 2005). 이것은 교사의 소명과 관련이 있다. 결국 소명이 있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며 결국 파머의 정체성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자신이 유아교사의 일을 소명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며 기쁨과 보람으로 견디어 내는 것이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이며,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라는 직분에 대한 기독교적 소명 의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교사의 정체성은 내면의 교사(teacher within)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Palmer,

2005). 즉 교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 파머의 정체성의 개념은 ‘분리되지 않는 삶’ 혹은 ‘온전한 삶’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 파머는 교사의 정체성(identity)을 교사의 성실성(integrity)과 온전성(wholeness)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교직의 일을 통해서 교사 자신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성실성과 온전성의 바탕에는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온전성은 교사로서 분리되지 않는 삶이다. 즉 교사로서의 내면의 모습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분열되지 않는 일치된 삶이다. 손정위(2013)는 교사의 정체성과 지식의 내면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내면화된 지식은 교사의 삶 전체와 연관되었으며, 교사로서의 소명과 관련되었다. 결국 내면화는 단지 정보로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인식자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지식이었다. 다시 말해 내면화된 지식은 일방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적 지식이었다. 따라서 교사의 정체성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사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6. 소명의식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현재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많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학업, 진로 및 취업, 인간관계, 건강, 대인관계 등이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은 학업, 진로 및 취업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표은경, 2009).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에 대한 준비와 취업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정의석·노안영, 2001: 93-94).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인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대부분 높지 않은 편이었고, 비기독교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 응답자들은 취업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비기독교인 학생들과 다르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중 한 명만이 아직까지 취업스트레스는 크게 없다고 답변하였다. 취업스트레스의 핵심 주제로는 ‘진로결정 및 직업에 대한 두려움’과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도출되었다.

(1) 진로결정 및 직업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만 막상 현실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취업스트레스가 있어요. 사회 속에서 끝없는 경쟁을 해야 하고 또 그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고민이고 취업스트레스예요. 보육교사를 하기로 정했지만 과연 나한테 잘 맞을지, 또 내가 잘 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비슷한 정도의 취업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취업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취업스트레스를 크게 2가지로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걱정이에요. 소명의식에 따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야 할지, 직장 어린이집에 취업을 해야 할지, 교직이수자로서 유치원교사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하기가 어려웠어요. 고민 후 지금은 유아교사로 나의 길을 선택하여 준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 친구들의 취업소식에요. 나도 나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있지만, 가까운 주변 친구들의 취업 소식을 들으면 괜히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를 다시 뒤돌아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취업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길을 예비하셨다고 믿기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에 대한 소명도 있고, 나의 미래에 대한 꿈도 있어서 이와 관련된 취업스트레스가 있어요.”

“졸업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소명의식만 오로지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과 직업의 사명과 현실적인 괴리감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으로서 소명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막상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면 보육교사의 처우나 급여가 낮아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2)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큰 편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으로 스트레스는 큰 편은 아니지만, 취업스트레스는 소소한 걱정으로... (중략) 현장에서 겪을 어려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손재주가 없어서 교구를 잘못 만들면 어떡하나.. 또는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취업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실제로 아이들과 부딪히고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취업스트레스 같아요.”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에요. 현장에서의 경험도 부족하고... 유아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에 보육교사로서 내가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3) 소명의식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인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 대부분이 소명이 취업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응답은 단 한명의 응답자만이 소명의식 때문에 오히려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하였다. 소명의식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또한 어떤 일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다보니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일 소명이 있다면 취업스트레스가 훨씬 덜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또한 주변 친구들이 취업을 해도 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취업스트레스가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그 어떤 길을 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 부모님의 기대 등으로 취업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걷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바라보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취업스트레스를 믿음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이를 믿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면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소명의식과 취업스트레스는 반비례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소명을 생각하면 취업스트레스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취업스트레스가 있지만 소명의식이 마음을 다 잡고 나를 다독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으며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취업스트레스는 기도와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취업 스트레스를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소명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소명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소명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만일 제가 소명의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믿지 않는 영혼들과 같이 힘들고 불안해하며 취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가졌을 거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소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저를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지금은 미래가 비록 불확실할 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따라서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를 줄여 준다고 생각해요.”

“현재 취업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취업스트레스가 있다면 소명의식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의식과 취업스트레스는 서로 상반관계가 있어서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취업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편이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4) 소명의식과 현실 사이에서의 딜레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소명의식 때문에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생각해요. 요즘 소명의식과 현실적인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소명의식으로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 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주위의 시선이 보육교사직을 힘들고 보수가 적다고 꺼려해요. 소명 때문에 보육교사를 할 것을 결정한 후에 취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상기 답변은 한 응답자의 매우 흥미로운 답변으로, 응답자가 소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 문제인 보수나 처우가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이 솔직하게 드러났다. 다시 말해 소명의식 때문에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

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딜레마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을 제공해 준다면 매우 효과적이고 의미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외적인 환경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적인 환경에 대해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되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다(고경필·심미영, 2014: 22).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면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는 경향이 많지만, 반대로 특정과제에서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그 과제에 대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의 강도도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옥·박영숙, 2012). 고경필과 심미영(2014)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진로성숙과 취업스트레스를 매개한 간접효과를 탐색했는데,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지는 반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는 취업스트레스는 진로태도성숙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도는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조은영과 이지연(2015)은 초등교사의 감정적인 노동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면서 소명이 초등 교사의 감정적인 노동 중 표면적 행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 준다고 보고했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결과들은 그 결과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을 강화시켜주어 스트레스가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취업에 대한 준비를 더욱 하게 만들고 진로결정을 더욱 촉진시키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강유리, 2006; 조민재, 2010; 김명옥, 박영숙, 2012). 그러나 이와 대조적인 연구로는 스트레스를 부모, 학업, 친구, 생활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 친구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미·이문희, 2011; 김은주·최경원, 2012). 또한 이상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스트레스는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로성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표은경(2009)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취업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현립,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2008: 74-75)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지만 진로발달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과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성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나타났다(고경필·심미영, 2014).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소명과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소명이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소명의식이 기독교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통하여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지도 및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아동복지학전공 4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6명 응답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

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 예비보육교사들은 소명이 진공 선택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소명에 영향을 받아서 진로를 보육교사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아동학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보육교사의 인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크리스천 예비보육교사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소명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다고 하였다. 응답한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효능감은 유아교사들의 전문성 및 교사,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강현숙, 2014; 김연아·김정은, 2012; 백영숙·강병재, 2013; 장미정, 2011).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예비보육교사들의 소명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통해 진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크리스천 예비보육교사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대부분 높지 않은 편이었고, 소명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 중 한 명은 소명의식 때문에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소명과 보수 같은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처해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 처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로서의 소명은 있으나 막상 직업으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을 제공한다면 진로결정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것은 정은주(2007)가 자신의 직업을 천직이라고 여기며 소명의식이 높은 이들이 직업에 더 헌신하며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타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고 밝혔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소명의식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소명의식이 강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고경필·심미영, 2014)와 일치한다. 또한 소명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결론적인 적용은 기독교적 소명을 통해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천하는 주체는 바로 유아교사들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의 기독교적 소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보육교사들의 소명 의식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이 기독교 교육 실천을 위한 최선의 교육장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아기는 생의 첫 번째 시기로서 인성과 신앙의 교육 효과가 크고, 정부의 간섭과 제약이 상위 교육기관에 비해 적으며, 이미 개발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은 평준화정책에서 자유로운 편이라 기독교교육 이념에 동의하는 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이 있고, 학교는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택할 학생선발권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근거하여, 기독교 단체나 개인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어린이집, 선교원등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이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데 최적의 교육장소라고 주장한다(김성원, 2012).

이처럼 유아기는 신앙과 인성, 도덕성의 초석을 놓는 기초교육의 시기로 높은 교육 효과가 기대되며,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소명을 가진 교사가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 기독교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교육자나 기독교 기관들의 투자, 일반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준비된 교사들의 배출, 부모들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인식이라는 인적 요소들의 준비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김성원, 2012).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유아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유아교육을 담당한 기독교인 학자, 현장의 유아교사들, 부모들이 기독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정희영, 2004). 따라서 기독교적 소명을 가진 예비보육교사들을 교육시키고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기독교적 소명을 가진 보육교사들은 기독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현장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천하고자 할 것이다.

위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도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소명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독교적 소명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통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기독교 대학의 교육과제는 소명에 대해 재인

식하고,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소명 교육을 확립하며, 소명교육 교과과정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정정미, 2008). 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소명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교육으로서의 소명교육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명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진로상담 시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거나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본고의 연구결과는 이전의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경필·심미영, 2014). 따라서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소명의식과 관련이 있고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경필·심미영, 2014). 자기효능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발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태도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효능감증진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 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지도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제시하였다

넷째,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준비된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정체성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인 유아교사들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교사에게는 자신의 지성, 인격, 영성을 개발함과 동시에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을 신앙적인 면에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김광률, 2005). 따라서 기독교인 교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세속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 교육의 모든 현장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의 모델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것을 소망해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교 4학년 아동복지전공 크리스천 여대생에 한정하였으므로, 한국의 전체 기독교 대학의 대학생에 적용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기독교 신자만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행된다면, 더욱 폭넓은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

으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각 전공 및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과학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소명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하였으나, 각 전공 및 분야에서 소명의식과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성 및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양적 연구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명과 관련된 다양한 다른 변인들을 고려해서 후속연구를 시행한다면 소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유리 (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Kang, Y. R. (2006). *The Effects of Employment Stress on Career Maturity of Dance Major University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 강현숙 (2014). **교수효능감이 유아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Kang, H. S. (2014).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Recognition of Education on Basic Life Habits*. Masters Dissertation. Joongbu University, Koyang, Korea.]
- 강호경 (2003).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ang, H. K. (2003). *A Study of Differences of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Decision 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고경필 · 심미영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Ko, G. P. & Sim, M. Y.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19-38.]
- 고은애 · 이혜주 (2016). 대학생의 성격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소명의 조절효과: 외향성, 친밀성, 성실성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1), 59-80.
- [Ko, E. Y. & Lee, H. J. (2016). The Effects of Calling on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and Career Maturity: regarding on Extraversion, Intimacy, and Sincerity of College Students. *Faith & Scholarship*, 21(1), 59-80.]
- 김기수 (2010). **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Kim, G. S. (2010). *The Effects of Volunteer Work on Self-Identity,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Samyook University, Seoul, Korea.]
- 김광률 (2005). 어디서 교육하는가? 오인택 편. **기독교교육학 개론** (pp. 333-361). 서울: 도서출판 기독교.
- [Kim, G. R. (2005). Where is Education? In Oh, I. T. (Ed.). *Introduction of*

- Christian Education* (pp. 333-361). Seoul: Korean Christian Education Press.]
- 김대성 (2010). **칼빈의 소명론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의 직업선택을 위한 윤리적 접근**. 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Kim, D. S. (2010). *Ethical Approach for Christian Selection of Job according to Calvin's calling*. Doctoral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 김명옥 · 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 [Kim, M. O. & Park, Y. S. (2012). The Effects of Career Decion 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Job Stress of Collge Students. *The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69-90.]
- 김성원 (201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독교교육 실천에 관한 제언. **신앙과 학문**, 17(2), 67-91.
- [Kim, S. W. (2012). The Suggestions of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Faith & Scholarship*, 17(2), 67-91.]
- 김연아 · 김경은 (2012). 영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1), 105-121.
- [Kim, Y. A. & Kim, K. E. (2012). Teacher Self-Efficacy and Job Stress as Predictors of the Job Satisfaction of Infant Teacher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1), 105-121.]
- 김요셉 (1998). 기독교학교 설립의 당위성. **기독교교육 연구**, 9(1), 32-54.
- [Kim, J. (1998). Imperativeness of Foundation of Chritian School. *The Journal of Chritian Education*, 9(1), 32-54.]
- 김은주 · 최경원 (2012). 대학생의 우울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9(2), 231-239.
- [Kim, E. J. & Choi, K. W. (2012).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Job Stress on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Life Environmental Studies*, 19(2), 231-239.]
- 맹용길 역. (1975). **루터의 소명론**, Gustf, Wingren (1965). Luther's Theory of Calling. 서울: 컨콜디아사.
- [Mang, Y. G. (1975). Luther's Theory of Calling. Seoul: Concoldiasa. Trans. Gustf, Wingren (1965). *Luther's Theory of Call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박은혜 (2006).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

학위논문. 광운대학교.

[Park, E. H. (2006). *A Study of Relations among Self-Concept,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 Career Maturity*. Masters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박주현·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Park, J. H. & Yoo, S. K. (2012).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Job Hop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lling and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Studies*, 13(2), 543-560.]

방은영 (2017).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유치부 교사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3), 103-140.

[Bang, E. Y. (2017). Influence of Teaching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in Church School Teachers -with Priority given to teachers in nursery, preschool and kindergarten departments- *Faith & Scholarship*, 22(3), 103-140.]

백영숙·강병재 (2013).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 및 교수효능감과 교수창의성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76, 25-47.

[Baek, Y. S. & Kang, B. J. (2013). The Relations among Job Satisfactions, Teaching Efficacy and Instructional Creativity of Child 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 Child Care and Education*, 76, 25-47.]

서정선 (200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및 가정형편변인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Seo, J, S. (2002). *The Effects of Factors of School and Home Environments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ccording to the High School Students' gender*.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손정위 (2013). 교사의 정체성과 지식의 내면화와의 관계에 대한 한 연구. **신학과 선교**, 43, 249-277

[Sohn, J. W. (2013).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Identity and Internalization of Knowledge. *Theology and Mission*, 43, 249-277.]

신언혁 (2004). 소명의 교사직으로서 교회학교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찰. **기독교와 교육**, 12, 46-57.

[Shin, O. H. (2004). A Study of the Sunday School Volunteer as a Teacher of Calling. *Christianity and Education*, 12, 46-57.]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

- 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Shin, Y. J. (2013).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areer Calling, Career Self-efficacy, Internal Motivation, and Career Adaptation. *Journal of Counseling Studies*, 14(1), 209-226.]
- 양난미·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 [Yang, N. M. & Lee, E. K.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eer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Studies: Counseling and Psychology Therapy*, 24(1), 51-68.]
- 양정석 (1999). **공업계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Yang, J. S. (1999). *A Study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Job Value i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오수진 (2011). **신앙성숙수준 및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Oh, S. J. (2011). *The Effects of Faith Maturity and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Survey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유병길 (2008). **청소년의 기독교신앙성숙도가 자아탄력성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Yu, B. G. (2008). *A Study of the Effects of Youth's Christianity Maturity on the Self Elasticity and Job Value*.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 1479.
- [Lee, S. H.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reer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and Parental Support for Career. *Journal of Counseling Studies*, 13(3), 1461-1479.]
- 이상희 (2016). 예비유아교사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학문적 자아개념이 신체활동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67-86.
- [Lee, S. H. (2016). The Effects of Physical Self-Efficacy and Academic Self-Concept

- on Physical Activity Teaching Efficacy Beliefs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6(3), 67-86.]
- 이정수 · 오연주 (2006). 발달에 적합한 실제(DAP)에 대한 보육교사의 신념과 교수 활동 및 교수효능감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0(3), 103-124.
- [Lee, J. S. and Oh, Y. J.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Daycare Center Teachers. Beliefs of DAP, Teaching Practices of DAP, and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tion Welfare*, 10(3), 103-124.]
- 이종인 역. (2005). *가르칠 수 있는 용기*, Palmer, P. (2005). *The Courage to Teach*. 서울: 한문화
- [Lee, J. I. (2005). *The Courage to Teach*. Trans. Palmer, P. (2005). *The Courage to Teach*. Seoul: Hanmoonhwa.]
- 이현림 · 김순미 · 천미숙 ·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 [Lee, H. R., Kim, S. M., Chun, M. S., & Choi, S. K. (2008). A Study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wareness of Career Barrier, Career Stres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areer Education*, 21(4), 59-80.]
- 장미정 (2011). *유치원의 질과 교사의 직무만족도, 효능감이 유아의 인지, 언어, 정서,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Jang, M. J. (2011). *The influence of kindergarten quality,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efficacy on children's cognitive, linguistic,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갑순 (2003).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6(1), 33-60.
- [Chung, G. S. (2003). A Study of Integral Approach for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6(1), 33-60.]
- 정대현 · 정옥경 (2010). 기독교인 유아교사의 기독교유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교육적 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앙과 학문*, 15(3), 293-326.
- [Chung, D. H., & Chung, O. K. (2010). A Study of Understanding, Reality, and Educational Conflicts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Faith and Scholarship*, 15(3), 293-326.]
- 정의석 · 노안영 (200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연구.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33, 85-101.

- [Chung, W. S., & No, A. Y. (2001).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Job Stress, Depression, Self-concept, and Body Health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s' Life*, Chonnam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33, 85-101.]
- 정은주 (2007).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장기요양요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Chung, E. J. (2007). *The Effects of Belief and Calling regarding the Public Service on the Job Satisfaction of the Long-Term Care Worker*.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정미 (2008). 기독교 종합대학의 소명교육을 위한 제안. **기독교교육정보**, 19, 49-72.
- [Chung, J. M. (2008). A Suggestion of Calling Education for Christian University. *The Information of Christian Education*, 19, 49-72.]
- 정희영 (2004). **기독교 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Chung, H. Y. (2004).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Education Science Press.]
- 조미숙·천세희·김창숙 (2014). 임상치과위생사의 성격유형과 직업소명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14(5), 689-694.
- [Cho, M. S., Chun, S. H., Kim, C. S. (2014). A Study of Character Type and Job Calling of Dental Hygienist. *Journal of Korean Dental Clinic Studies*, 14(5), 689-694.]
- 조민제 (2010).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과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업과 고용서비스연구**, 5(2), 47-60.
- [Cho, B. J. (2010). The Effects of Career Maturity on the Job Anxiety and Job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Job and Employment Service*, 5(2), 47-60.]
- 조성연 (2005).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교육과학연구**, 36(1), 81-104.
- [Cho, S. Y. (2005). Child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6(1), 81-104.]
- 조은영·이지연 (2015). 초등교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소명의식과 일의 의미 조절효과. **열린교육연구**, 23(3), 1-23.
- [Cho, E. Y., & Lee, J. Y. (2015). The Effects of Calling and Meaning of Work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Work and Job Str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 Journal of Open Education*, 23(3), 1-23.]
- 조정아·조은진 (2008). 한국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운영 실

- 태와 교사의 인식도 조사. **아동학회지**, 9(1), 305-324.
- [Cho, J. A., & Cho, E. J. (2008). A Study of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in Practice and Teacher's Understanding of Korean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 *The Journal of Child Study*, 9(1), 305-324.]
- 조혜영 (2010).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 및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 비교연구. **상담평가연구**, 3(2), 15-30.
- [Cho, H. Y. (2010). A Comparative Study of Understanding of Career and College Life in Freshmen and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unseling and Evaluation*, 3(2), 15-30.
- 최윤미·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 [Choi, Y. M., & Lee, M. H. (2011). The Risk Factors and Protection Factors Affecting Career Maturity Development. *The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9(2).]
- 표은경 (2009). **여대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Pyo, E. K.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Types of Facing Stress in College Female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황영철 역. (2001). **그리스도인의 비전**. Walsh, B. J. & Middleton. R. (1987).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Hwang, Y. C. (2001).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Seoul: Korean Christian College Students' Press. Trans. Walsh, B. J. & Middleton. R. (1987). *Transforming Vision :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황혜리·류수정 (200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 진로태도성숙 및 영적 안녕과의 관계.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18, 355-380.
- [Hwang, H. R., & Ryu, S. J.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Barrier,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piritual Well-being. *The Journal of Korean Christian Counseling Studies*, 18, 355-380.]
- 홍병룡 역. (2000). **소명**, Os Guinness (2000). *The Call*. 서울: IVP.
- [Hong, B. R. (2000). *Theory of Calling*. Seoul: IVP. Trans. Os Guinness (2000).

- The Ca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홍병룡 역. (2001).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Stevens, R. P. (2001). *Theology of the Laity for 21st Century*. 서울: IVP.
- [Hong, B. R. (2001). *Theology of the Laity for 21st Century*. Seoul: IVP. Trans. Stevens, R. P. (2001). *Theology of the Laity for 21st Century*.]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shton, P. T. & Webb, R. B. (1986). *Making a difference :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gman.
- Bandura, A. (1997). *The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Davidson, J. C., & Caddell, D. P. (1994).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 135-147.
- Dik, B. J., Eldridge, B. M., & Steger, M. F. (2008). Calling and vocation in career counseling: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meaningful 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 625-632.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 424-450.
- Duffy, R. D., & Sedlacek, W. E. (2010). The salience of a career calling among college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and links of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 27-41.
- Schultze, Q. (2005). *Here I am: Now what on earth should I be do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Serow, R. C. (1994). Called to teach: A study of highly motivated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7, 65-72.
- Steger, M. F., Pickering, N. K., Shin, J. Y., & Dik, B. J. (2010).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 82-96.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Viktor, F.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 “Market Defini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2002.1.3.). Retrieved from http://www.cccu.org/docLib/20020103_CCC_Maguire_Session_III.ppt#293,16, Positive and Negative Images of a Christian Education (2008.3.3.)

논문초록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이종은 (백석대학교)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명의식과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고 소명의식이 진로선택 및 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기독교대학 4학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동복지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한 학생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소명의식이 진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소명에 따라 진로를 보육교사로 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소명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다고 응답하였다.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크리스천 예비보육교사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대부분 높지 않은 편이었고, 소명의식은 취업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응답자 중 한 명은 소명의식이 취업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소명의식 때문에 취업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에서의 진로상담, 취업지도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

Working Experience of Pastor's Wives

조현미 (Hyun-Mi Joe)*

최은정 (Eun-Joung Choi)(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조은주 (Eun-Ju Joe)***

Abstract

This study is a case study conducted to identify the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pastors' wives' work experience.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7 pastors' wives who have worked for their companies for more than two years and had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Through these interviews, this study demonstrates and analyzes their experience. As a result, there are four main components and twelve subordinate components, that is, 'Pastors' wives put on constraints', 'A journey of life surrounded by other's eyes', 'Life as a stranger', and 'God is calling me to serve with love'. The pastors' working wives who engage not only in the church but in the working place are physically and emotionally burdened as they are preoccupied with guilt and feeling lonely without anyone to share their situations. However, they recognize that they are useful in faith, and thank to God due to filling their lives with meaningful things. Lastly, this study offers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pastors' working wives' experience and proposes a need to see it in a new viewpoint.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se findings will provide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pastors' working wives, and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a suitable supportive system for them.

Key Words : pastors' wives, working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yuchanmom@nate.com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jacob7410@kosin.ac.kr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Kosin University),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yugin05@naver.com
2017년 12월 28일 접수, 2018년 03월 09일 최종수정, 03월 13일 게재확정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30여 년간 취업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오는 양상을 보이면서(김기현, 2001) 2017년 3월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16년 까지 여성 취업률이 5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점차적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의 기대가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이숙정, 2011) 사회적으로 여성 직장인 층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일과 가정주부로서의 역할 양립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역할들 사이에서 겪는 갈등으로 인해 기혼 여성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이들은 직장생활 유, 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정 내에서의 일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기혼 여성 직장인의 역할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손영미, 2015). 그리고 30-50대의 한국 기혼여성근로자 311명을 대상으로 한 가영희(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 기혼 여성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미혼자보다 직장인과 주부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과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의식 속에 있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남편(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고 다양한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 하며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목회자 사모로써 교회와 가정에서 완전함을 갖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특수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회자 사모 236명을 대상으로 하여 영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척도로 분석한 김나미(2016)의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특정한 직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종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고단한 삶을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목회자 사모의 역할과 관련해 기존의 문헌들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시도한 연영숙(2013)의 연구에서 사모들이 일상에서 자주 교우들에게 평가대상이 되어 지면서 심적 부담을 겪게 된다고 했다. 이것으로 인해 목회자 사모라는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오스왈드(Roy M. Oswald)가 지은 『목회자의 자아 돌봄』이라는 책에 따르면 목회자 사모들 중 10년 이상 사역을 한 사모들 보다 젊은 사모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고 했다. 반면 정신적 피로도에 있어서는 젊은 사모들 보다 10년 이상 사역을 한 사모들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통계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목회자 사모들이 목회 초기부터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장기간 사역을 하고나면 정신적 피로도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종환, 2005 재인용) 이로써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사역까지 잘 감당해 나가고자 애쓰는 직장인 목회자 사모들의 심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감은 더할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는 자아성취를 하고 또 일면으로는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반 기혼 직장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충을 겪을 수 있다. 그것은 사모라는 입장에서 갖는 특수함과 교인들이 사모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 이미지로 인해 더욱 많은 상황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목회자 사모들과는 또 다른 현실적 난관들에 직면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목회자 사모는 자신의 성향이나 요구 사항 보다는 교우들의 시각에서 요구되는 이른바 ‘부여되는 정체성’(안석모, 2005)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자아실현을 위한 이유에서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 사모는 일반인 직장인 기혼여성이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목회자 사모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일들을 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에서의 평가적 시선과 크고 작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그동안 목회자 사모와 관련하여 시행된 연구로는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김나미, 2015),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김나미, 2016), 자기소의를 경험하는 목회자 아내의 심리에 대한 연구(전정희·한재희, 2012), 목회자 사모가 목회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김상태, 1992),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 다룬 연구(김신섭·정구철 2015), 국외 연구로 목회자 배우자의 역할을 다룬 연구(Hack, 1993), 목회자 아내의 스트레스와 정신분석과 관련된 연구(Roberts, 2004) 등 직장을 다니지 않는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목회자 사모들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인간관계, 정체성, 역할, 정서적 어려움 등을 다루고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었고 특별히 이

들에 대한 국내 질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런데 목회자 사모가 경험하는 문제들은 그들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목회자의 목회 활동과 교인들의 신앙생활, 교회운영, 그들의 가정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 이기에(오원택, 2004) 이들의 고통을 조정해 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목회자 사모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목회자 사모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를 시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목회자 사모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이 주변으로부터 이해받고 신체, 정신, 사회, 영적으로 더욱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정서적 고통예방을 위한 방안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해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특성의 공통점을 도출해 내는데 유용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을 상황적, 시간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의 의미구조와 본질을 밝히기 위해 시도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자 사모로서의 직장생활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직장인 목회자 사모의 경험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하고 분석 및 기술하여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들로 말미암아 신체적, 정서적 문제에 노출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II. 문헌연구

1. 목회자 사모

“목회자 사모는 일반 신앙인과 다르다.”, “사모는 사모다워야 한다.”, “목회자 사모의 제대로 된 역할이 교회를 살린다.” 등은 목회자 사모를 향한 외부의 일반적인 목소리이다(홍용인, 2010). 목회자 사모는 일반적인 기혼여성의 특성과 더불어 목회자 아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이들의 정체성과 상황적 어려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김신섭 외, 2015: 243).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사모들은 “내가 목회자인 남편의 아내인지, 교회의 사모인지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전정희 외, 2012). 윤상현의 연구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 사모에 대해 사명감을 이는 여성,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 겸손한 여성, 현숙한 여성, 대화하는 여성, 감사하는 여성을 드러내는 순종형 사모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윤상현, 1989: 45-55). 비록 최근 들어 목회자 사모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에 의한 평가나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던 사고방식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좀 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개별성을 존중하려는 방향으로의 부분적인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역할 요구 및 목회자 사모라면 이래야 한다고 하는 정형화된 인식이 있다. 이러한 목회자 사모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요구사항들은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형성 되었다 기 보다는 사회통념적인 인식에 흐름을 탄 것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최미선, 2007: 13-15).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시대와 사고의 변화 양상과는 별개로 말없이 남편(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돕고 다양한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 하며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목회자 사모로서 교회와 가정에서 완전함을 갖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특수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회자 아내의 정신건강과 영적안녕에 관한 연구에서는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특정한 직분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많은 종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고단한 삶을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고(김나미, 2015: 254-255), 또한 연영숙(2013)의 연구에서 보고 된 바로는 목회자 사모는 일상에서 자주 교우들에게 평

가대상이 되어 지면서 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인해 목회자 사모라는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한계선을 긋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까지 논의 되고 있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사모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목회자 사모들도 여느 다른 여성들과 다르지 않게 그들의 나뉠의 자기실현에 대한 소망과 존재 가치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주변 환경들에 의해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여되어 가는 것으로 인해 본질적인 자신들의 모습이 빛바래 가는 것을 보면서 정체성의 혼돈과 자아실현의 기회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모들의 정체성 혼란들이 교회 내에서 기대하는 사모 상으로 자신을 끼워 맞추어 살아가도록 가면을 쓰게 하는 상황을 이끌어간다. 이는 목회자 사모들의 삶의 무게를 가중 시키고 자존감을 낮추게 만든다(최미선, 2007).

따라서 목회자와 교회, 주변 상황에 의해 부여된 정체성 안에 고정된 역할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모의 모습과 교회 내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자신의 역할을 조화롭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2.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최근 30-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정 1,185만 8천 중 529만 6천 가구가 맞벌이 가정으로 유배우 가구 전체의 44.9%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통계청, 2017) 이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보편화와 변화되는 경제구조 및 가족구조,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의 현실화와 관련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강혜숙, 2007: 2,4,9,13 ; 유성경 외, 2012: 2-3). 이와 같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정환경에서 기혼 여성들이 체감하는 역할비중은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가치관의 잔존과 관련한 역할 비중의 과중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진숙·최원석, 2011:170-171).

전업주부와 비교하였을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이 가정 내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내지 못하고 때로는 미진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김근식·윤옥화, 2009: 169).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후 며느리, 어머니, 아내와 같은 다중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과정에서 역할긴장 및 자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 여가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사회로 부터의 단절감 등을 경험 한다고 한다(남순동, 2009: 8-11). 더군다나 기혼인 여성이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경우에 있어 송다영 외(2010)의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인 여성의 스트레스가 증가 될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기혼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직장 내에서의 역할과 가정 내에서 책임으로 인해 육체적, 심적 부담이 남성에 비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이진숙과 최원석(2011)의 연구에서는 후기산업사회 이후 맞벌이 가정이 증가해 감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의 부여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다중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가족 내의 역할 수행에 대한 여성의 부담감은 여전하며 이로 인한 역할 갈등에 처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어려움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물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도움을 간구하며 감내해 갈 것이나 다중역할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일반인 기혼여성취업자가 경험하는 다중역할에서 사모로서의 역할과, 교회 내에서 바라는 사모상의 기대치가 중첩되면서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 부담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일반화 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상당수의 기혼취업 여성들은 슈퍼우먼 신드롬(Superwoman syndrom)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는 Shaevitz(1984)에 의해 처음 정의된 개념으로 기혼 유자녀 취업 여성들이 여러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저하와 대인관계의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Shaevitz, 1984; 한경훈 외 2015: 26). 목회자 사모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교회 내의 사역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에게 요구 되는 일들은 다 감당해 내기가 힘이 든다(김나미, 2015: 254-255).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모라고 해서 교회에서 사모로서의 역

할에 대한 평가 앞에 제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모가 직장 생활 하느라 사모 일을 제대로 못해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시선 앞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이에 더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까지 해내려는 과정이 일반 직장여성이나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목회자 사모에 비해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는 더욱 심각한 피로와 수퍼우먼 신드롬에 봉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목회자 부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사모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기개발을 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목회자 사모들이 자신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양한 상황적 제약들이 이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주봉채, 2005: 37-39).

이처럼 일반인 취업여성이나 전업주부로서만 있는 목회자 사모에 비해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가 더 많은 다중 역할 감당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또한 가정주부로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밝혀내고자 심층면담을 하여 자료를 얻어 질적 연구 중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사례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을 목적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기준은 부산, 경남지역내의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자 사모로서 지낸 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으로 하였고 둘째 기준은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 경험이 2년 이상인 자를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또한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와 목적 및 진행과정,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 한 후 참여의사 확인 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총 7명이었다. 표본 수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특성상 유사점을 가진 참여자들에 대해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시행할 때는 6~8명의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였다(Kuzel, 1992: 31-44).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8.3세였다. 결혼 기간은 3년부터 15년까지 다양했으며 직장생활 경력도 4년부터 19년까지로 다양했다. 남편 목회자의 목회구분은 7명의 참여자 중 한 사람만 담임 목사였고 나머지 6명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ge(yr)	Type of occupation	Career duration of occupation(yr)	Marriage period	Pastoral division (husband)
Participant 1	39	a public service employee	13	11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2	38	employee	4	6	pastor in charge
Participant 3	41	nurse	17	13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4	31	chemist	5	3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5	35	nurse	5	6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6	44	elementary school teacher	19	15	assistant pastor
Participant 7	44	kindergarten teacher	18	13	assistant pastor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약 2개월이었으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해 나가면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 하였고 참여자 별 면담 횟수는 2회~3회까지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120분이었다. 주요 질문은 “목회자 사모로서의 직장생활 경험은 무엇입니까?”로 비구조적이며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이끌어 내고자 했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 주저하는 경우 진술내용에 따라 준비한 부가적 개방질문을 이어나갔다. 부가적 질문 내용은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 할 때 가장 보람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을 다님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직장인 목회자 사모로서 삶은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을 다님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면담 시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능한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되는 답이 유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어조, 표정, 손짓, 웃음이나 눈물) 모두를 누락 시키지 않도록 메모와 관찰을 하며 참여자의 동의 후 녹음을 하였고 메모는 면담도중에는 참여자의 표현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하면서 참여자와 면담을 마친 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각 참여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까지 면담을 진행하였고,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부족하다 판단된 내용은 면담을 재 시도하거나 전화 통화하여 질문을 하였다. 면접을 통해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판단중지를 하였으며, 연구자의 가정과 기준의 이해에 관련된 검토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 모두를 녹음하였고 참여자가 진술한 그대로의 언어로 녹음된 내용은 필사한 후 원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녹음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확인 하였다. 면담 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의 진술에서 그것이 가지는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들이 경험한 내용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기 위해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한 채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진술의 윤곽을 파악하였다. 둘째, 진술된 내용에서 목회자 사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의미들을 추출한 후 이를 참여자의 경험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주제로 분류 하였다. 셋째,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중심의미를 연구자 관점의 언어로 변화시켜 기술함으로써 주제를 구체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해서 분석하고 수정을 하면서 도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자료의 차원과 속성을 고려하여 상·하위 구성요소들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도출된 중심의미들을 일관성 있는 관계들로 통합시켜 목회자 사모의 관점에서 직장생활 경험의 의미에 대한 상황적 구조를 구성 하고 이것을 통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일반적 구조기술을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하위구성요소로는 12개가 도출되었다.

4.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에 의해 제시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따랐다(Lincoln, Guba, 1985: 294-331). 첫째, 연구에서 사실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회자 사모로서의 입장에서 2년 이상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목회자 사모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참여자 중 2인에게 다시 읽도록 하는 member check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을 얻었다. 둘째, 연구의 적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목회자 사모를 참여자로 선정하고 참여자 7명에 대한 총 면담 횟수는 17회였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경험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여 직장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되어 새로운 내용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자료가 포화 상태에 이를 때 까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반복하여 풍부한 기술(thick descrip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의 일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자 면담에서부터 필사까지의 전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 한 후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자의 언어로 상·하위 구성요소를 도출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 1명과 질적 연구에 대한 다

양한 교육을 받은 박사과정생의 자문을 받았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자 자신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적 연구 학회를 통해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이수함으로써 질적 연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았고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로서 16년 이상의 임상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심의 승인(KU IRB 2017-0051-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로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방법, 주요 질문, 면담 시간, 자료 누락 방지를 위해 면담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 참여자의 신분 보호에 대한 익명성 보장, 원치 않을 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가능함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확인 후 스스로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상태에서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했다. 음성 파일을 포함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개인 컴퓨터에 저장 후 연구자만 알 수 있는 패스워드를 걸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 상태에서 3년 동안 보관하고 연구자가 직접 모든 자료의 보안유지에 관해 관리 할 것이다. 연구 자료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석을 마친 자료들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할 것임을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편안해하는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진행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면담에 응한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의 구조는 4개의 구성요소와 12개의

하위 요소가 도출 되었다. 4개의 구성요소는 ‘사모라는 이름의 굴레’, ‘시선 속에 갇힌 인생’, ‘이방인으로 살아감’,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로 확인 되었다.

Table 2 Components of Work experience of pastor's wives

category	sub-category
Pastors' wives put on constraints	It is unfair but can not rebel myself
	A life that is always burnout
	Wearing a mask in my life
	A subtle restriction
	Feeling so sorry that they can not take care as a mother's role
	Live a life with debt
A journey of life surrounded by other's eyes	Get discouraged by other's eyes
	The path of a sad double standard
Life as a stranger	Shadow life of a pastors' wife
	There is no one to open in their hearts
God is calling me to serve with love	Feel as an useful person
	Feeling satisfaction and alive

1.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 기술

(1) 굴레로 덧 씌워진 사모의 자리

면담에 참여했던 목회자 사모들은 사모로서 직장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했고 특히나 남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에서 사모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사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교회에 있는 시간동안에는 더욱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면서 이것이 일종의 보상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늘 사모와 직장여성이라는 양 갈래 길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고 자신이 목사님 사모님이라서 직장 에서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견을 표하지 않고 목

회자 사모는 다르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 때때로 서러움과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목회자 사모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녀 아무리 피곤해도 체력을 쥐어짜 가며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다 표현했다.

또한 사모로서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주어진 물질에 만족하고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물질부족으로 자녀들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 아파하는 사모들도 있었다.

① 억울해도 반항하지 못하는 자신

참여자 1의 대부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서, 더군다나 사모라서 다른 직장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거나 자신의 일이 아닌 업무가 주어져도 반항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직장에서 제가 사모라는 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요. 화도 못 내고, 억울한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게 힘들어요. 다른 동료가 저한테 함부로 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하니 계속 함부로 대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보직을 많이 맡기세요. 못한다고 징징거리지도 못하겠고... '저 사람이 사모라고 하던데 희생도 안하려고 하고 사랑이 없어' 라고 평가하거든요. 내가 사모라는 걸 이용해요. 남들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교인이~', '사모가~' 하는 소리를 많이 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평신도 보다 더 참아야 해요. (참여자 1) 25세부터 직장생활을 했어요. 직장에서는... 처음 직장생활 할 때는 제가 사모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사모가 되면서부터 제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늘 참고 좀 부당하다 싶거나 저에게만 너무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다 해도 그걸 일일이 따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그냥 수년 동안 묵묵히 참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참여자 5) 직장에서는 내가 목회자 아내라는 걸 다들 아니깐 행동이나 말투에 제약이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늘 신중하게 판단한 다음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목회자 사모니까... 목회자 사모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이미지 주지 않으려고 그냥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해왔어요. 그야말로 묵묵히... (참여자 6).

② 늘 소진되는 고단한 생활

참여자 1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사모로서 더 모범을 보이고 유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과중한 업무에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 할 수 밖에 없다 하였다. 교

회에서는 예배드리러 가는 날, 특히 주일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일을 섬기는 것으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 다른 사모님들처럼 평일에 있는 교회 행사나 특별 집회 같은 것에 참여해서 섬길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나 미안함을 씻으려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활 패턴 때문에 너무 고단하고 때때로 소진됨을 느낀다고 했다.

내가 직장에 다녀서 평일에 있는 예배나 기도회, 모임 같은 데는 잘 못나가지만 직장인 사모라 해서 역할을 적게 하지는 않아요... 성도들한테 전화심방도 해야 하고 주중에는 기도문도 짜고 QT하고 단톡방에 그날 그날의 QT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나도 이런 걸 잘 해내고 싶은데.. 너무 버겁다고 느낄 때가 간간히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버거운데 아니니깐 내 스스로도 아쉽고.(참여자 1)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동료지 친구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 일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Refresh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이 돈을 벌어야 하고 직장에 나가 있지 않는 시간에는 교회 일에 매진해야 하고.. 내 시간이 없어요. 진이 빠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꼭 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죠. 직장일 하느라 온전히 매진하지 못했던 사모로서의 역할에 퇴근이후의 시간을 써야 하니까...(참여자 2)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아주 큰 대형교회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도 가입해 주고 사례비도 많은데.. 목회자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면 안되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4대 보험도 안 들어 주고 사례비도 제 월급의 1/2정도 밖에 안돼요. 고단함의 연속이지만 제가 벌 수 밖에 없죠(참여자 3).

③ 가면을 쓰고 사는 인생

참여자들은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순종적이고 건전한 사모상을 보여주기 위해 때때로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추어진 얼굴로 살아간다 했다.

저희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너무 베일이 많아서 싫었어요. 어딜 가도 어딜 가는지 말을 안하고 출타한다고... 이런걸 보면서 전 절대 사모 안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모가 됐네요. 그냥 목사님과 결혼하면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사모가 되는 거니까..이렇게 사모가 되어서 내 감정, 내 상황 상관없이 '네~네~'하며 생글거리고 다녀요. 나 자신은 뒤로 감춘 채...(참여자 5) 목회자 사모가 직장을 다닌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한번은 주일날 온종일 제가 교회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연세 많은 권사님이 사모가 저리 피곤해 보여서 어쩌나, 교회일에 써야할 힘을 일 다닌다고 다 써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참 속상하더라구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얼굴 화장이나 표정관리에 더 신경을 써요.. 고단해 보이지 않으려고...(참여자 7)

④ 은근한 제약

면담에 참여했던 사모들은 교회로부터 오로지 사모로서 지내면서 남편 목사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요구 받는다 했다. 이러한 요구가 귀한 일 인줄 알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장을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주 갈등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직장이 허락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을 진데 외부의 목소리가 자신을 제한하는 느낌이 들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는 주님이 인도하신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차 이 일들 가운데 주의 일을 해 나갈 청사진이 그려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직장 다니는 걸 직접 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근히 직장을 관두고 사모역할에 매진할 것을 원하죠. 그걸 대고 ‘사모님 직장 그만두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때때로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속상해요 진짜...(참여자 3) 기본적으로 목회자 사모는 교회에서 원하면 언제든 직장을 그만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번 교회에서 제가 복직할 때도 사모님 복직하시면 목사님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담임목사가 되면 사모는 일을 그만뒀야 된다, 이렇게 있고 부목사님 사모도 일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제 친구는 그래가지고 일을 그만 뒀어요(참여자 5). 그래서 내가 내 직업 선택이 내 의지보다 남편의 교회의 분위기, 성도의 시선에 휘둘린다는 게 되게 처음에는 마음이 좀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나도 사명이고 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깐 내 마음에 부딪힘이 컸거든요. 되게...암튼 교회에서 사모가 일하는 건 그리 반기는 일은 아니예요(참여자 6).

⑤ 채워주지 못해 미안한 엄마의 자리

평소에는 직장인으로서, 교회에선 사모로서 거의 달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자녀들에게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예외 일수도 있으나 목사님의 사례비라는 것이 그야말로 월급이 아닌 사례비이기에 경제 사정이 늘 어려워 더 좋은 필요와 기회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리 될까봐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참여자들은 말했다. 어떤 참여자들은 형편이 어려워 아무리 절약하며 살아도 대출로 대출을 막아낸다고 하며 물질적 고단함을 표현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요하니 하나님이 저의 직장생활을 통해 채워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너무 자기 합리화 인가요? 때때로 저도 내가 내 맘 편 하려고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자리다, 이곳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전하고 물질도 주신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고민하기도 해요. 목사님 사레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애들 공부할 때 필요한 돈 조차 채워 줄 수가 없어요. 한번은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중 여러 명이 유치원 마칠 때쯤 발레학원차가 와서 데리고 간데요. 자기도 발레 배우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근데 전 그걸 보낼 형편이 안돼요. 너무 속상하고..흑흑...(눈물을 흘리며) 애한테는 미안하고. 큰애도 학원 보낼 돈이 안돼서 늘 힘든 상황이에요. 때때로 큰애 학원비가 며칠이라도 늦을 때면 애한테 불이 익이나 안 좋은 시선이 가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가끔 너무 돈이 안돌아 가면 한 두달 정도 학원을 쉬게 할 때도 있어요. 애한테는 미안하고 내 스스로는 서글프고... 대출로 대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 카드 비가 나가는 시기가 되면 그걸 못 채워 넣을까 전전긍궁입니다(참여자 6). 애들이 병이 나도 빠른 조취를 취하기 힘들니까 애들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번은 애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바빠서 집에 있는 감기 시럽을 먹이고, 주일 아침에 애가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여서 오전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기 전에 주말에도 하는 병원을 데려가 볼까 하다가 주일만 이라도 평소에 직장 때문에 더 하지 못했던 사모의 역할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주일 내내 애를 방치하는 게 되어 버렸어요. 저녁 예배 까지 마치고 나니 애가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갔죠.. 폐렴이었어요.. 너무 미안 했어요 애한테.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난 내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질까봐, 또 직장안다니는 사모님들께 미안한 마음에 우리 애 병을 키웠어요(참여자 5).

⑥ 늘 빛 진자로 살아감.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것 때문에 남편 목사님이 교회를 옮겨야 할 때 한계를 긋고 있다는 생각을 비롯해 다른 사모들처럼 충분히 목사님과 교회 일을 섬기지 못하는 것 같다는 죄책감과 사모로서만 살아가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늘 빛 진자 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평일에 있는 기도모임, 예배, 특히 새벽기도에 잘 참여하지 못 하는게 신경 많이 쓰이나 봐요. 교인들 눈치도 보이고... Main은 목회자 사모라는 것이다. 새벽기도에 좀 더 충실해라 등의 요구를 하는데 다 해내기가 벅차요. 그렇지만 저희 목사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저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 눈치가 보이겠어요(참여자 2). 교회에서도 내가 일하는 사모라고 되도록 예배가 아닌 그냥 그룹 모임 같은 곳은 권하지 않더라고요. 이래 저래 배려받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빛진 것 같이 무거워요. 그래도 내 선에서는 할 수 있는 봉사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 안하는 다른 사모들한테 미안하고 성도들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제 내면속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고 우리 남편이 타 지역으로 목회 자리를 옮기려 해도 지금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는 게 어렵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남편의 사역지를 한계 짓는 느낌이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참여자 4).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니 성실히 임하자, 죄책감 느끼지 말자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내가 직장생활 하느라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모의 본분을 좀 더 잘 감

당하기 위해 내 일을 버려야 하나 하면서 양가감정을 느껴요. 직장 안다니는 사모님들이 내 몫까지 일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힘든 문제 인 것 같아요(참여자 4).

(2) 시선 속에 갇힌 삶

참여자들은 본인을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만, 교회에서는 다른 사모들처럼 목회자 사모로서만 보여 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사모인 직장인, 교회에서는 직장인 사모로 바라봐 지면서 사모로서 요구되어 지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이중 잣대,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모역할을 제대로 해내는지 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들 때문에 늘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 스스로도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고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① 수많은 시선으로 자꾸만 움츠려 드는 자신

직장을 다니는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들에 비해 더 많은 시선이 주목되고 평가의 자리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마치 교인들이 시어머니고 자신이 며느리가 된 듯한 부담감이 있다고 하였다.

목회자 사모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는 교회 일에 불성실하다고 여기고 마땅치 않다고 볼 때가 많아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직장일도 주의 일도 충성을 다하려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로 부터만 올바른 평가를 받고 싶어요. 때때로는 정말이지 탈출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선에서...(참여자2) 목회자 사모가 무슨 돈을 벌러 나가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제가 직장생활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마치 나를 세속에 물든 사모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조차도 정말 그런가 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목회자나 사모는 참으로 은혜받기 힘든 자리 같아요. 주일에도 늘 봉사해야 하고 교인들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예배에 집중이 안돼요 내가 직장을 다녀서 피곤하다는 기색을 보이면 안 되니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힘들어요. 교회에는 친 명의 시어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모가 직장을 다닌다던데 사모역할로 잘 할라나?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저 사람이 목사 사모라던데 뭐가 다른지 관찰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마음가는대로 하지 못하고 위축되요 제 입장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소한 지적도 받고 싶지 않은데 간간히 사소한 지적이 크게 다가오죠(참여자 3). 한번은 주일날 온종일 제가 교회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직장 다니느라 피곤해서 교회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있겠냐는 식의 말을 했어요. 진짜 속상하더라구요. 전 저 사모가 피곤한데도 저리 열심히 애쓴다 같은 말을 듣고 싶은데....(참여자 5).

② 서러운 이중 잣대의 길

직장을 다니는 사모들은 직장에서는 사모라는 입장이 덧 씌워져서, 교회에서는 직장을 다니다는 입장이 덧 씌워져서 평가되어 지고 있다 말하며 어느 입장이 되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봐 지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근데 나는 내가 할 일이 많고 바쁜 것, 시간이 없는 것 보다 교회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게 더 힘이 들어요. 직장생활 하는 바쁜 사모니까 더 느그럽게 봐주시는 않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모라고 해서 더 피곤하게 보여 지는 것, 예배시간에 좀 더 일찍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더 안 될 일이지요. 사모가 직장 다닌다고 제역할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은 비롯한 예배시간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거든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라면 “저 사모 어디 아픈가? 무슨 일 있나?” 하겠지만 직장 다니는 사모를 성도들은 사모가 직장 생활하느라 사모역할을 등한시 한다고 판단하거든요(참여자 1). 내가 처한 곳에서 성실이 살아내고 내 삶이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여겨지는데 사람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니까 회사에서도 내가 목회자 사모라는 걸 이용해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한다든지, 조금만 실수가 있거나 부당하다는 발언을 할라치면 나라는 개인이 욕먹을게 아니라 목회자 사모가 왜 그러냐는 소리를 듣게 되니 제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걸 모두가 아는데, 평판이 나빠지는 상황을 만들어 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내가 목회자 사모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절대적 헌신, 완벽함 등을 요구받는 것 같아요...(참여자 2) 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은 직장동료로서 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일로만 평가 되도 전 기독교인 내지는 사모라는 게 덧 씌워져서 평가된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속상하고, 일단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군다나 목회자 사모라고 하면 기대치 내지는 기준치가 높아지고, 나로 인해 기독교가 평가 된다든지 목회자 사모가 욕을 먹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늘 신경이 쓰여요. 직장 생활 내에서 제가 목회자 사모라는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최고 높이에요. 지나치게, 크리스찬에 대한 도덕적 기준도 높는데 거기에다가 사모라는 입장까지 얹어버리면 이게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hyper죠(참여자 6).

(3) 이방인으로 머무는 삶

참여자들은 교회 내에서 어디에도 소속감이 없이 늘 섬기는 위치에 있다 보니 때때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 교회내의 다른 사모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모임에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걷도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일주일 내내 직장 일에 지쳐 있어도 재충전 할 시간이 없고 피곤해도 교회 내 직장 안다니는 사모님들한테 미안해서 본인 마음 나눌 곳이 없고 성도들에게는 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직장을 다니던 안다니던 모든 사모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여기도 저기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림자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일을 섬기면

서 직장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사모가 나눌 수 있는 언행의 한계점으로 인해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말 하였다.

① 그림자 같은 사모의 인생

참여자들은 남편 목사님이 가는 데로 따라간다 하면서 이것은 사모라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지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불만은 아니나 본인의 직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된다는 점이 서운 할 때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에 수용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목사님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모인 저는 그림자처럼 숨어서 오로지 목사님을 내조 해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져 있는데 저는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있으니까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의 직장 생활은 별로 고려 대상이 안돼요. 사모만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고 사모들은 철저하게 묻혀 있어야 해서... 물론, 사모들이 많은 사역에 나서서 일을 하면서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의 사모들은 저의 경우와 유사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익명으로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모들은 사모가 되기 이전에 대부분 교회 안의 어떤 리더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사모로 가게 되면, 특히나 교회에서 반기지 않는 직장 다니는 사모라는 입장이 되면 더 주눅이 들어서 사모로 가면 게다가 대형교회 일수록 거의 그림자로 묻혀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모님은 목사님 따라 가는 게... 목사님 소속이고 목사님한테 붙은 1+1이에요. 아쉬운 소리 해야 할 때가 있기에 평소에 진짜 열심히 일하고 동료들이 하 기 힘들어하는 일 해줘 가며 사정을 봐주죠. 사모는 그림자 같은 존재고, 사모의 사생활은 절대 드러내면 안 되고, 직장생활 한 다해서 옷차림이 호화 스러워서도 안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진짜 별거 아닌데도 남에게 도움 주게 되면 그것조차도 철저히 비밀로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못하는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참여자 7)

② 속마음 말 할 곳이 없음

직장에서는 자신이 사모라는 걸 알기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교회 내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사모로서 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모라는 자책감으로 인한 미안한 마음에 할 말을 못 한다고 하며 여기에도 저기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이 없음에 고립감과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힘들어도 사모가 되가지고 직장 다니느라 힘 다 쓰고 교회 일에 열심을 못내는 것 아닌가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속마음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사모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내려고 전전 궁궁 해요. 원래 사모라는 존재가 목소리 크게 내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들로 지내

지만 저는 교회에서 반기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사모이니 웬지 더 주눅 들고 해서 내 의사와 다르게 일이 돌아간다거나 판단을 받아도 더 입 꼭 다물고 제 마음 다스리며 무명인처럼 있어요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참여자 3). 또 제가 직장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면 어쩌나 라는 부담감과 동시에 제가 직장 다닌다고 교회 일을 마음 편히 맡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듯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위축이 되고 더 목소리도 못 내고.... 가끔 제일 친한 목회자 사모인 친구랑 통화 하면서 서로 하소연해요. 그리고 나면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어요(참여자 4).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화낼 수도 없고.. 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은 직장동료로서 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일로만 평가 되도 전 기독교인 내지는 사모라는 게 덧 씌워서 나로 인해 기독교가 평가 된다든지 목회자 사모가 욕을 먹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늘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제 속마음은 직장동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살죠. 말 못하고 사는 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요 (참여자 6). 전 사모라는 특수한 입장 때문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진짜 솔직한 내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아는 사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에서도 자유 함이 없고 뭔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성도들 하고는 그야말로 예의를 갖추는 관계라고나 할까? 제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들어만 주는 입장이지요. 친정엄마한테도 직장일, 사모일 다하느라 힘들다 소리 별로 못해요. 우리 엄마는 평신도니까...평신도에게 사모가 징징되는 걸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참여자 7)

(3)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

참여자들은 사모로서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수많은 제약과 고단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고 했다. 자신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삶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으실 것에 믿고 감사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장을 통하여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함에 감사하고 비록 직장 일에, 사모 일에 고단하고 바쁘지만 이 또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임을 알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① 자신이 쓰임이 있는 자리에 있음을 느낌

참여자들은 힘들어도 직장에 나와서 일 할 때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숨 쉬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직장에서 사모인 자신이 더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목회자 사모라고 하더니 그래도 좀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 하신다 느끼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직장이 전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서 좋아요. 전도하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요. 업무에서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목사님 사모님이라더니 다르긴 다르네..하는 소리도 가끔 들어요. 제 발전도 있고.. 이런 게 보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직장동료 중에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걸 보았어요. 아예 안 믿다가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참여자 1). 그래도 감사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하는 지친 영혼으로 보이고... 목사님 사모님인 제가 그 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깐요(참여자 2). 나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그냥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내가 사모라는 걸아니까 제가 양보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사모라더니 참 성실하다, 내같으면 못 참고 한소리 했을 텐데 잘 참고 해낸다는 말을 들으면 힘들다라고 여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생각 들고...(참여자 4) 그리고 제가 제 주변 친한 동료 6명한테 성경책을 한권씩 주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 생각해서 드린다 하니 어쩔 이걸 받는 게 불편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 생각하고 드리고 왔어요.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낌이 있었겠지만 다들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한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먼 훗날이라는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기대가 되고..제가 뿌리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기대하니까요. 근데 이건 일반성도들도 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사모라면 좀 더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참여자 6).

② 채우심과 살아 있음을 느낌

참여자들은 사모라는 자리가 직장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였다. 어떠한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늘 노력하며 점검하는 삶이 오히려 자신이 발전하는 거름으로 역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감정들이 활력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했다. 또한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질의 필요를 채워 주심과 이주 넉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모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매로서의 공감을 가지고 도울 수 있어서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내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명으로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리고 전문직 직장여성으로 살아가니 자부심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내가 벌어서 쓰니 좋죠. 힘들지만 일할 곳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해요(참여자 2). 한번 씩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삶을 비춰 봐요. 기도하고... 여쭙보고...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아닌가... 늘 사모와 직장여성이라는 양 갈래길 속에서 내적 갈등을 떠안고 살지만 저는 압니다.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통 스러워 하고 고

민하는 것 보다 주 안에서 평안하길 원하시니 까요(참여자 3). 그렇지만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혜, 채워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직장을 통해서 채워주심이 있다는 생각과 제가 돈을 버니까 다른 사모님들이 좀 어렵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제가 빌려 드릴 수 있는 거, 사모님들은 형편이 어려워도 주변에 손 내밀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같은 사모로서 사모님들의 형편을 더 이해하니까 다른 교회 어려운 사모님들한테 후원을 하고...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보람일까... 생각해 본적도 있어요. 제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어떤 존재로 위치 하길 바래서 있는 자리는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이 큰 영광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때면 뭐랄까... 뭔가 허무하고 공허한 느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 하셨을 텐데... 목회자 사모로서 사는 인생이 귀 하지만 나라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경험은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7).

2.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의 일반적 구조 기술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 대한 4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일반적 구조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사모가 귀한 자리임은 알지만 직장을 다니게 되면 때때로 이것을 굴레로 느끼게 하는 주변상황이 있다고 했다. 직장에서는 자신이 사모이기에 그렇지 않은 직장 동료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해야 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맡게 되어도 사모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될까봐 불만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헌신을 요구 받고 있어 힘들다고 했다. 직장에서는 사모이기에 더 유능해 지려 노력하면서 교회에서는 직장을 다녀도 사모 역할을 순종적이고 성실하게 해 내려 하는 동시에 직장출근 때문에 평일에 교회행사나 집회에 참여하지 못함에 대한 보상심리로 할 수 있을 때 교회 일에 더 애쓰다 보니 때때로 소진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순종적인 사모 상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추어진 얼굴로 지내면서 자신이 직장에 다님으로 말미암아 남편 목사님의 사역을 더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사모가 사역에 전념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닌다고 평가하는 교인들의 부정적인 시선, 직장일과 사모역할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동안 자녀들에게 엄마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고 느끼는데서 오는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직장생활이 남편 목사님의 사역에 한계를 짓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들에 대한 빛진 자된 마음으로 살아감을 표현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모로서만 살지 않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사모라

는 이름이, 교회에서는 교회 일에 전념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사모라는 입장이 덧씌워져 바라봐 지고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이중 잣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 위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위축되는 자신의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소속감이 없이 겉돌게 되고 힘들어도 속마음을 말할 곳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제약과 고단함 속에서도 직장을 다니게 된 것과 사모로서 부끄러움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고백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심에 감사하고 있었다. 사모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 그 곳에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살아있음을 느끼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믿는 감사의 경험들을 표현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목회자 사모로써 직장생활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이들이 겪어내고 있는 생생한 삶의 경험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탐색하기 위해 시도한 사례 연구로서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 7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은 12개의 하위 범주와 4개의 범주로 드러났고 도출된 범주에 따라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첫 번째 경험은 사모라는 이름이 굴레가 되어서 억울함, 소진됨,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삶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제약, 자녀에게는 미안한 엄마. 빛 진자 된 감정 들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목회자 사모들은 기혼직장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목회자 사모된 입장에서 부여되는 여러 가지 역할 갈등을 중복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진숙·최원석(2011)의 연구에서 기혼직장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과중한 역할과 시간 부족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현실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혼 유자녀 직장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한경훈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있는 상당수의 직장여성들이 수퍼우먼 신드롬(Superwoman syndrome)이라는 스트레스 증

후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가정과 직장 일을 완벽하게 양립하려는 심리 상태가 소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전에 의해 온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목회자 사모의 경우, 상기 기술된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해 교회에서의 사모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반 기혼 직장여성이 겪고 있는 다중 역할로 인한 심리적, 시간적 압박감을 가지는 동시에 목회자 사모라는 입장이 가중되어 더욱 부담감을 갖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겨진다. 또한 목회자 사모는 더 높은 평가기준과 도덕적 잣대로 바라봐 지고 있는데 이는 목회자 아내의 자아 정체감과 주관적 웰빙을 다룬 김신섭(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었다. 그것은 목회자 아내라는 특수한 상황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의 행동이 목회자 사모,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과 두려움에 팽배해 있어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직장에서 사모라는 입장이 덧씌워진 채 불합리하고 과중한 업무를 강요받고 있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사모와 기독교인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염려 되어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억울해도 묵묵히 힘든 일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만난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 직장인 목회자 사모로서의 역할은 일반 직장인 기혼 여성과 목회자 사모가 겪는 어려운 현실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 가고 있기에 더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 및 소진상태에 봉착해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와 비교해 볼 때 기혼 직장여성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역할 수행에 있어서 자신이 부족하다 여기며 남편과 자녀에게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김근식·원옥화, 2009: 10)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른 일반 가정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비교하여 목회자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사역의 장소에서 목회자 자신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 등, 온 가족의 헌신을 기대하는 교인들의 바람이 있다고 했다(홍용인, 2010: 353).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직장인 목회자 사모들은 직장생활 하느라 어느 위치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스스로가 정죄하고 사모로서의 역할을 애써 감당하며 교인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시간이 등한시 되는 것과 물질적으로 충분치 못해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김나현 외(2013)의 연구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기혼 여성들은 자녀를 충분히 보살피지 못하고 교육에 제대로 신경 써 주지 못함에 죄책감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분야의 직업보다도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목회자 사모의 자리라 하였기에(장은진, 2008: 188) 본 연구의 참여자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들은 직장생활과 목회 안에서 양측면의 일들을 감당하며 탈진에 빠지기가 쉽다. 그리고 목회자 사모라는 이미지의 굴레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 크나 큰 부담을 짊어진 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목회자 사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인격체이다.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인격체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교회 내에서 먼저 사모를 이해하고 그들의 육체적, 심리적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사모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해 함께 나누어 감당해 가고자 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 된다.

둘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두 번째 경험은 직장과 교회에서 수많은 시선과 잣대로 평가 되어 지며 스스로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었다. 오미희(2012: 1-4)의 연구와 반신환(2003: 81)의 연구에서 보면 목회자 사모들은 교인들의 틀에 맞춰진 시선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증폭 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직장을 다님으로써 목회 사역에 불성실한 사모로 평가 받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일반 직장인에 비하여 월급(사레비)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인식 속에는 목회자나 그 사모가 주어진 경제 형편에 맞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오미희, 2012). 이로 인하여 사모들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직업을 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반신환, 2003) 직장을 다니면서도 교인들이 사모에게 기대하는 틀에는 자신이 맞지 않은 사람이라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목회자 사모의 입장 및 현실과 관련하여 주봉채(2005)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입장은 바울의 가르침 즉,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빌 4:11)”을 오용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목회자 사모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가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적은 생활비로 자녀의 교육비와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고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런 현실과 관련한 목회

자 사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목회자의 수입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사모의 우울정도가 높게 나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손민정, 2013). 목회자 사모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에서 사모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목회자 가정의 불화를 가져 오고 목회자의 교회 사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오미희, 2012). 본 연구에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들은 사모라는 자리를 등한시 여겨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세속에 물든 사모, 목회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모로 보여 지면서 이러한 시선 때문에 자꾸만 위축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본 연구의 참여자 들은 반복적으로 의식되는 교인들의 부정적 시선과 함께 죄책감으로 인해 교회에 가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주눅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는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인식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손민정, 2013). 이에 대해서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만난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사모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말을 했다. 어떤 사모는 자신이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실 청사진이 그려진다고도 했는데 이는 최근 기독교 각계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 ‘일터영성(Workplace Spirituality)’, ‘일터선교(Workplace Mission)’의 개념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여 진다. 성경에서 보면 사도바울도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는데(행 18:1-4)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다고 해서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떠난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각 처소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생각되고 목회자 사모의 입장에서 직장에서건 교회 내에서건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그들은 직장에서도 자신이 목회자 사모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요,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전욱(2016)의 연구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일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침체기에 있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 회복과 성장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정보 지식산업에 기초한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 총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교회가 ‘일터영성’과 ‘일터사역’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시도해 가는 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임을 말해 준다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는 사모에 비해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가 주의 일을 등한시 하고 세속에 속한 사람일 것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라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성도들이 사모의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사모들이 일터에서 주도적인 리더로 잘 성장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 사료 된다.

셋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세 번째 경험은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힘든 감정을 나눌 곳도 없고 뚜렷한 소속감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 된 듯한 외로움이었다. 목회자 사모를 자기 정체성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박인숙, 2008)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교회와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자신의 행동거지를 점검하고 역할기대에 순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소속감의 부재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정서적 고립감은 목회자 사모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문제로 실제 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소외와 고립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이진영 외, 2012: 19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모들 보다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직장 일에 지쳐 있고 재충전을 할 시간이 없이 피곤해도 교회 내 직장을 다니지 않는 다른 사모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동료 사모들에게조차 본인의 힘든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어느 곳에서도 소속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에서도 직장인 사모가 드러낼 수 있는 언행의 한계점으로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고립감과 지지망 부족의 외로운 삶의 모습들을 온몸으로 감싸 앓은 채 살아가는 것이 참여자들의 인생임을 알 수 있었다. 목회자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모는 이를 묵묵히 돕기 만하면 된다고 사모에게 익명성을 부여하는 것, 사모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사람, 목회자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 내에서 요구하는 모습이기에 사모들은 자신들이 직장을 다니느라 성도들이 요구하는 사모로만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면서 더욱 주눅이 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할 대상이 없기에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직장에서도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사모들은 직장과 교회, 사회에서 이러한 것에서 한계가 있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다(장은진, 2008: 193).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부터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상황적 이해를 시작해 나감으로서 이들이 겪고 있는 고립감에 대한 공감적 태도와 지지망을 형성하고 사모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문화들이 형성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넷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에서 네 번째 경험은 직장생활과 교회 내에서 수많은 제약과 고단함을 경험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이끄심을 생각할 때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었다. 김보람(2017: 8)의 연구에서 영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고, 배우자(목회자)의 사랑만으로는 사모라는 입장에서 해결하기 버거운 일들이 많기에 목회자 사모들은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높은 감사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상황에 봉착 할 지라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유익한 방향으로의 상황 재해석 능력이 탁월하다 하였다(Tedeschi, Calhoun, 2004).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힘든 직장생활과 직장을 다니는 사모에 대한 교회내의 부정적 시선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그 곳에서 성실함과 선한 태도를 보여 갈 때 직장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름을 인식시켜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일 하심과 자신을 들어 쓰심을 깨달아 알아 가면서 고된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가고 있었다. 직장을 통해 필요를 채움 받고 받은 은혜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형편이 어려운 사모에 대해 공감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어 보람도 느낀다고 그들의 경험을 표현하였는데 상기에 언급된 연구 내용들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목회자 뒤에서 묵묵히 사모로서의 역할만 감당해야 한다고 여기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건강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 하며 이들을 높은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려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신앙의 동역자로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직장을 다니는 사모를 목회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하던 부정적 시각을 벗겨내고 이들이 겪어내고 있는 고단한 삶의 여정에 대해 관용의 태도로 바라보며 사모들을 성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아가야할 존재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으셨는데 필요한 곳을 비추고 뿌려질 때 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 사모들이 목회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의 삶과 고충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교회 내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지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근거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목회자 사모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자 사모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교회차원에서 사모의 역할과 위치에 관한 인식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노력으로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목회자 사모가 직장을 갖는 것 대해 좀 더 수용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전환시켜 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에서 한계 짓는 제약과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소외감을 가지며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전인건강을 위해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일터영성(Workplace Spirituality)’ 및 ‘일터선교(Workplace Mission)’의 개념과 이를 통해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할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목회자 사모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닌 직장에서도 올바른 교회문화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연구자와 연구자 주변인들의 교회에 소

속된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들 가운데서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7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수가 충분치 않고 연구자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참여자의 수를 확대하거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양적 연구 등의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혜숙 (2007). **기혼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관련정책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Kang, H. S. (2007). *A Study on Childcare Policy for Married Working Women*.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 김근식·윤옥화 (2009). 기혼취업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167-188.
- [Kim, K. S, Yoon, O. H. (2009). A study on the QOL of married working women: Focused on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effecting factors. *Korean Autonomous Administration*, 23(2), 167-188.]
- 김기현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Kim, K. H. (2000). *Exploring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the parenting stress of dual-earner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김나미 (2016).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673-685
- [Kim, N. M. (201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Spiritu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673-685]
- 김나미 (2015).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2), 252-261.
- [Kim, N. M. (2015). Relation analysis on mental health and spiritual wellbeing of the pastors' wiv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2), 252-261.]
- 김나현·이은주·곽수영·박미라 (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 [Kim, N. H, Lee, E. J, 곽수영, Park, M. Y.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burden of working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3), 188-200.]
- 김보람 (2017). **목회자사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영적안녕감과 감사의 조절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 [Kim, B. L.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and apprec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or's wife's stress and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Daejeon, Korea.]

- 김상태 (1993). **재림교회 목회자의 바람직한 부인상과 목회 현장에서의 사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Kim, S. T. (1993). *A Study on the Desirable Minor Appreciation of Adventist Church Pastors and the Role of Private Wives in the Pastoral Field*, Master Dissertation, Samyuk University. Seoul, Korea.]
- 김신섭 · 정구철 (2015).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242-253.
- [Kim, S. S, Jung, G. C. (2015). Influence of self-identit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in Pastor's wives :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experie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5), 242-253.]
- 남순동 (2009). **중년여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예측모형**.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Nam, S. D. (2009). *A middle-aged female family stress and mental health forecasting model*,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도전욱 (2017). **후기산업사회 한국 도시교회의 위기 속에서의 BAM 사역의 원리와 전략**.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Do, J. W. (2017). *The principles and strategies of Bam ministry in crisis of Korean urban church*,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박인숙 (2009). **목회자 부인의 정신건강과 치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Parkm I. S. (2009).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and healing of pastor 's wife*, Master Dissertation, Hanshin University. Osan, Korea.]
- 반신환 (2003). **사모상담 · 기독교상담**.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 [Park, S. H. (2003). *Private Counseling · Christian Counseling*. Daejeon: Hannam University Press.]
- 손민정 (2014). **목회자사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Son, M. J. (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astor 's Stress on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 손영미 · 박정열 (2015). 한국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갈등 및 축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203-215.
- [Son, Y. M, Park, J. Y. (2015). Influence of work-family related values on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Focused on married working woman. *Journal*

-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7), 203-215.]
- 송다영 · 장수정 · 김은지 (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장 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27-52.
- [Song, D. Y, Jang, S. Y, Kim, E. J. (2010).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work-family conflict of korean working people: Focusing the effect of workplace support and familial support . *Social welfare policy*, 37(3), 27-52.]
- 안석모 (2005). 사모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허와 실. *목회와 신학*, -(189), 134-135.
- [Ahn, S. M. (2005). Truth and falsity for pastor's wife's identity issues. *Pastoral Theology*, 3(2), 172-186.]
- 연명숙 (2013). **목회자 사모의 역할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Yeon, M. S. (2013). *A psychoanalytic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pastor's private*. Master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Asan, Korea.]
- 오미희 (2012). **목회자 사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Oh, M. H. (2012). *The effect of economic stress and self-esteem on pastors'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 유성경 · 홍세희 · 박지아 · 김수정 (2012). 한국 여성의 일-가족 갈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1-29.
- [Yoo, S. K, Hong, S. H, Park, J. A, Kim, S. J. (2012). A validation study of the work-family conflict scale with korean women.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woman*, 17(1), 1-29.]
- 윤상현 (1989). **목회자 아내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Yoon, S. H. (1989). *A Study on the Qualities and Role of Pastoral Wives*. Master Dissertation.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Goyang, Korea.]
- 이숙정 (2011).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갈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여성학연구**, 21(2), 81-112.
- [Lee, S. J.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Research in Women's Studies*, 21(2), 81-112.]
- 이진숙 · 최원석 (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 일가족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 43(4), 5-30.
- [Lee, J. S, Choi, W. S. (2012). A path analysis on birthplan of married working women -focus on the relationships of gender role attitude, work -family reconciliation, marriage satisfaction and birth plan-. *Social Welfare Studies*, 43(4), 5-30.]
- 이진영 · 전요섭 (2012). 일반 : 목회자 아내의 정서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자기노출과 지지집단 형성. *한국개혁신학*, 34(-), 193-231.
- [Lee, J. Y, Jeon, Y. S. (2012). Self-exposure and supportive group formation to overcome emotional isolation of pastor's wife. *Korean reform theology*, 34(-), 193-231.]
- 장미선 · 이유진 · 조현정 (2011). 목회자사모의 DACUM 직무분석과 교회비서와의 비교연구. *비서 · 사무경영연구*, 20(2), 79-103.
- [Jang, M. S, Lee, Y. J, Cho, H. J. (2011). DACUM job analysis on pastors' wives and a comparison with church secretaries. *Secretary · Office Management Research*, 20(2), 79-103.]
- 장은진 (2008).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상담에 대한 요구도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6(-), 187-210.
- [Jang, E. J. (2008).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the pastors' wives and their demand for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6(-), 187-210.]
- 전정희 · 한재희 (2012). 자기소외를 경험하는 목회자 아내의 심리사회적 현상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159-186.
- [Jeon, J. H, Han, J. H. (2012). A study on the psychosocial phenomenon of Pastor's wives experiencing self-alien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3(1), 159-186.]
- 주봉채 (2005). **목회자 부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Joo, B. C. (2005). *A study on the solution of the stress of pastor couple*. Master Dissertation.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Goyang, Korea.]
- 최미선 (2007). **인지요법을 활용한 목회자 사모의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Choi, M. S. (2007). *Pastor's private depression treatment program using cognitive therapy*. Master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한경훈 · 박소정 · 김세현 (2015). 기혼유자녀 직장여성의 수퍼우먼 신드롬 유형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양상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25-43.

- [Han, K. H, Park, S. J, Kim, S. H. (2015). Superwoman syndrome of married, working wome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Research on Society Science*, 31(2), 25-43.]
- 홍용인 (2010).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돌봄(caring)의 개념으로 본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347-378.
- [Hong, Y. I. (2010). A study of pastors wives' identity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carol gilligan' s caring.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0(-), 347-378.]
- 김종환 (2005). 사모의 자기 돌봄, *목회와 신학*. 194.
- [Kim, J. H. (2005). Self-care of Pastor's wives. *Pastoral Theology*, 194.]
- Giorgi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Kuzel, J.(1992). Sampling in qualitative inquiry, BF Crabtree and & WL Miller, Editors. *Doing qualitative research*, 1994, 31-4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 Morse, J.M., & Field, P.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2nd ed)*. London: champman & Hall.
- Pentecost. D. (1991). *A successful pastor's wife*, Seoul: Emmao.
- Roberts, P. S.&Getz, H. G. & Skaggs, G. E.(2006). Alleviating stress in clergy wives: Formative evaluation of a psychoeducational group intervention in its first implementation. *Journal of Spirituality in Mental Health*, 9(1), 35-58.
- Shaevitz, M. H. & Shaevitz, M. H.(1984). *The Superwoman Syndrome*. New York, NY: Warner Books.
- Tedeschi, R. G. & Calhoun, L. G.(2004). TARGET ARTICLE: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Hack, A.L.(1993). *The clergyman's spouse: predictors of satisfaction in the spousalro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Kentucky.

논문초록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

조현미 (고신대학교)

최은정 (교신저자/고신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본 연구는 직장인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실시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목회자 사모로서 직장생활을 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7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4개의 구성요소와 12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목회자 사모의 직장생활의 상황적 구조로 도출되었고 도출된 4개의 구성요소는 ‘굴레로 덧 씌워진 사모의 자리’, ‘시선으로 에워싸인 삶의 여정’, ‘이방인으로 머무르는 삶’, ‘사랑해서 부르신 섬김의 자리’ 이었다. 이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는 목회자 사모들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사모라는 이름이 굴레가 되어 육체적, 정서적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늘 평가의 시선에 사로 잡혀 죄책감에 힘겨워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 마음 나눌 곳이 없어 외로움을 경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이 신앙 안에서 자신을 들어 쓰임과 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들의 삶의 경험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 하였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교회 내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지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 목회자 사모, 직장생활 경험, 질적연구

본회퍼의 ‘현실’ 이해와 복합적 평등

Bonhoeffer's Understanding of 'Reality' and Complex Equality

최경환 (Kyoung-Hwan Choi)*

Abstract

The task of Christian social ethics is to adequately explain the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of the gospel. It is a classical and controversial debate that persuasively presents these two tasks without sacrificing either. In today's context, this debate has begun to emerge from the question of what role religion plays in public sphere. This paper attempts to overcome this dilemma faced by the Christian gospel in today's public sphere through Bonhoeffer's ethics. The duality of Bonhoeffer's concept of 'reality' provides ideas that can make modern society more just and fair today. In addition, Bonhoeffer's 'mandate' theory provides a basis for adequate explanation of the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of the Christian faith. In particular, Bonhoeffer's ethics provides a theological foundation for 'political pluralism', which is important in today's political philosophy. Through the Bonhoeffer's ethics, I will present what form and content Christianity can take to faithfully testify to the gospel in today's public sphere.

Key Words : Bonhoeffer, public theology, complex equality, mandate, Walzer

이 논문은 기독교학문연구회와 세계관연구소에서 주관한 2017년 <신앙과 학문> 논문제안서 공모전 수상 논문입니다.

* 새물결 아카데미 연구원(HolyWave Academy),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1(5층), john9567@naver.com
2018년 02월 25일 접수, 03월 24일 최종수정, 03월 27일 게재확정

1. 들어가는 말

신학은 오랫동안 세상과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연구해왔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사회와 정치라는 환경으로부터 초연하게 떨어져 있으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동시에 시민이라는 존재양식과 서로 교차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자신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 항상 세상 안에 존재하며 세상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자신이 알든 모르든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공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법과 정의, 시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 생태적 삶, 소유와 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슈들, 노동자들의 투쟁과 저항에 대한 문제들, 전쟁과 평화, 교육과 지식, 학문과 과학,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제도, 문화와 언어로 말미암는 다양한 사회문제 등등, 오늘날 우리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가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자신의 윤리학을 통해 공적 담론에서 기독교가 자신의 목소리를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본회퍼는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속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현실, 즉 그리스도의 현실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현실을 그리스도를 통해 수납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과 분리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영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현실을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본회퍼는 ‘위임’(mandat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위탁하신 위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임은 변하지 않는 정적인 질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역동적인 질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임이 작동할 때는 언제나 저항하고 변혁할 수 있다. 본회퍼는 위임들의 상호 견제와 통제, 그리고 견책을 통해 각각의 위임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본회퍼의 현실 개념과 연관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다 정 의롭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물론, 그의 사회윤리를 현대 사회이론이나 정치철학과 직접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유사한 정치철학적 개념들을 상호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은 유의미한 시도일 수 있다. 본 논문은 본회퍼의 『윤리학』을 읽으면서 떠오른 신학적 단상들을 오늘날 현대정치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다. 특별히 오늘날 ‘복합적 평등론’을 주장한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의 논의를 활용해 본회퍼의 위임론을 해석해 보겠다. 이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실이 구현 되는 장소이자 위임 가운데 하나인 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본회퍼의 교회론이 가지고 있는 공적 역할을 설명함으로써 그의 신학이 가진 정치적 함의를 제시하고, 공공신학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탐구해 보겠다. 본회퍼의 신학을 통해 오늘날 기독교의 공적 책임과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소 과욕일 수 있다. 특별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 한국사회와 교회의 현실은 본회퍼의 시대와는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가 품었던 비전과 현실 이해를 통해 다원 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학과 근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그리스도의 현실에 참여하는 삶

래리 라스무센(Larry Rasmussen)과 한스 파이퍼(Hans Pfeifer)는 본회퍼의 『윤리학』이 ‘기초’(foundation)와 ‘구성’(construction)이라는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데, ‘기초’는 ‘현실’ 개념과 상응하고, ‘구성’은 ‘책임’ 개념과 상응한다(Rasmussen, 1999: 215; Pfeifer, 1997: 143). 따라서 ‘현실’과 ‘책임’은 본회퍼의 윤리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개념이다. 본회퍼는 “책임적으로 행동 하는 자의 행위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현실에 적합하다”고 말한다(본회퍼, 2010: 265).¹⁾ 특별히 본회퍼의 윤리학에서 ‘현실’ 개념은 그의 다양한 신학적 개념들, 예를 들어, ‘형

1)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 한글 번역본을 따르지만, 번역을 수정한 경우에는 영어본 쪽수를 표 기했다.

성, ‘대리행위’, ‘위임’, ‘구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전체 사상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 현신과 현실화

본회퍼는 윤리의 근거를 항상 구체적인 현실에 두었다. 그에게 윤리는 어떤 가능성이 나 잠재력, 혹은 보편적인 형식이나 토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시”(concrete revelation)였다(Bonhoeffer, 1998: 129). 이 계시는 세상을 초월해 있는 어떤 형이상학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 내적인 것도 아니다. 본회퍼는 항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의 신학적 논의를 출발했고, 이는 현실에 대한 통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본회퍼의 현실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의 주된 관심은 오직 하나의 현실, 그리스도의 현실(Christ-reality)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개념은 본회퍼가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동일하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두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현실만이 존재한다. 이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으로서 세상의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실이다.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과 동시에 세상의 현실에도 속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을 포함하고 있다.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만의 현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세상적”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적”이 되려고 하거나, 혹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인식하지 않고 세상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일이다(본회퍼, 2010: 52).

본회퍼에게 그리스도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의 ‘구별된 통일성’(differentiated unity)이다. 서로를 배제하거나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두 현실은 동시에 같은 현실을 전유하고 확증한다. 그러므로 본회퍼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현실은 세상의 현실을 감싸고 둘러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도 않으며, 동시에 세상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는 이해는 본회퍼의 인간론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는 인간을 분리될 수 없는 전체(indivisible whole)로 이해하며, 현실을 선의 원천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본회퍼는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

이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현실 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논쟁적인 통일성”(a polemical unity)이라 부르는 것 안에 함께 있다. 즉 이 차이들이 유지되면서도 여전히 분리되지 않는 통일성으로 차별화되고,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통일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본회퍼는 칼케톤 신경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 교리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에 대한 본회퍼의 개념은 확실히 “신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현실은 나를 전적으로 이 세상의 현실 안으로 인도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낸다. 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이미 감당되었고, 용납되었으며, 화해되었다. 이것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다(본회퍼, 2010: 48).

그러나 기독교윤리는 실제의 신비를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윤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그리스도적 현실은 단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형성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 즉 “현실(reality)과 현실화(becoming real)”가 기독교윤리의 핵심이다(본회퍼, 2010: 41). 본회퍼의 현실 이해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기독교윤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본회퍼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은 타자를 위한 책임을 수용할 때 구성된다고 말한다. 이 순간에 윤리적 “상황”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타자와의 만남이 윤리적 책임의 원천이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위해 책임을 지는 순간에 그는 현실 안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윤리적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 윤리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끌어들이는 추상적인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행동의 주체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인간을 위해 책임을 지는 인간이다. 행동의 규범은 일종의 보편타당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체적인 이웃이다(본회퍼, 2010: 263).

본회퍼는 개별자들이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순간이 바로 인간이 현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때라고 말한다. 타자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의 행동을 현실과 일치하도록 해준다. 본회퍼는 윤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규정하면서, “자신의 특정한 시간과 자신

의 특정한 공간”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다(본회퍼, 2010: 439).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이기에 윤리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윤리적 논의는 모든 진정한 윤리적 논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한을 상실”하기 때문이다(본회퍼, 2010: 446).

본회퍼의 현실 이해는 세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본회퍼는 세상에 대한 긍정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보편성을 윤리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구체적인 이웃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순간, 즉 책임이 발생하는 순간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기독교윤리의 특수성은 지금 여기서 타자를 통해 만나는 그리스도의 현현(顯現)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 특수성이야말로 기독교윤리의 정체성과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회퍼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내향성과 외부성을 나누는 존재론적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형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성적 원리를 거부한다. 윤리를 이러한 형이상학적 보편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간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완전히 원자화하며, 무한한 주관주의와 개인주의로 끝장나고 만다(본회퍼, 2010: 450).” 본회퍼는 직접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지는 않지만,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근거와 토대를 지속적으로 비판한다. 윤리라는 것은 형식적인 이성의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명령 관계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오직 장소와 시간과 결부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다. 윤리는 분명하고, 명백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 가운데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 “계명은 스스로 한계선을 설정하며, 자신을 청중 할 수 있고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러한 한계선은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심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본회퍼, 2010: 467).”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인간은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자유를 통해 책임 있게 행동한다. 이렇게 본회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을 발견하고 다시 이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연결한다.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행동 안으로 끌어들인다. 여기서 주어진 상황은 단지 자신의 생각을 각인하는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함께 형성해 나가는 재료가 된다. 여기서 현실은 그 어떤 낯선 법칙을 강요받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행위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현실에 적합하다(본회퍼, 2010: 264-265).

현실, 곧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 안에서 파악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로부터 현실과 교류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체적이고 책임적인 모든 행동의 본질이다(본회퍼, 2010: 277).

본회퍼는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해결되거나 그의 표현대로 '정적으로' 설명되는 방식을 피한다. 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되면서 결국 끝까지 논쟁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본회퍼는 그리스도교 윤리가 새로운 윤리적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정을 쏟는 열광주의를 경계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역사적 현실 자체를 쉽게 수궁하는 타협주의도 계속 경계한다. 결국 본회퍼에게 윤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면서도 결코 혼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한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개의 질서,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렴되고, 화해되면서 결국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된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제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역설적으로 만나는 접점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세상과 화해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야 하는 모순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현실은 세상을 수궁하면서 동시에 변혁한다. 분명 이러한 현실 이해는 역설적이다. 본회퍼의 모든 텍스트는 이러한 긴장을 놓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니센은 본회퍼의 현실 개념에는 분명 '신비'(mystery)의 요소가 내재해 있다고 말한다(Nissen, 2011: 330). 본회퍼는 그리스도교 윤리의 보편성과 추상적 원리를 지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포착되는 윤리의 과제를 찾으려 했다. 따라서 그의 윤리는 자연스럽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2. 본회퍼의 역동적 위임론

본회퍼는 여러 차례 기독교윤리의 핵심적인 과제를 하나님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에 '참여함'(participation)으로 '현실과 현실화'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회퍼는 이미 주어진 하나

님의 현실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현실을 이 땅에 실현시키겠다는 오만에 빠지지 않고,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순응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자세도 경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활동성’(God’s ongoing activity)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Holmes, 2010: 288).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현실과 현실화’를 매개하시듯 우리들도 세상의 현실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적절히 파악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현실을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분회퍼는 ‘위임’(mandat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위탁하신 위임이 있다는 것이다. 분회퍼는 루터파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질서’ 개념의 보수주의적 왜곡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루터파가 주장했던 ‘창조의 질서’에 반대하고자 의도적으로 위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회의 각 영역과 질서를 설명했다. 분회퍼는 위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임”이란 그리스도의 계시에 근거한, 그리고 성서를 통해 증언된 하나님의 구체적 임무를 의미한다. 위임은 하나님의 특정한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정당성을 준다. 위임은 세상의 법정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다. 이와 동시에 위임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세상의 특정한 영역을 요구하고, 차지하며, 형성한다.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한 자를 대신하여 그의 대리인으로 행동한다(분회퍼, 2010: 470).

분회퍼는 루터파 신학자와 목사들이 히틀러에 깊이 동조한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쉽게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이를 추상화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를 알았다. 순전히 내면적이고 폐쇄적인 의미로 노동이나 결혼과 같은 성서적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도 알았다. 그래서 분회퍼는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생각에 저항했다. 분회퍼가 위임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의도하고자 했던 바는 각각의 위임이 서로 함께 고려될 때, 이들은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만약 각각의 위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기원과 목적을 이룬다. 정적인 이해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위임들을 일으켜 주고, 경계를 정해준다.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기원과 실존,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 준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관계들을 규정하고 현실화시키는 행위주체다.

위임은 위로부터 제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행자이며, 대리자이고, 증인”이며(Bonhoeffer, 2005: 360),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Bonhoeffer, 2005: 68). 본회퍼는 ‘창조의 질서’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정태적인 의미를 거부하고 보수주의로 빠질 위험에 대해 계속 경계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질서를 이야기 하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이자 전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회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와 구조를 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본회퍼는 위임을 역사적으로 역동적인 형식이며, 항상 책임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구조라 생각했다. 따라서 위임은 자신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발견한다. 본회퍼는 위임의 경계와 영역, 그리고 이들의 상호의존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와 가정과 노동과 정부가 서로 경계선을 그을 때, 오직 이것들이 나란히, 그리고 함께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할 때, 위로부터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이러한 권세들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시될 수 없다. 오직 이러한 권세들이 서로 마주 보고, 나란히 존재하고, 함께 존재하고, 서로 대립할 때, 오직 구체적인 관계와 한계선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계명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계명의 탁월성은 입증된다(본회퍼, 2010: 459).

위임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서로를 구성하며, 서로를 제한한다. 각각의 위임들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위임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에 의해 그 정당함을 인정받는다. 그들은 각자 다른 위임을 견책함으로 서로를 보충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완성해간다. 모든 위임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서로를 점검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통치에 의해서 점검되며, 둘째는 다른 위임들을 통해 점검된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교회는 성직주의로 빠질 위험과 전체주의적인 세계관으로 함몰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위임은 각각의 영역에 대한 역동적인 질서이며 이는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그 형식을 드러낸다.

Ⅲ. 왈저의 ‘복합적 평등론’과 신학적 적용

크리스텐덤(Christendom) 이후 기독교는 지배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켜 왔던 오만한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인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본회퍼의 현실 이해와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위임론이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회퍼의 사회윤리를 오늘날의 정치윤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단 본회퍼의 저술들은 많은 이들의 편견과 달리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스도의 현실이 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의 글 속에서는 현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사회학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본회퍼 연구자들 가운데는 그의 행동이 그의 글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실천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오늘날 정치철학과 정치윤리는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담론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대부분의 논의가 그와 관련된 담론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공공신학은 이런 철학적 기초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퍼의 윤리를 오늘날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인은 본회퍼와 공공신학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 매개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대표적인 논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이클 왈저의 정의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왈저의 다원주의와 ‘복합적 평등론’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본회퍼의 윤리학을 공공신학과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1.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왈저는 롤즈의 보편적이며 추상적인 거대 이론과 다르게 보다 ‘현실주의적’(realistic)이고, ‘특수주의적’(particularistic)이며, ‘국지적’(local)인 정의론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롤즈의 정의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현실을 관조하는 전통적인 철학 방법론을 답습하고 있는데 반해, 자신의 정치철학은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나의 논변은 근본적으로 특수주의적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세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확보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철학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동굴에서 걸어 나와 도시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먼 곳에서 일상적인 삶의 지형을 기술한다. 그래서 그것은 지형의 특수성을 상실하고 일반적인 모습만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동굴 안에, 도시에, 그리고 대지 위에 머물고자 한다. 철학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들의 세계를 자신의 동료 시민들에게 해석해주는 것이다. 정의와 평등은 철학적 인공물들로서 인식 가능하게 고안될 수 있지만, 정의로운 사회 혹은 평등한 사회는 그렇게 고안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사회가 이미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결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Walzer, 1983: xiv).

왈저는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정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왈저의 관심은 “변혁, 도피, 초월이 발생하기 이전,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다(Walzer, 1983: 187). 따라서 왈저의 논의에 따르면 보편적인 것을 앞세워 특수한 것을 재단하려는 태도는 잘못이다. 롤즈의 시도처럼 어떤 특수한 이해관계에도 봉사하지 않는 보편적인 원칙을 찾아내서 이를 통해 모든 사회의 행동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의론이라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답론은 항상 ‘두꺼움’과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두꺼운 도덕성을 마치 공통적인 합의인 양 다른 나라에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Walzer, 1994: 9). 이렇게 정의는 각 사회의 특수한 문화를 반영하는 두꺼운 도덕적 관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유형의 정의관을 다른 사회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니 왈저는 당연히 다원주의자다. 그는 자유주의의 한 산물인 다원주의의 관점을 차용해서 역으로 자유주의 사회의 획일성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시장논리를 앞세워 사회 영역을 하나의 거대한 교환체계로 취급하려는 것은 각 영역의 자율성을 해치는 전체주의적인 자세다(Walzer, 1994: 35).

왈저의 다원주의는 사회의 각 영역들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복합적 평등론’(complex equality)으로 정형화된다. 왈저에 따르면, 사회의 각 영역들은 나름의 자율성과 가치 기준을 지녀야 한다.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등의 사회 영역은 다른 영역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며, 다른 영역을 지배해서도 안 된다. 사회는 각각의 영역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는 한에서만 복합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평등이야말로 자유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정의론이다.

왈저는 ‘지배’에서 부정의의 기원을 찾는다. 왈저에겐 특정한 가치들이 ‘전환’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하고, 분배영역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 즉 ‘지배의 축소’가 사회정의의 지향점이다(Walzer, 1983: 17). 따라서 왈저의 복합적 평등관은 소유의 동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고 공유하며 나누는 사회적 가치들에 의해 매개되는 사람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삶의 영역은 다양하고, 각각의 영역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의미가 부여된 상이한 가치들이 존재하며, 그 가치들은 사회적 의미와 상이한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원주의적 정의론의 주요 내용이다.

상이한 사회적 재화는 상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대리인에 의해 다양한 이유로 분배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차이점은 사회적 재화 자체의 상이한 이해로부터 불가피하게 역사적 및 문화적 특수성의 산물에서 파생되어야 한다(Walzer, 1983: 6).

따라서 왈저에 의하면 분배 이론은 구체적으로 역사적이며 사회의 각 영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수하게 정형화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재화 또는 재화의 묶음은 그 자체로 고유한 기준과 배열이 적합할 때, 그 안에서 분배 영역이 구성된다(Walzer, 1983: 10).” 왈저는 각 영역이 재화의 특수한 형태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이 규정되며, 문화적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또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왈저에 따르면, 정의는 재화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서 지역적으로 적절한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될 때 발생한다. 반대로 부정의는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넘어설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돈이 경제 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에까지 지배력을 행사할 때 부정의가 발생한다. 신의 은총과 구원의 원리가 작동하는 종교의 영역에 자본의 논리가 침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국가권력’은 사회적 삶의 영역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권력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의 추구를 규제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국가 또한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 정치권력이 전체주의적인 세력으로 다른 영역들을 지배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왈저는 시민사회를 통해 권력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시민 모두가 분배 영역들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상이한 가치들 사이의 전환을 봉쇄하기 위한 영원한 감시자(external vigilance)의 눈초리를 번득이고, 끊임없이 불만과 개선 가능성을

토로해야 하는 정치 혼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Walzer · 박정순, 2001: 259-260).

다양한 사회적 삶의 영역들이 자율성을 갖도록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정치권력은 다시 시민사회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왈저가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회의 각 영역들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상호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복합적 평등론과 신학적 적용

켄트 반 틸(Kent A. Van Til)은 이러한 왈저의 복합적 평등론의 아이디어를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 사상과 연결해서 설명한다.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자신의 고유한 논리와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왈저의 다원주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각각의 영역이 고유한 내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만약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다. 이미 마이클 러스틴(Michael Rustin)이 지적한 것처럼, 왈저의 다원주의 정의론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왈저의 상대주의적 입장에서는 이미 사회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적 부정의(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억압)를 종식시키거나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무력이나 무지에 크게 의존할 때, 내적 합의로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너무나 큰 무게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비합리적이다(Van Til, 2005: 282에서 재인용).

러스틴은 내적 합의와 규칙이 어떻게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냐고 묻는다. 왈저의 정의론은 특수한 문화와 전통에 기반을 둔 권리 담론이기에 상대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²⁾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

2) 물론, 왈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에서 공동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 영역과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욕구를 가지고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념을 실천하려 한다. 또한 어떻게 정의가 사회적 재화를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한 개인이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배되는 상황은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흔한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경계를 이동하고 넘나들기도 한다. 영역들 사이에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거나 선명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도 한다(Van Til, 2005: 284에서 재인용).

켄트 반 틸은 이러한 왈저의 약점을 카이퍼의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신학으로 극복하려 한다. 카이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중재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주장하기에 왈저의 상대주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Van Til, 2005: 288). 그러나 이러한 카이퍼의 주권 사상은 결국 ‘창조의 질서’를 강조하고 기존의 질서를 신적인 권위로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켄트 반 틸은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이 왈저의 상대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신학적 기획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카이퍼의 사상은 오히려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옹호하는 역사적 과오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반면 본회퍼의 위임론은 왈저의 복합적 평등론이 가지고 있는 상대주의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주권적 다원주의의 한계를 피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본회퍼는 위임론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영역과 주권은 항상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위임들은 서로 공존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위임들이 아니다. 이러한 공존 가운데서 위임들은 서로 독립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지향한다. 위임들은 서로를 위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위임들이 아니다. 이처럼 서로 공존하고 서로를 위함으로써 하나는 다른 하나를 통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서로를 위하는 관계 안에서 필연적으로 대립관계로서 경험된다. 만약 이러한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임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본회퍼, 2010: 475-476).

위임들은 서로 공존하고 서로를 지향함으로써 서로를 제한한다. 무엇보다 본회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위임은 서로를 필연적으로 대립관계로 경험한다고 말한다. 본회퍼의

위임론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성격은 여기서 드러난다. 만약 본회파가 전통적인 루터파 신학을 견지했다면 각각의 위임들이 서로 통제하고 대립한다는 생각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독일교회의 과오를 지켜보면서 기존의 신학자들이 견지하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위임론으로 신학적 입장을 발전시킨 것이다. 로빈 W. 로빈(Robin W. Lovin)은 본회파의 위임론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회파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회 조직들이 공동의 정치적 질서를 추구해야 한다고 봤는데, 그것은 바로 위임들은 다양할 뿐 아니라, 각각의 위임들이 서로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본질적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임들은 서로를 향해 방향 지어져 있으며, 또한 서로를 등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적대의 사회적 조건이 바로 기독교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위임들 사이의 복합적 상호관계다(Lovin, 2008: 78).

위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성하기 위해 익숙해진 경계를 무너뜨리는 과감한 모험을 수행한다. 즉, 위임은 현실을 구성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변혁된 현실이 바로 윤리의 목적이며 목표다. 그래서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치환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다. 위임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자신을 변화에 개방시킨다. 만약 '위임이 인간의 삶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이 위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위임이 아니며, 우리는 이러한 위임에 저항하고, 개혁해야 한다. 주어진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위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본회파에게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고 잘못된 구조와 체제를 변혁해야 할 신학적 근거는 바로 이런 위임론에 있었다. 루터파 신학자이자 자유주의 신학의 세례를 받은 본회파가 나치에 동조했던 당대의 신학자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현실 세계에 참여하면서 기존 질서를 비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존하는 모든 질서와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에 의해서 언제든지 새롭게 갱신될 수 있으며, 기존 체제를 변혁할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고정불변의 윤리, 언제나 상용되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언제나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만이 윤리와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IV. 정치의 한계로서의 교회

본회퍼는 계속해서 다른 장소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자신을 새롭게 드러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사유를 구성했다. 실재를 관통하는 이 모든 구체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흔적이다. “궁극적 현실에 대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 계시의 현실 한복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본회퍼, 2010: 40).” 하나님의 계시가 세상 안에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계시의 본질인데, 이 계시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 가시화된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세상 안의 영역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현실을 포괄하시며, 세상의 궁극적 토대를 계시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증언되고 선포되는 세상 안의 장소, 곧 영역이다(본회퍼, 2010: 58).

이 세상의 영역 속에서 교회는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맡고 있다. 하나님의 현실이 세상의 현실과 하나가 되면서도 동시에 동일시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회는 세상의 궁극적 토대이면서 세상의 모든 현실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매우 특이한 영역이다. 그렇다면 본회퍼의 현실 이해와 위임론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까? 구체적으로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져야만 할까?

본회퍼의 교회론은 이중적이면서도 역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본회퍼가 전체주의 국가 체제에 저항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의 교회론도 상당히 과격하고 현실 참여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만, 오히려 전통적인 루터교 신학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다. 그의 신학에는 교회와 국가를 날카롭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전통 루터교 신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계는 또다시 그의 독특한 현실 이해에 따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 경계를 허물고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에서 찾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라고 본회퍼는

말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구체적인 세상 질서를 선포할 수 없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구체적인 질서에 맞서 저항할 수 있고, 또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최소한 부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이 가능한 질서를 위해 경계선을 긋게 된다(본회퍼, 2010: 433).

본회퍼는 교회가 정치의 한계이자 경계선이라고 말한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설교한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세상의 질서를 향한 외침이면서 책망, 비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회퍼가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하나로 결합해 이제는 단 하나의 현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만이 존재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크리스티안네 티에츠(Christiane Tietz)는 본회퍼가 생각한 교회의 정치적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면서도 그것이 동시에 현실적인 언어가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 둘째, 교회는 십계명을 설교할 때, 직접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언어로 말을 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언어는 모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언어다. 셋째, 교회는 전문적인 기독교인들(정치가)을 통해 현실 정치질서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때, 교회는 오직 인간적인 권위(human authority)에 의해서만 말해야 한다. 넷째, 만약 국가가 자신의 위임을 소홀히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책임에 따라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Tietz, 2006: 35-36). 티에츠가 정리한 것처럼, 교회의 정치적 과제는 한편으론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인간성을 훼손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어떤 경제적·사회적 태도를 직접 비판할 수 있고, 그러한 '질서의 경계'를 부정할 수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현실적 당위는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도 현실에 대한 본회퍼의 이해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과제는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질서와 세력을

에 저항하는 것이다(본회퍼, 2010: 425). 본회퍼는 교회의 임무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선포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보존과 정부의 한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본회퍼, 2010: 60). 이런 점에서 교회는 정부의 역할과 탈선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인 정치 공동체(Church as Polis)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³⁾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넘어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선물)을 세상에 증언하는 장소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낮은 자로 존재하며, 동시에 낮은 자들을 맞아들이는 장소가 된다(본회퍼, 2010: 64). 교회는 타인이 처한 박해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발견한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받았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실존을 위한 공공의 영역을 피해 사적이고, 개인적인 장소로 도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과 다른 또 하나의 영원한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남은 고난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어야 하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현실을 증언해야 한다.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감싸 안으시고 자신을 드러낸다. 교회는 세상과 투쟁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화해를 증언하는 곳이다. 교회의 과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회퍼는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생명의 표징이

3) 하우어워스는 본회퍼의 윤리학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공동체 윤리를 제시한다. Stanley Hauerwas, *In Good Company: The Church as Polis*(Norte Dame: University of Nortre Dame Press, 1995).

4) 제니퍼 맥브라이드(Jennifer M. McBride)는 세상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고 수용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고백’과 ‘회개’라는 공적 증언을 통해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변혁에 참여하게 된다. 교회의 공적 역할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인간들과 연대함으로 기독교에 근거한 회개와 죄 고백의 윤리를 만드는 것이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에 참여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타인의 죄를 짊어져야만 한다. Jennifer M. McBride, *The Church for the World: A Theology of Public Wit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3.

라고 봤다. “마치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것이라는 사인과 같이, 증인들이 침묵한다는 것은 교회가 속에서부터 썩고 있다는 사인이다(Bonhoeffer, 2005: 64).” 그럼으로 세상을 위한 사명을 수행하지 않은 채 교회의 역할을 좁은 영역 안에서만 정의하려는 견해는 거부된다. 교회는 세상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거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좁게 정의될 수 없다. 교회와 세상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유하는 모든 시도는 공적담론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다(Bonhoeffer, 2005: 64).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언과 사명은 결국 희생자들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대리적 삶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본회퍼가 교회에 대해서 그토록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그동안 교회가 타자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의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양식만을 정당화하고 끊임없이 형식적인 윤리적 당위만을 재생 반복하는 모습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⁵⁾ 이것이 바로 ‘타자를 위한 교회’(the church for the other)가 의미하는 바다.

V. 나가는 말

기독교가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보편적인 공적 삶 속에서 자신의 진리를 증언했고 자신의 존재 양식을 정당화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신학적인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사회주의와 동구권의 몰락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연합체와 공론장이 형성되면서부터다. 시민사회의 등장은 기독교의 사회참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했다. 국가와 개인, 그리고 시장의 중간 영역으로 존재하는 시민사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회의 각 영역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은 기존의 ‘기독교사회윤리,’ ‘정치신학,’ 혹은 ‘기독교세계관운동’과 비슷한 내용과 주제를 다루면서도 ‘교회와 국가,’ ‘개인과 국가’라는 정형화된 도식에서 벗어나 ‘공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영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룬다. 공공신학의 가

5) 본회퍼는 결국 유대인의 고난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고백교회를 향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기독교신학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독특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독교의 진리를 대중들에게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기독교와 세상 사이에는 분명 연속성과 불연속성, 서로 중첩되는 영역과 배타적인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모순이 현대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느냐에 따라 기독교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선을 위해 세상과 협력하기도 한다.

본회퍼의 ‘현실’ 이해와 위임론은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독특성을 신실하게 증언하면서도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 있는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본회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현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세상과 화해했다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을 강조하면서도, 이 현실은 항상 ‘구체적인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본회퍼가 제기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윤리적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항상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윤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구체적인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윤리이며 책임이라고 말한다. “책임적 인간은 구체적 현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웃을 지향한다. 그의 행동은 처음부터, 그리고 영원히, 원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어진 상황과 더불어 생겨난다(본회퍼, 2010: 311).”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배제에 눈을 감아 버리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라는 본회퍼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충고일 것이다.

공공연한 논쟁을 회피한 인간은 개인적 미덕이라는 피난처에 도달한다. 그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힘을 다해 선을 행한다. 하지만 공공성을 임의로 포기한 그는 자신을 갈등에서 보호해 주는 한계선을 정확하게 지킬 줄 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불의 앞에서 눈과 귀를 닫을 수밖에 없다. 세상 안의 책임적 행동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순수성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반드시 자기기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비록 그가 온갖 일을 행하더라도,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불안 때문에 파멸하거나, 가장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될 것이다(본회퍼, 2010: 79-80).

본회퍼의 현실 이해는 오늘날 기독교가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신실하게 선포하면서도 세상의 현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의 신학을 통해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변혁시키겠다는 과도한 열광주의의 오

류를 잠재우면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개인의 안녕과 침묵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제3의 신학적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 세상을 향해서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약자와 나그네를 포용할 수 있는 이질적인 선물의 공동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본회퍼의 현실 개념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고, 현대 사상과도 조우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손규태 · 이신건 · 오성현 역. (2010). **윤리학**, Bonhoeffer, Dietrich (2005). *Ethics*.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ohn, K. T., Lee, S. G., & Oh, S. H. (2010). *Ethics*.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of Korea. Trans. Bonhoeffer, Dietrich (2005). *Ethics*. Minneapolis: Fortress Press.]
- Bonhoeffer, Dietrich (1998). *Sanctorum Communio: A theological study of the sociology of the chur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 Hauerwas, Stanley (1995). *In Good Company: The Church as Poli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Holmes, Christopher (2010). “The Indivisible Whole of God’s Reality’: On the Agency of Jesus in Bonhoeffer’s Ethics.”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12:3. 283-301.
- Lovin, Robin W. (2008). *Christian Realism and the New Realities*. Cambridge.
- McBride, Jennifer M. (2012). *The Church for the World: A Theology of Public Witn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issen, Ulrik Becker (2011). “LETTING REALITY BECOME REAL: On Mystery and Reality in Dietrich Bonhoeffer’s Eth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39:2. 321-343.
- Pfeifer, Hans (1997). “Ethics for the Renewal of Life: A Reconstruction of Its Concept.” (ed.) John W. de Gruchy, *Bonhoeffer for a New Day: Theology in a Time of Transition*. Grand Rapids: Eerdmans.
- Rasmussen, Larry (1999). “The Ethics of Responsible Action.” (ed.) John W. de Gruchy. *The Cambridge Companion to Dietrich Bonhoeff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etz, Christiane (2006). “‘The Church is the Limit of Politics’: Bonhoeffer on the Political Task of the Church.”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60/1. 23-36.
- Van Til, Kent A. (2005). “Abraham Kuyper and Michael Walzer: The Justice of the Spheres.” *Calvin Theological Journal* 40:2. 267-289.
- Walzer, Michael (1987). *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zer, Michael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ce of Pluralism and Equality*.

Oxford: Blackwell.

Walzer, Michael (1994). *Thick and Thin: Moral Argument at Home and Abroad*.
Nortre Dame: University of Nortre Dame Press.

Walzer · 박정순 (2001). “특별대담: 자유주의의 공동체주의적 보완과 다원적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철학적 선도.” 마이클 왈저. 『자유주의를 넘어서』. 서울: 철학과 현실사.

[Walzer, Park, J. S. (2001). Special Dialogue: Philosophical Lead for the Communitarian Complementation of Liberalism and the Realization of a Multi-Equal Society, in Michael Walzer, *Beyond Liberalism*. Seoul: cheolhaggwahyeonsilsa.]

논문초록

본회퍼의 ‘현실’ 이해와 복합적 평등

최경환 (새물결아카데미 연구원)

기독교 사회윤리의 과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적절하게 설명해 내는 것이다.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이 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은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논쟁이다. 오늘날의 맥락에서 이 논쟁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큰 이슈로 등장한 공적 담론 속에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부터다. 본 논문은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 복음이 직면한 이러한 딜레마를 본회퍼의 윤리학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한다. 본회퍼의 ‘현실’ 개념이 가진 이중성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준다. 또한 본회퍼가 주장한 ‘위임론’은 기독교신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적절하게 해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특별히 본회퍼의 윤리는 오늘날 정치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해준다. 본회퍼의 윤리학을 통해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가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복음을 신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주제어 : 본회퍼, 공공신학, 위임론, 복합적 평등론, 일제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 구성

-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10편, SSCI급 국제저널에 5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5)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최근 10년 동안 SSCI급 국제저널에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4) 1개 이하의 다른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단,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경우 1개 이상의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에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5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
|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 (4) 연구방법의 적절성,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기고자도 예외 없이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게재순서는 논문투고순서 (즉, 논문번호의 순서)로 결정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심사는 투고 이후 3주 내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6장 부칙

-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 제23조 본 1차 개정된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제24조 본 2차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제25조 본 34차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발효한다.
- 제26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판정기준)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5조(원고접수)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한다.

제6조(심사를 위한 서식)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로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서식 가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표기(v 또는 x)를 하세요.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 · 적절성					
3) 결과의 학문적 · 사회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절성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6) 문장기술 · 용어 사용의 명료성					
7) 각주 · 인용 · 참고문헌 · 논문초록의 정확성					
최종평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능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서식 나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있으며, 저자가 게재된 논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편집 규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오른쪽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23)
 -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 · 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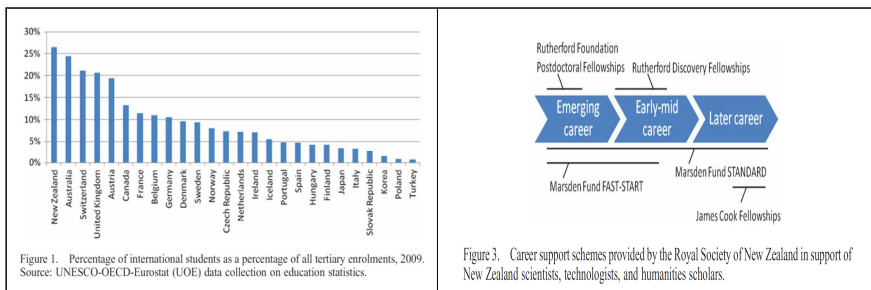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

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i>t</i> (151)	<i>r</i>	<i>d</i>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 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연.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

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Washington DC: SAGE]

10.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의 결과는 투고 후 3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가 게재 신청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위에 제시된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두 쪽 당 1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주소 : 08807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B107호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통상 발간 2개월 전까지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항 3절과 3절은 2008년 6월 1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 제5항.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 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제재를 불허한다.
- ② 기 제재 논문의 경우 제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 장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편집위원장	손병덕 (총신대학교)
부 회장	문석윤 (경희대학교)	편집위원	김철수 (조선대학교)
	이호선 (국민대학교)		손창민 (부산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우종학 (서울대학교)
	임춘택 (경남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총 무	이상무 (평택대학교)		이상무 (평택대학교)
학회이사	강영안 (서강대학교)		방명애 (우석대학교)
	권태경 (총신대학교)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김승욱 (중앙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김홍섭 (인천대학교)		Sungmin Chun (VIEW, 캐나다)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송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정희영 (총신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조성표 (경북대학교)		
	황호찬 (세종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문석윤 (경희대학교)		
연구윤리위원	이호선 (국민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3권 제1호 (통권 74호), 2018년 3월호

발행일/ 2018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편집인/ 손병덕 (총신대학교)

인쇄/ 진흥인쇄랜드

등록/ 문화 바02789

주소/ 08807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39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